

콜롬비아

정보수정일자: 2011. 04. 12

작성처: 보고타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4
-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6
- 주요 산업 동향 /9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2

III. 무역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3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30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35
 - 대한수입규제동향 /38
 - 관세제도 /38
 - 주요인증제도 /43
 - 지적재산권 /43
 - 통관운송 /44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9
- 외국기업 투자동향 /51
- 우리기업 투자동향 /53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3
- 진출 형태별 절차 /54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7
- 조세제도 /59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2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62
- 물가정보 /64
- 바이어발굴 /65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1
- 이주정착 가이드 /73
- 출장가이드 /76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94
- 유관기관 웹사이트 /95

KOTRA 99개 KBC에서 전하는 Global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KOTRA InfoPass 안내

'InfoPass'란? 정보(Information)와 자유이용(Pass)을 결합한 KOTRA 정보 자유이용 서비스로 KOTRA 국가정보의 온·오프라인 이용 뿐만 아니라 KOTRA 발간하는 모든 유·무료자료를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는 VIP 정보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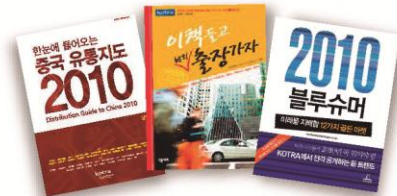
1. 국가정보 서비스 (전세계 136개국)

- KOTRA 주재 7개국 및 비주재 관할 65개국 국가정보의 이용 ID부여
 - * 비주재국 관할 65개국 국가정보 InfoPass 고객에게 최초공개
- 국가정보 (7개국) 전질 인쇄본 무료 제공 (150만원 상당)



2. KOTRA 발간 유·무료자료 무료 배송 서비스

- 서비스 이용기간내 발간하는 모든 KOTRA 자료 실시간 배송
 - * '09 유·무료 자료 (약 180여권) : [유료단행본] '2010 블루슈머', '중국유통지도' 등 21권 / [무료자료] '한-EU FTA 10대 수출유망상품' 등 163권



판매가격(VAT 포함)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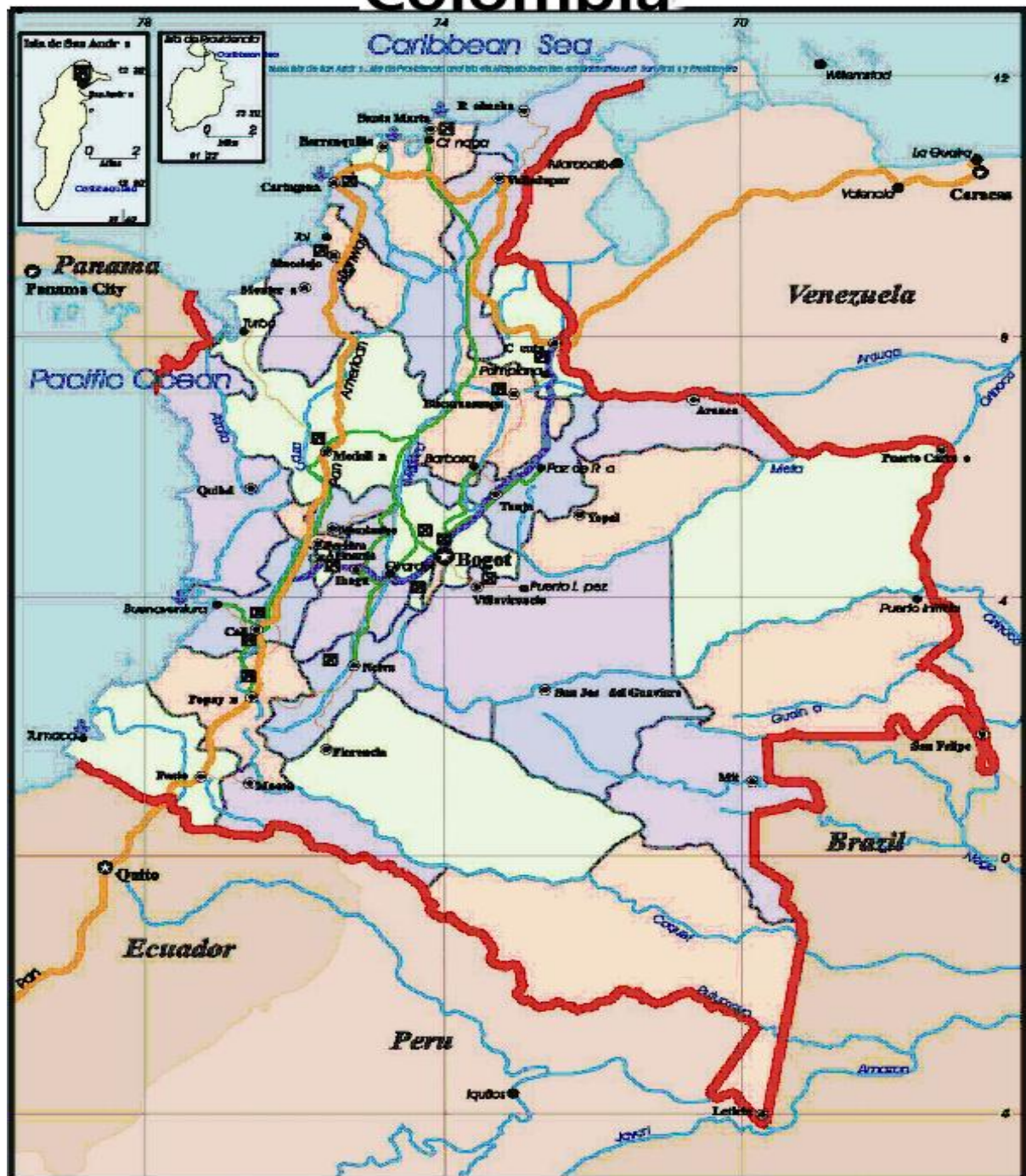
500만원/年
250만원/年대기업, 지자체, 연구소, 대학, 유관기관(협회 등)
개인 및 중소기업

*InfoPass ID는 기관내 공유 가능하나 동시접속은 불가 (ID추가시 20% 적용)

- ✓ 가입방법 : www.globalwindow.org 내 InfoPass 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E-mail 송부
- ✓ 담당자 : KOTRA 구미팀 정은정, 김한나 대리
- ✓ Tel : 02)3460-7319, 7322 / Fax : 02)3460-7924
- ✓ E-mail : cocoej@kotra.or.kr (정은정)
hanna@kotra.or.kr (김한나)

kotra

Colombia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개요

국 명	콜롬비아 공화국 (Republic of Colombia)
위 치	남미 서북부, 태평양과 대서양에 연해 있음
면 적	1,141,748km ² (남한의 11.6배, 한반도의 5배)
기 후	아열대성 (적도북단), 지역별 고도에 따라 기후 상이
수 도	보고타 (Bogota)
인 구	4,288만 명 ('05년 인구조사), 4,584만 명 (11년 2월 추정 인구)
주요도시	보고타 (736만 명), 메데진 (261만 명), 깔리 (222만 명) 등
인 종	메스티소 (58%), 백인 (20%), 물라토 (14%), 흑인 (4%), 기타 (4%)
언 어	스페인어 (공용어), 64개 토속어 및 방언
종 교	가톨릭 (97%), 기타 (3%)
독 립 일	1810년 7월 20일
정부형태	대통령제 (4년 중임제)
국가원수	Juan Manuel Santos
입 법 부	양원제 (상원102석, 하원166석)
주요정당	U(우)당, 보수당, 자유당, 민주당, 급진변화당, 녹색당 등
정부성향	자유민주주의, 친미우익 성향

나. 역사 (연대기순)

시기	역사적 사건
고대사	BC2만 년~만 년
	BC500년
	1100~1300년
	1499년
	1533~1550년
	1550년
식민지	1600년 이후
	1700년 이후
독립사	1810년
	1811년
	1811~1819년
	1819년
	1819년
근대사	1829년
	1830년
	1832~1857년
	1857~1862년
	1862~1886년
	1886년
현대사	1903년
	1953~1957년
	1957~1974년
	2002~2010년 8월
	2010년 8월 ~현재

다. 경제 지표 일반

2010년 GDP (명목)	US\$ 2,316억 달러 (IMF 통계)
2010년1인당GDP(명목)	US\$ 5,051 달러 (IMF 통계)
GDP 성장률	4.3% (2010년, 콜롬비아 통계청 공식)
물가상승률	3.18% (2010년 마감기준)
실업률	12.8% (2011년 2월)
화폐단위	COP (콜롬비아 페소)
환율	US\$1= 1838.29COP (2010년 4월 6일)
외채	US\$ 617.7억 (2010년 12월)
외환보유고	US\$ 263억 (2010년)
수출	US\$ 398.2억 (2010년), US\$ 37.82억 (2011년 1월 ~ 2월)
수입	US\$ 383.5억 (2010년), US\$ 35.72억 (2011년 1월 ~ 2월)
교역수지	US\$ +14.69억 (2010년), US\$ 2.09억 (2011년 1월 ~ 2월)
주요교역국	○ 수출: 미국,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에콰도르, 한국, 중국 등 ○ 수입: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 등
주요교역품	○ 수출: 석유, 석탄, 커피, 금, 연료유, 바나나, 페로니켈 등 ○ 수입: 항공기, 디젤유, 승용차, 옥수수, 헬리콥터, 의약품 등

자료: IMF, Banco de Republica (콜롬비아 중앙은행), BACEX (콜롬비아 상공부)

주: 입수 가능 최신정보임

라. 한-콜롬비아 관계

교역동향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2월)
수출 (US\$)	9.1억 달러	11.2억 달러	10.9억 달러	8.0억 달러	13.88억 달러	2.21억 달러
수입 (US\$)	2.1억 달러	1.2억 달러	1.4억 달러	1.3억 달러	4.32억 달러	1.12억 달러
수지 (US\$)	+7.0억 달러	+10.0억 달러	+9.5억 달러	+6.7억 달러	+9.56억 달러	+1.09억 달러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

투자동향 (한국 → 콜롬비아)

연도	투자액 (US\$백만)
2001	9.7
2002	0.1
2003	-
2004	-
2005	0.2
2006	4.5
2007	36.3
2008	0.3
2009	0.5
2010	0.8

주: 입수 가능 최신정보임

자료: Banco de Republica (콜롬비아 중앙은행)

대 콜롬비아 현지 진출기업 ('11년 2월 기준)

진출업체	진출연도	진출형태	취급분야
현대종합상사	1980	지점	종합 (철강, 화학, 전기 등)
삼성전자	1997	판매법인	가전, 통신, IT 등
LG전자	1999	판매법인	가전, 통신, IT 등
레오콘	2004	판매법인	플라스틱레진류
세라젬	2005	판매법인	건강보조기구
현대자동차	2006	지점	상용자동차
TGL 콜롬비아	2006	지사	물류사업
SK Energy	2008	지사	광구탐사 입찰 참가
한국 타이어	2008	지점	타이어
대우 인더테셔널	2010	지사	종합상사
KT	2010	지사	통신망
메디슨에코넷	2010	법인	의료기기
현대건설	2010	지사	건설사업

주: 입수 가능 최신자료임

○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관계 (이민사)

- 중남미 내 유일한 6.25 파병국인 콜롬비아는 당시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4,000명 이상의 병력파병을 감행한 혈맹국가 중 하나이다.
- 이에 한국정부는 이들의 값진 희생을 기리고자 매년 다수의 참전용사 방한에 이어 참전기념비 (까르타헤나), 한콜우애병원 (보고타) 설립 등 다방면의 보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한편 '09년으로 45년째를 맞는 현지 한국 이민사는 브라질, 멕시코 대비 절반 이상 짧은 역사를 지녔으나 나름 문화와 언어의 장벽 속에 고군분투해야 했던 힘겨운 시절이었다.
- 1964년 미국을 경유한 유학생 1명, 국제 결혼자 1명 등으로 시작한 한인사회는 1960대 후반 공관개설요원 파견을 계기로 외형상 틀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1970년 한국 여자농구단의 남미순회 응원단 결성을 계기로 정식 한인회가 조직됐다.
- 이후 1979년을 기점으로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보고타를 중심으로 터전을 잡기 시작했으며 근면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1980년대 말부터는 연수, 유학생 수요가 늘어나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는 100명을 육박 하기에 이른다.
- 1997년 한국에 발발한 경제위기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던 한인, 유학생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시켰으며 이후 테러, 납치, 내전 등 현지 치안 여건 악화와 더불어 한인사회 규모를 대폭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양국 간 협약체결 현황

문화협정	1976년
과학기술협정	1981년
사증면제협정	1981년
무역협정	1985년
투자협정	1996년
투자보장협정	2010년
이중과세방지협정	2010년
EDCF협정	2010년
FTA 자유무역협정	2011년 5월 5차 협상 개최 예정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치동향

2002년 5월 28일, 4년 임기로 국정1기를 운영한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은 2005년 5월 헌법 개정 (연임 가능), 2006년 5.24 선거의 압승을 통해 2006년 5월 28일,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행정부는 3선까지 대통령 집권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2010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3선 연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베 대통령은 2010년을 끝으로 8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콜롬비아는 2010년 5월 30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여당인 U당 대선주자 후안 마누엘 산토스와 녹색당의 아타나스 모쿠스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6월 20일 2차 투표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8월 7일 취임할 예정이다. 2010년 콜롬비아 대선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는 실업문제, 보건문제, 교육 문제의 해결 등이 꼽히고 있다.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은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이 8년간 유지해 온 정치, 경제, 외교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우리베 정권은 중남미 내 대표적인 친미 우익 노선을 주창하고 있어 좌파성향이 두드러지는 등 주변국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으며, 공격적인 치안 확보정책, 교역, 투자여건 개선책을 타협 없이 전개하고 있어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정치, 경제, 군사원조 강화는 베네수엘라를 위시한 인근 좌파동맹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종종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곤혹을 겪기도 한다. 특히 2008년 3월 1일 콜롬비아 정부가 FARC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게릴라 토벌을 위해 에콰도르 국경을 무단 침범, 공습작전을 개시한 사건은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동맹과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베 정부는 2008년 7월 2일, FARC에 의해 7년간 정글에 감금되어 있던 잉그리드 베탕쿠르 전 야당대표와 군경 14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구출해내어, 범국민 지지율이 98%까지 치솟았다.

나. 사회동향

2003년 이후 콜롬비아 사회는 괄목할 만한 경제신장과 더불어 기업, 투자, 생활여건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는 자가 성장가능성 구축을 1차 목표로 추진한 우리베 식 경제 모델의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근간 콜롬비아 사회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치안이 확보됨에 따라 내수경기 신장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전반의 구매력 상승, 고용창출 등 일반서민이 체감하는 사회여건 개선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콜롬비아의 인구수 대비 범죄발생률은 뉴욕, 상파울루, 멕시코시티 등 주요 대도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50년 이상 이어온 민병대, 게릴라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 임에 따라 대내외적 사회여건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콜롬비아 관계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 시 UN군의 일원으로 병력을 파견,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지원했던 혈맹으로서 군사외교적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방국가이다. 파병 당시 한국에 비해 월등한 경제력을 자랑하던 콜롬비아는 이후 경제성장이 지체된 반면, 한국은 눈부신 고도성장을 거듭해 80년 대 이후 한국 측의 일방적인 원조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참전용사 초청, 연수생 초청교육, 전문가 파견 등 지원사업을 활발하기 전개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Ruiz 화산폭발 및 Armenia 지진사태 발생 때도 대규모 구호품 및 구호금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콜롬비아가 중점지원대상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관학 차원의 협력사업은 물론 민간 경제교류 또한 대폭 증대될 전망이며, 참전용사 방한기회 확대, 참전기념비 제정 및 한-콜 우애병원 설립 등 다양한 보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나. 현안사항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촉구는 매년 콜롬비아 정재계 인사가 제기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2009년의 경우 한국의 대 콜롬비아 수출은 US\$8.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콜롬비아 발 수입은 US\$1.3억 달러에 그쳐 약 US\$6.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콜롬비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만성적인 적자폭과 관련해 무역 수지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양국은 지난 1985년, 1996년에 각각 무역 및 투자진흥협정을 체결, 상호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나 양국 간 교역규모에 비해 투자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어 향후 주요 현안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추진 중인 한-콜 FTA를 통해 한국은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등의 관세상 혜택을 주장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광물, 커피 및 바나나를 중심으로 한 농산품, 화훼제품, 유제품 등의 관세상 혜택을 한국측에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FTA 협상을 통해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 양국 기업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 최근 교류관계

- 최근 양국관계 주요 진전사항
 - 08. 11월 양국 정상회담 (페루 리마), 08. 9월 Uribe 대통령과 한승수 총리간 회담 (뉴욕), 08. 11월 이윤호 지경부장관과 Plata 콜롬비아 상공장관과 회담 (페루 리마)
 - Araujo 외무장관 (08. 7월), Martinez 광업에너지장관 (08. 9월), Guerra 통신장관 (08. 9월) 방한, 김종천 국방차관 (08. 6월), 김양 보훈처장 (08. 11월), 김영학 지경부차관 (09. 3월), 허경욱 기재부차관 (09. 3월), 신각수 외교부차관 (08. 4월) 방콜
 - 우리3개업체(석유공사, SK Energy, 골든오일), 콜롬비아 석유탐사 광구 9개낙찰 (08년)
 - 09년 2월 17일 콜롬비아 중소 12개 도시의 전략적 교통시스템 개편 (ICT 프로젝트) 관련 서울 교통관리 시스템 토피스 소개 및 국내 주요기업 방문
 - 대(對)콜롬비아 경협 사업 확대 (09.2월 KOICA사무소 개설, ICT협력 사업수행, 연수생 규모 확대 등)
 - 09년 9월 3일 하이메 비르무데스 콜롬비아 장관 방한, 이 대통령 접견
 - 10년 3월 16일 권도엽 국토해양부차관 방콜, 국토해양부 - 콜롬비아 국가기획처 간 U-City 프로젝트 관련 MOU 체결

라. 양자간 협정체결 현황

1) 기 체결

	서명	발효
문화협정	1967.7.27	1976.7.14
사증면제협정	1981.11.25	1981.11.25
과학기술협력협정	1981.6.1	1982.2.5
무역협정	1985.5.31	1986.12.10

* 무역협정에 따라 공동위 정례개최: 2차 공동위 (2004. 5월 보고타)

2) 교섭 중

항공협정	1차협상 (2004.10월, 서울)
투자보장협정	1차협상 (2002년, 보고타), 2차협상 (2008.1월, 보고타) 3차협상 (2008.11월, 서울)
이중과세방지조약	09.1월 우리측 초안 전달, 09.7월 보고타 1차 협상
자유무역협정	1차협상 (2009.12월, 서울) 2차협상 (2010.3월, 보고타) 3차협상 (2010.6월, 서울 예정)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거시경제 지표

2011년 (3월 현재)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10년 GDP (명목)	US\$ 2,316 억 달러 (IMF 통계)
2010년1인당GDP(명목)	US\$ 5,051 달러 (IMF 통계)
GDP 성장률	4.3% (2010년)
물가상승률	3.2% (2010년 12월 콜롬비아 중앙은행)
실업률	13.5% (2011년 1월)
화폐단위	COP (콜롬비아 페소)
환율	US\$1= 1838.29COP(2010년 4월 6일 기준)
외채	US\$ 617.7 억 (2010년 12월 콜롬비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US\$ 263억 (2010년 콜롬비아 중앙은행)
수출	US\$ 398.2억 (2010년), US\$ 37.82억(2011년 1월)
수입	US\$ 383.5억 (2010년), US\$ 35.72억(2011년 1월)
교역수지	US\$ 14.69억 (2010년), US\$ 2.09억 (2011년 1월)
주요교역국	○ 수출: 미국,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에콰도르, 한국 중국 등 ○ 수입: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 등
주요교역품	○ 수출: 석유, 석탄, 커피, 금, 연료유, 바나나, 페로니켈 등 ○ 수입: 항공기, 디젤유, 승용차, 옥수수, 헬리콥터, 의약품 등

주: 입수 가능한 최신 정보임.

자료: Banco de la Republica, DANE

최근 3년간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분	2008	2009	2010
GDP (US\$억)	2,406	2,286	2,316
1인당 GDP (US\$)	4,985	4,662	5,051
실질 성장률 (%)	2.5	0.4	4.3
물가 상승률 (%)	7.67	2.09	2.54
실업률 (%)	10.6	14.2	13.5
수출 (US\$억)	376	328.5	398.2
수입 (US\$억)	396	329.0	383.5
외환 보유고 (US\$억)	236.6	248.3	284.5
외채 (US\$억)	463.9	535.9	617.7
평균 환율 (US\$1=COP)	2,231	2,156	1,848

자료: DANE, Banco de la Republica

나. 거시경제 지표 전망

○ GDP 성장률

콜롬비아는 2004~2006년 3년간 연평균 5.53% 이상의 고공 성장을 구가했으며 2006년 6.7%에 이어 2007년에는 6.9%, 2008년 3.5%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9년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GDP 성장률은 1.5%대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9년 연초 전문가들이 예상한 최소 2.5%의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다. 2011년 1월 기준, 2010년 콜롬비아 성장률은 4.3%로 콜롬비아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1년도 콜롬비아 GDP 성장률 관련, 대다수의 전문가는 2010년 경제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를 극복하고 콜롬비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씨티은행 경제 분석가 세아(Esteban Temayo Zea)는 2011년 콜롬비아 GDP성장을 5%로 전망하고, 2011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내부 수요 증가와 광산 및 에너지 부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산업과 상업, 경제적 위기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부진했던 경제 요소들이 2011년에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콜롬비아 통계청 DANE는 2010년 11월 콜롬비아 산업과 상업 두 분야가 성장을 기록하였음을 발표하고 2010년 하반기 콜롬비아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또한, 2011년 1월까지의 경제상황을 미루어보아 콜롬비아 전반적 국가경제가 호전되었음을 발표하였다.

한편, 콜롬비아 신용도(ICC)는 2010년 12월 이후로 88%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 3월에는 신용평가 기관 S&P(Standard and Poor's)는 콜롬비아 국가 신용등급을 BB+에서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상향 조정하였다.

콜롬비아 GDP 성장률 (2005~2010)

연도	GDP 성장률(%)
2005	4.7
2006	6.7
2007	6.9
2008	3.5
2009	1.5
2010	4.3

주: 2011년 1월 입수가능 최신 정보임

자료: DANE/ Proyecciones entidades privadas/Portafolio

○ 물가 인상률

당국은 페소화 평가절상, 달러약세 등에 따라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2008년과 달리 2009년 이후의 물가 인상률은 안정세를 타고 있으며, 2% 대의 수치는 최근 10년 만의 최저치에 해당한다.

콜롬비아 물가 상승률 (2007~2010 현재)

연도	물가 상승률 (%)
2007	5.70
2008	7.67
2009	2.00
2010	3.2

자료: Entidades consultadas por Corficolombiana/Portafol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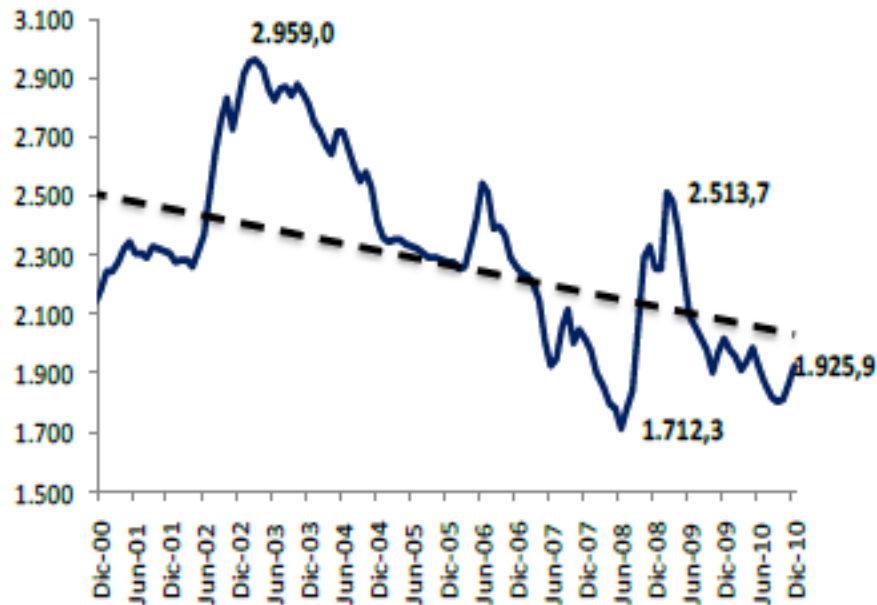
주: 2011년 3월 입수가능 최신 정보임

○ 최근 환율 동향

2010년 콜롬비아 페소(COP)는 가치 12.95% 상승함에 따라 중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통화 각각 11.2%, 11.2%, 9.68%에 그친 코스타리카 콜론화, 몽골 투그릭화와 일본 엔화를 제치고 평가 절상률 세계 1위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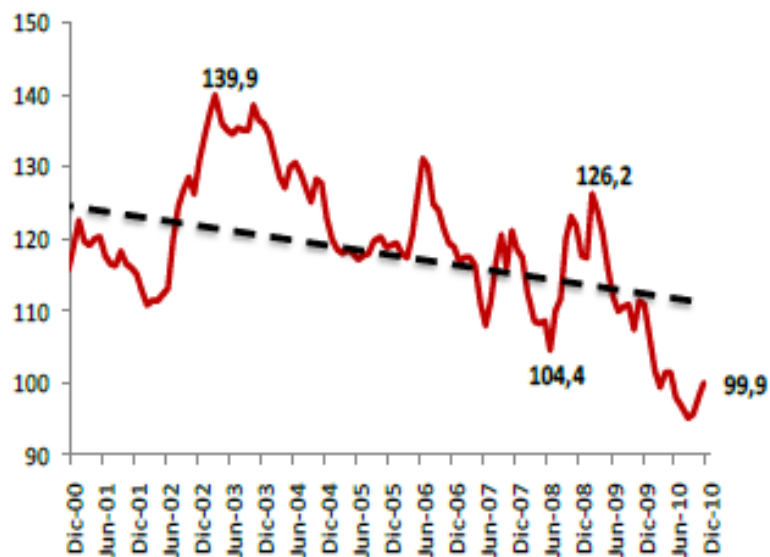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대외적 요인으로 석유, 석탄, 광물자원의 수출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증가를 꼽으며, 대내적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수준, 정부의 재정적자 벌충을 위한 외자 도입 등을 페소화 초강세 이유로 분석.

환율 평균 변화율(2000년-2010년 12월)



자료: Banco de la Republ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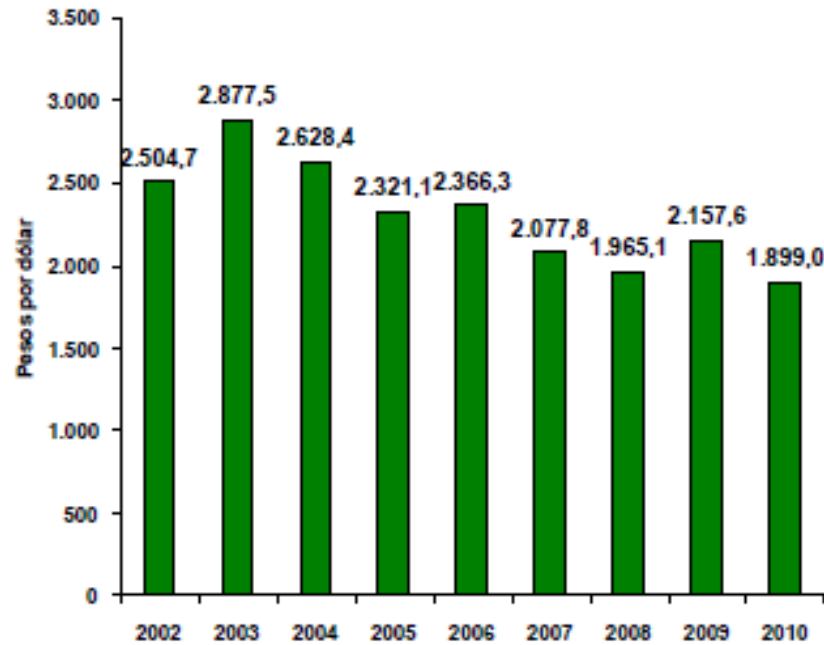
실질 환율 변화율



자료: Banco de la Republica

2011년 4월 12일 기준, 평균 환율은 1,815페소이다. 페소 화폐 가치 상승을 위해 2010년 3월-6월 간 콜롬비아 은행은 16억 달러 외화를 구매하였다. 2010년 7월에 콜롬비아 은행의 개입을 멈추었다가, 2010년 9월 15일 콜롬비아 은행은 다시 매일 2천만 달러의 외화를 사들였다. 또한, 10월 말 경, 정부는 환율 변동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확립하였다. 여기에는 소비에 대한 세금 원천 징수, 외부 대출에 대한 납입, 농업부분 수출 및 외채 보증 전략, 관세감면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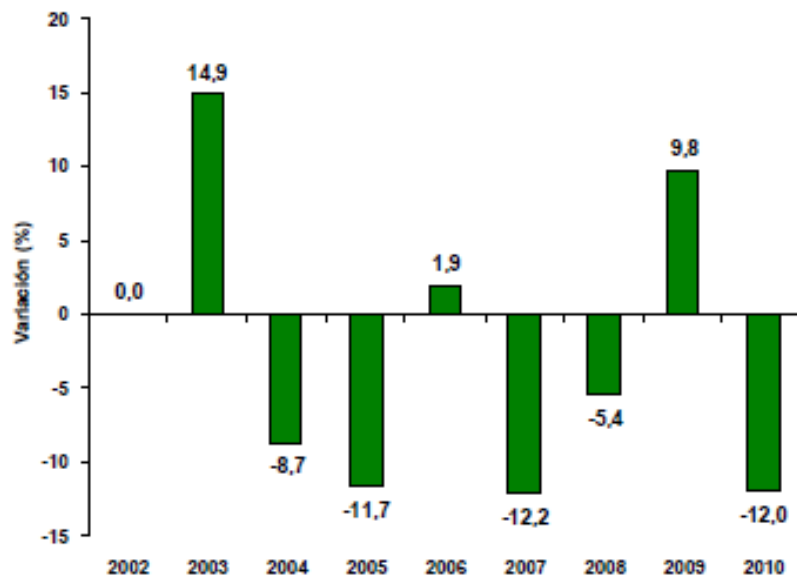
2002-2010년 평균 환율 변동



단위: 1달러당 페소(COP), 년도

자료: Banco de la Republica

매년 환율 변화동향(%)



자료: Banco de la Republica

2. 주요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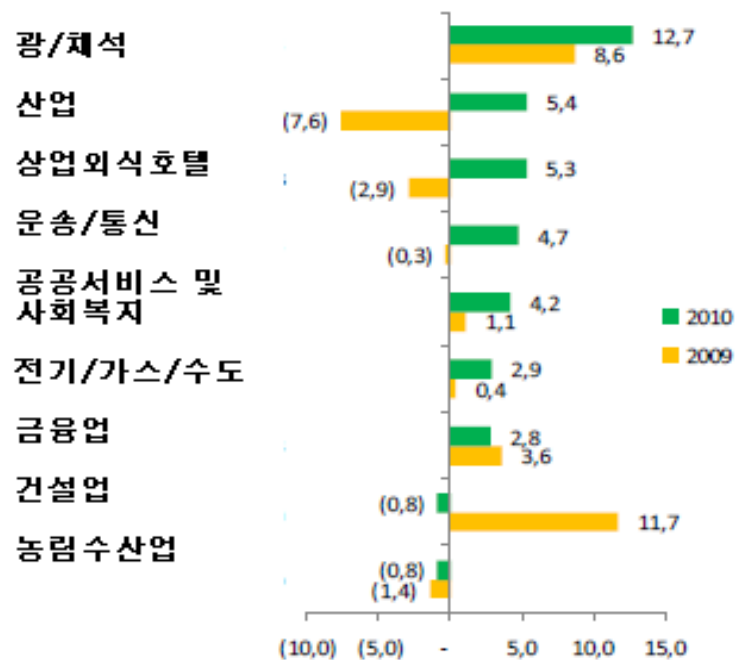
가. 주요 산업 성장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2009년에는 2008년 3.5% 성장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1.5%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콜롬비아 성장률 4.3%로 마감함으로써,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호텔관광업, 광업 및 건설업 분야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9년 이후 전반적으로 광업, 금융업, 건설업 등이 콜롬비아의 주요 성장산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광업의 경우 '05년 1.7%, '06년 3.2%, '07년 2.9%를 기록하며 평범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8년 7.3%, 2009년 1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 등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콜롬비아 제2의 도시 메데진 시와 안띠오키아 주정부를 비롯한 콜롬비아 대표 광업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기업들의 콜롬비아 광업분야로의 적극적인 투자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11년 초, 씨티은행 경제 분석가 세아(Esteban Temayo Zea)는 2011년 콜롬비아 GDP성장을 5%로 전망하고, 2011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광산 및 에너지 산업이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콜롬비아 통계청 DANE는 2010년 11월 콜롬비아 산업과 상업 두 분야가 성장을 기록하였음을 발표하고 2010년 하반기 콜롬비아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한 바 있다.

산업별 성장 (2009년/2010년 비교)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 DANE

2011년 현재, 2010년 마감 산업별 기록치는 다음과 같다. 광/채석분야가 12.7%로 2010년 한해 동안 가장 큰 성장을 보였으며, 이 분야는 GDP의 6.9%를 차지하였으며, 제조업이 5.4%(GDP의 12.5%), 상업/외식/호텔 분야가 5.3%로 GDP의 11.9%를, 운송/통신분야가 4.7%로 GDP의 7.5%를 기록하였다. 반면, 감소를 보인 분야는 건설과 농림수산업 분야로 0.8%씩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산업별 성장률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	6.9	7.5	2.5	0.4	4.3
농림수산업	3.86	3.93	2.7	-0.1	-0.8
광업/석유	3.16	2.88	7.3	15.0	12.7
제조업	6.82	9.54	-1.8	-1.4	5.4
전기, 가스, 수도	3.09	3.67	1.2	2.9	2.9
건설업	13.51	11.47	1.7	22.0	-0.8
상업, 외식, 호텔업	8.66	8.72	1.7	0.1	5.3
운송, 통신	9.17	10.99	4.0	-0.2	4.7
금융업	6.67	7.29	5.6	2.8	2.8
공공 서비스 및 사회복지	4.73	4.75	2.1	1.8	4.2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 (DANE, Departamento Administrativo Nacional de Estadística)

가. 주요 산업 동향

1) 농림축산업

자원의 보고라고 불리는 콜롬비아에서 광업과 농림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은 콜롬비아 경제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2009년 농림축산업은 약 150억 달러의 산업 규모를 자랑하면서 콜롬비아 전체 GDP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1분기에도 약 36억 달러의 시장 규모로 전체 산업의 6.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콜롬비아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소폭 감소세를 타고 있으나, 이는 다른 산업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져서라기 보다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008년부터 안데스 산맥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2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엘니뇨 현상으로 기온이 낮아지고 강수량이 많아져, 커피, 바나나, 쌀, 설탕, 야자기름 등 전반적인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고 수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커피는 여전히 콜롬비아의 전통적인 수출품으로써, 2011년 2월의 2010년 동기 대비, 총 수출 37.2%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콜롬비아 통계청 DANE는 비전통적 수출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꽃, 화훼 분야가 44.5%를 차지한 점이 두드러짐을 밝혔다.

한편 2011년 3월 상공관광부 장관 Sergio Diaz-Granados는 국가 정책 산업으로써, 꽃, 유제품 분야의 인식제고,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중점적으로 원조할 뜻을 밝힌바 있다.

커피, 바나나 및 플라타노, 설탕, 야자기름, 화훼는 콜롬비아 농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외 무역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콜롬비아 커피는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망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커피 수출국 4위로 밀려나면서 커피 품질 관리 및 마케팅 등에 정부차원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자각함으로써 2011년 콜롬비아 정부의 커피관련 사업이 다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나나 및 플라타노 제품도 높은 내수와 수출액을 바탕으로 콜롬비아 경제의 핵심 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바나나 및 플라타노 제품은 전체 수출액의 2.4%에 해당하는 7.8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제품 가운데 6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장미꽃 역시 콜롬비아의 8위 수출 품목으로, 기타 화훼류도 9위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축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발달하였으며, 쇠고기, 가축류 제품이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쇠고기는 2009년 3.1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액의 0.9%를 차지, 10위 수출품목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5천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한 활발한 내수가 콜롬비아 축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제품이 주식으로 쓰이고 있어 지속적인 산업 성장이 기대되는 바이다. 콜롬비아의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가축 사육이 활성화되면서 현재 콜롬비아는 2천 4백만 마리의 소를 보유, 중남미 3위의 축산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편 유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라 낙농업이 발달하였고, 가축 가축 제품은 대외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량을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농림수산업 산업 성장률 및 산업 규모

(단위: %, 십억 페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성장률 (%)	6.9	7.5	2.5	0.4	4.3
농림수산업성장률 (%)	3.86	3.93	2.7	-0.1	-0.8
산업 규모 (십억 페소)	26,731	27,711	27,549	27,447	6,755
GDP 대비 산업비율 (%)	7.3	7.2	6.9	6.8	6.5

주1. 2010년 4월 6일 기준 1달러=1838 페소임

주2. 산업규모 및 GDP 대비 산업비율은 2010년 1분기 기준임.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Banco de la República)

2) 광업

광업은 사실상 콜롬비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이 높고 무역에서도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광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과 조세를 비롯한 각종 법률의 개선에 힘입어 현재 가장 높은 산업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실제 2010년의 GDP 4.3% 성장에 대해 재무부장관 Juan Carlos Echeverry는 2010년의 GDP 성장에 광, 채석 분야가 11.1%로 큰 몫을 해냈음을 밝힌바 있다.

2010년 1분기에는 외국인 직접 유치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국제 금값과 석유,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38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GDP의 7.0%를 차지, 농림축산업을 제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0년 3분기 분야별 GDP성장에 광업 수출이 10.0%로 영향을 미쳐, 현재 콜롬비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중남미 5위의 원유 매장국인 콜롬비아의 석유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11년2월에도 2010년 동기에 비해 수출액이 37.2% 성장하여 18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 기업인 에코페트롤(Ecopetrol)은 현재 콜롬비아 석유 산업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콜롬비아 석유 산업을 이끌고 있다. 콜롬비아 국내 최대 기업이기도 한 에코페트롤 사는 현재 콜롬비아 대기업의 친환경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탄올 성분 추출 사업 등에 매진하며 부상하고 있다. 녹색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폭넓은 원자재를 이용한 에너지 연구 실험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는 에코페트롤 사는 친환경 사업에만 2013년까지 총 9억 2,8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에코페트롤 사는 지난 2010년 4월 기준, 하루 평균 403,510 배럴의 석유를 생산, 9억 6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생산 및 수출액을 경신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올해 콜롬비아 전체 석유 생산량이 80만 배럴, 2015년에는 100만 배럴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 2010년 1월 12일 콜롬비아 광물자원 연구소는 2010년 석유 일일 생산량이 평균 75만 5천 배럴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일 평균 석유 생산량 67만 1천 배럴을 기록했던 2009년 대비 16.9%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정부의 2010년 석유 생산 목표량(일 평균 석유 생산량 56만 5천 배럴)의 39%를 넘는 생산량으로 2010년 일일 생산량은 콜롬비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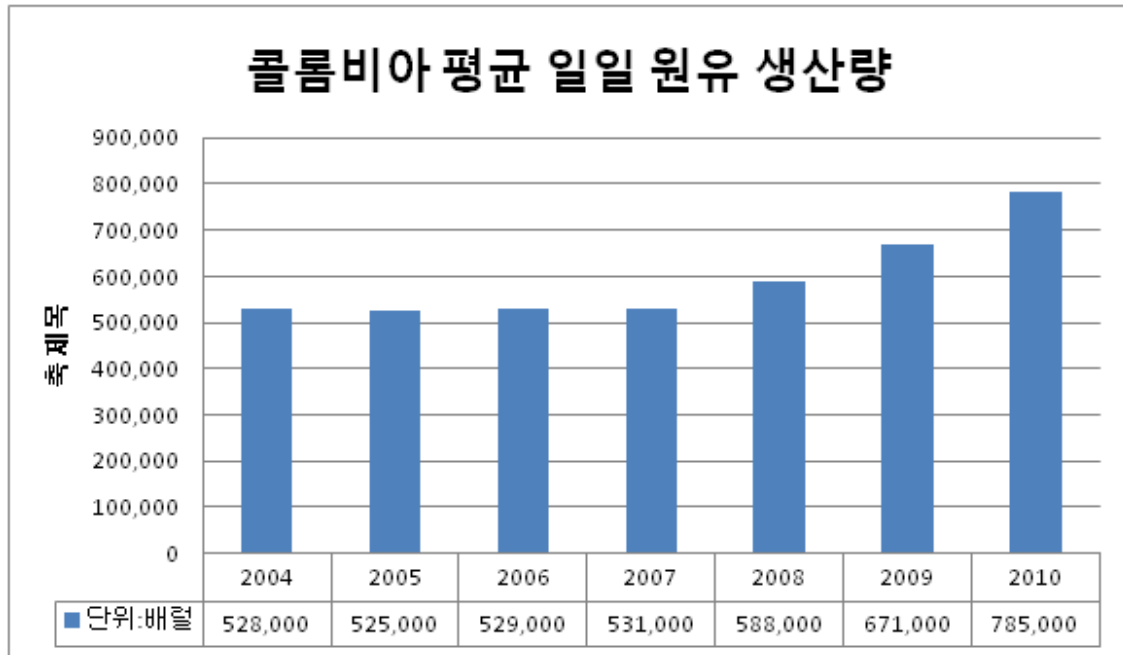
콜롬비아 광업 붐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의 증가로도 증명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총 30억 940만 달러의 유치액을 기록, 콜롬비아 시장 전체에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의 43%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호황 분위기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1년 2월, International Energy Service가 석유 기업 Petroland S.A.S와 Zigma Colombia Petroleum의 주식 49%를 1,050만 달러에 매입을 결정하였다. 한편, 스위스 기업 Kuehne Nagel은 콜롬비아 물류 관련 기업 Translago S.A.S와 Agencia Excelsia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또한, 2010년의 세계 1위 재벌로 꼽힌 멕시코의 까를로스 슬림(Carlos Slim) 역시 올해 2011년 콜롬비아의 석유/광업 사업에 투자 뜻을 밝히고, 콜롬비아의 활발한 석유/광업 사업, 중산층의 성장세를 고려한 결과 투자를 결정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멕시코의 석유회사 Petroles Mexicanos의 석유 시추 및 기초공사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콜롬비아 진출과 주 사업으로 다루는 통신분야 진출계획 의중을 밝히기도 했다.

석탄은 2009년 콜롬비아 GDP 가운데 광업 분야의 56%, 외국인 투자액의 39%를 차지하며 관련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콜롬비아에서 광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는 Cesar, Guajira 주 등이 있다.

한편 2010년 초 남유럽 금융위기 여파로 제2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콜롬비아 금 시장을 비롯한 은, 에메랄드와 같은 귀금속 분야는 콜롬비아 전체 GDP 가운데 광업 분야의 32%, 외국인 투자액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은 지난 2009년 14.5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 콜롬비아 전체 수출액의 4.4%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 외국 광업 강국들이 콜롬비아 광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금광 개발을 위한 새로운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현재 콜롬비아 경제가 금광 및 금 시장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며, 산업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낙관적인 편이다.

콜롬비아 평균 일일 원유 생산량 변화(2004~2010)



자료원: 콜롬비아 광물 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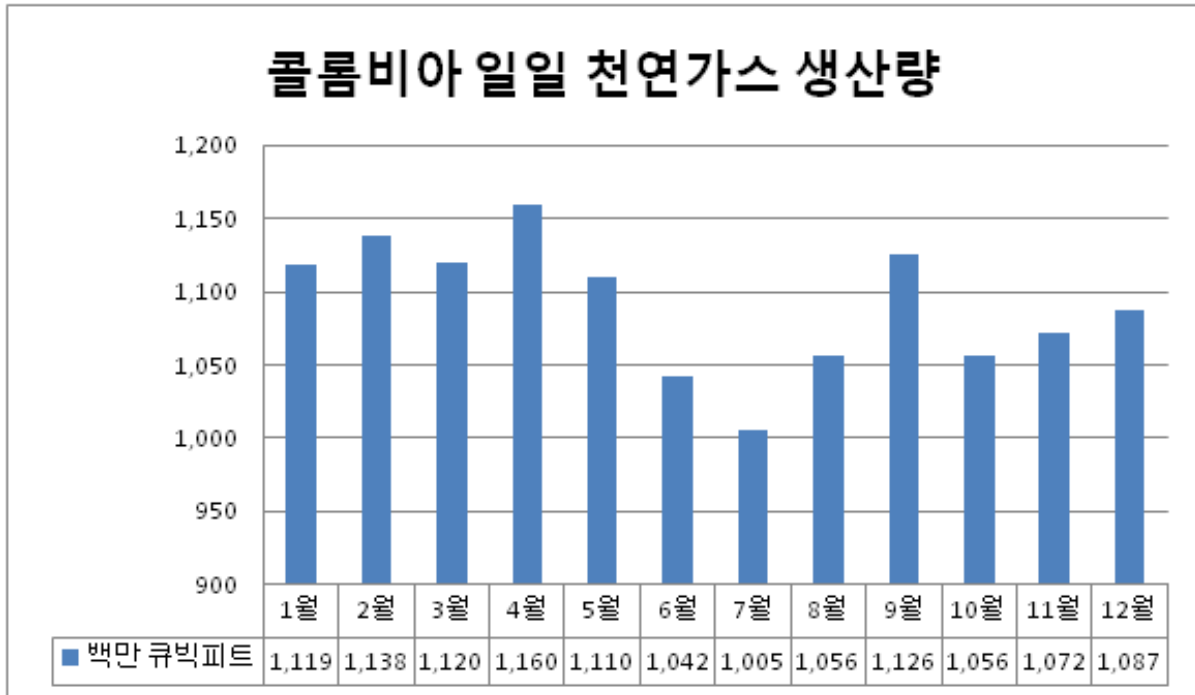
2010 년 1 월 콜롬비아 석유공사 Ecopetrol 과 협력업체는 일일 평균 66,000 배럴을 생산하였으며, 콜롬비아 천연자원 협회에 의해 76,000 배럴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2010 년 1 월 석유생산량은 742,000 배럴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동년 12 월 Ecopetrol 및 협력업체 하루 평균 734,000 배럴 생산, 천연자원 협회 소속 업체들은 91,000 배럴 생산함으로 일일 평균 석유 생산량은 무려 825,000 배럴을 달성하였다.

2010 년 콜롬비아 정부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금년에도 원유, 가스 유전 발굴에 지속적으로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발표한 이후, 2011 년에도 콜롬비아의 석유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천연가스 생산량 또한 2010 년 동분야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2009 년 일일 평균 8 억 5 천만 큐빅피트 시추량은 2010 년 일일 10 억 9 천만 큐빅피트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콜롬비아 광물 자원부 로다도(Carlos Rodado Noriega)장관과 콜롬비아 광물자원협회 싸모라(Armando Zamora) 대표는 국가와 관련업체들의 지속적 원유, 가스유전 발굴로 인하여 2010 년의 역사상 최고치 달성할 수 있었음을 밝힌바 있다.

콜롬비아 일일 천연가스 생산량 변화



2010년 기준

자료원: 콜롬비아 천연자원 협회

콜롬비아 광업의 또 다른 주요 시장 가운데 하나인 페로니켈 산업은 현재 전 세계 니켈 유통량의 1/3 공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2009년 7.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하며 콜롬비아 경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로부터 합금철, 동괴 및 스크랩,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등 다양한 지하자원을 수입하고 있어 광업은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간 교역에 있어서도 빠져서는 안될 주요 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석유 및 광업 산업 성장률 및 산업 규모

(단위: %, 십억 페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성장률 (%)	6.9	7.5	2.5	0.4	4.3
석유 및 광업 산업성장률 (%)	3.16	2.88	7.3	15.0	12.7
산업 규모 (십억 페소)	22,013	22,464	24,042	26,351	7,189
GDP 대비 산업비율 (%)	6.0	5.8	6.0	6.6	7.0

주1. 2010년 4월 6일 기준 1달러=1838 페소임

주2. 산업규모 및 GDP 대비 산업비율은 2010년 1분기 기준임.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Banco de la República)

3) 섬유 및 의류 산업

콜롬비아는 미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섬유 및 의류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2009년에는 최근 10년 중 가장 부진한 해로 기록되었다. 콜롬비아 내수 생산량이 2008년에 비해 20% 감소하였고, 관련 제품

최대 수출국인 베네수엘라, 미국, 에콰도르의 수요 감소로 수출액까지 45.2% 감소하면서 섬유 및 의류 산업의 부진을 증명해 보였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섬유 및 의류산업의 중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고급 제품에 대해서는 세계적 브랜드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콜롬비아 제품은 시장에서 위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평이 존재하였다.

이에 2010년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콜롬비아 섬유 및 의류산업의 중흥을 위해 세계 규모의 패션 전시회 및 박람회를 다수 개최 및 관련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면서 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갔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2011년 2월, 콜롬비아의 한 패션 조사원 (Observatorio de la Moda Inexmoda Raddar)은 2010년 한해 동안 콜롬비아 내 의류기업이 약 5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9년 대비 4% 증가한 수치이며, 주된 의복 소비가 이루어진 도시로는 보고타(Bogotá), 메데진(Medellín), 칼리(Cali), 바란끼야(Barranquilla) 그리고 부카라망가(Bucaramanga)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콜롬비아가 남아메리카 중 의류와 섬유 산업측면에서 선봉을 차지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2011년 콜롬비아 섬유산업이 3.9% 성장할 것과 그러한 성장이 약 54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리라 예상하기도 하였다.

4) 철강 산업

최근 10년 동안 콜롬비아 철강 산업은 두 가지 큰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선 외국계 기업이 콜롬비아에 다수 진출하면서 철강 산업이 보다 체계적인 과정과 산업구조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량의 극대화가 가능해져 수출 지역 다각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콜롬비아 철강 산업은 총 41억 달러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4% 감소하였고, 기업 자산은 약 45억 달러를 기록, 역시 5.8% 감소하였다. 이는 2008년에 비해 자재 가격이 1/4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철강 산업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콜롬비아의 건축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수요가 예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 회복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올 상반기부터 생산 및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판매량은 2010년 1월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대에서 벗어나 10.4%라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더욱이 남미 최대의 철강 제조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르헨티나의 Techint 그룹이 콜롬비아 철강기업 Ferrasa 사의 지분 54%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콜롬비아의 철강산업 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철강 산업의 회복 및 상승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이티 및 칠레 대지진 참사는 콜롬비아 건축업 및 철강 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신규 건축 관련 법규를 새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콜롬비아 건축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 자재를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민감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중남미 5위에 해당하는 철강 산업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콜롬비아는 경제계 인사들과 관련기업들에게 산업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으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 자동차 및 조립생산 산업

현재 콜롬비아 경제가 석유 정제, 광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 및 개발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다 보니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 산업 분야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며, 설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콜롬비아 자동차 제조업은 낙후된 편이다. 지난 2002년, 우리베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콜롬비아 경제는 자국 산업 육성을 이유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호무역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산업 전반에 깔려 있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에 특히 엄격하게 적용, 35%라는 높은 관세를 매김으로써 콜롬비아 자동차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내국 제조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 중산층 비율이 낮은 콜롬비아의 사회구조 속에서, 부유층 계급은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제조된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중산층 이하 계급은 평균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아 경제적으로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 결국 콜롬비아 자동차 제조 산업은 발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말았다. 또한 중고차를 새 차로 바꾸는 데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새 차에 비해 중고차에 대한 세금이 더 낮게 책정되는 정책 속에서 콜롬비아 국민 대다수는 1만 5천 달러 이하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새로운 흐름이 정착되었다. 여기에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생활 필수품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행위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50년대 고전적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어 자동차 조립생산 및 제조산업의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콜롬비아는 연간 25만 대의 신차 판매량을 기록, 인구 1천명 당 5대라는 낮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인근 국가들의 평균 판매율인 12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2009년 경제 위기와 함께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도 하였다. 지난 2009년 콜롬비아에서 조립 생산된 차량 수는 총 88,342대로 2008년 116,437대와 비교해 24.1% 감소하였으며, 대 베네수엘라 수출 차량 수도 2008년 26,760대에서 2009년 3,253대로 무려 87.8% 감소하였다. 또한 연간 25만 대의 신차 판매량을 유지하던 콜롬비아 내수 시장에서도 지난해 185,237대의 판매에 그쳐 2008년 대비 24.4%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콜롬비아에서 조립 생산된 차량 수와 신차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자동차 부품 등 관련 시장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의미해 관련 산업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콜롬비아의 자동차 관련 산업 총 판매량은 36억 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20.8% 감소하였으며, 총 기업 자산도 30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6.4% 감소를 기록하였다.

전체 자동차의 40%를 한국, 일본, 중국, 브라질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콜롬비아 자동차 시장은 지난 2010년 들어 산업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GM Colmotores는 22,568대의 차량을 판매, 전년 동기에 비해 14.5% 판매량이 상승하였고, Sofasa Renault와 Mazda도 각각 43%, 29% 판매량이 급증하였다. 콜롬비아 통계청 DANE에 따르면 2010년 최종적으로 콜롬비아 국내 자동차 시장의 56.4%는 수입차가 차지하였음을 발표하고, 2010년 한해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의 판매율이 24% 상승했음에도 수입차로 인해 시장 점유율은 48.2%에서 43.6%로 하락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2010년 콜롬비아 자동차 시장은 외국계 기업이 점령하게 되었으며, 2010년 콜롬비아 신 자동차 총판매 실적에서 GM의 Chevrolet가

33.5%로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Renault(15%), Hyundai(9.8%), KIA(7.7%), Mazda(5.4%), Nissan(5.8%) 순으로 브랜드별 판매율을 차지하였다. (기타:22.8%)

또한 2011년 1월 한달 간 한국 기업 기아(KIA)와 현대자동차가 콜롬비아 자동차 시장의 판매 3위와 4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기아는 1월 한달 간 총 1,902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이는 2010년 1월 1,387대에 비해 37.1% 증가한 수량이며, 1,885대를 판매한 현대자동차는 4위를 기록하였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조립생산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하며 세계 수준의 기술력 보유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학간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우수 인력이 생산업에 미리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및 전문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수 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침체기를 겪어 왔던 콜롬비아의 자동차 산업 및 제조 생산 산업이 한 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노력과 교육, 내수 산업 활성화를 통해 상황이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관련 산업의 미래를 낙관했다. 한편 콜롬비아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다양한 지역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성사 여부에 따라 큰 전환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6) 화학 소비재 산업

2008년 말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는 2009년 화학 소비재 산업 판매량 감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콜롬비아의 화학 소비재 산업 분야 기업들은 예산에 부합한 생산 활동에 주력하다 보니 판매 가격을 감소해야만 하는 상황에 다다르기도 했다. 현재 콜롬비아 화학 소비재 산업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자나 매입, 확산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콜롬비아는 기초 화학물질과 제조품 및 기타 화학 제품의 생산 및 판매량 모두 지난 해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기초 화학물질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7% 감소했으며, 판매량은 3.5%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해 제조품 및 기타 화학 제품의 생산량 역시 전년 대비 7.1% 감소하였으며, 판매량도 0.4%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화학 소비재 산업의 전체 판매액은 2008년 대비 1.4% 상승, 9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기업 총 자산 역시 전년 대비 2.4% 상승하며 7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올 2010년은 지난 해보다 화학 소비재 산업의 전망이 더욱 밝은 편이다. 지난 1분기 화학물질 산업은 제조 분야에서 18.2%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기타 화학 제품 분야도 제조 분야에서 8.5%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판매에 있어서도 기초 화학물질 16.6%, 기타 화학 제품 8.7% 상승하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콜롬비아 화학 소비재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돼 산업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비록 지난해 콜롬비아 화학 원자재 산업이 위기를 맞긴 했지만, 이를 통해 더욱 콜롬비아 기업들이 내부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공급망 확보와 특정 전문성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 개발을 달성함으로써 오히려 역대 최고 판매액을 경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내 치안 여건이 개선되고 자유경제 무역지대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화학 소비재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온실효과 유발 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흐름에 입각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콜롬비아 화학 소비재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이에 입각한 산업활동도 앞으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최근 5년간 제조업 (전체) 산업성장률 및 산업 규모

(단위: %, 십억 페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성장률 (%)	6.9	7.5	2.5	0.4	4.3
제조업 산업성장률 (%)	6.82	9.54	-1.8	-1.4	5.4
산업 규모 (십억 페소)	51,179	54,630	52,319	49,239	12,779
GDP 대비 산업비율 (%)	14.0	14.1	13.2	12.3	12.4

주1. 2010년 4월 6일 기준 1달러=1838 페소임

주2. 산업규모 및 GDP 대비 산업비율은 2010년 1분기 기준임.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Banco de la República)

7) IT 산업

2002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한 콜롬비아 IT 산업은 2009년 기준 36.3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시장이 전체 IT 산업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드웨어 시장은 지난 2009년 10.5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프트웨어 시장은 지난 2008년 사상 최초로 3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연간 10% 이내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드웨어 및 모바일 시장의 산업 성장률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콜롬비아 IT 시장은 중남미 전체 IT 시장의 5.8%에 불과하지만 전체 GDP 대비 시장 규모는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IT 산업 성장률도 중남미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산업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현재 미등록 기업까지 포함해 약 800여 개 기업, 4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6년 우리베 전 대통령이 재임을 시작한 이래 약 33% 증가한 수치다. 이들 기업을 규모별로 구분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59%가 극소기업, 33%가 소기업, 7%가 중기업, 1%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콜롬비아에서 아직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콜롬비아 전체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IT 시장은 2009년 콜롬비아 GDP 전체의 1.6%에 해당한다.

콜롬비아의 통신 시장을 살펴보면, 인터넷, 유선통신, 무선통신, 텔레비전 서비스를 취급하는 기업 간 정보통신 서비스 연합에 따른 독과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합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현재 콜롬비아 IT 시장은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 기업 및 미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로 인해 외국계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 시장 가운데에서도 콜롬비아는 중남미 최초로 디지털 무선통신 서비스를 도입한 데 힘입어 전체 통신 산업 가운데 무선통신 및 모바일 인터넷 시장 비율이 높은 편으로, 콤셀, 모비스타르, 티고, 이하 3개사가 전체 무선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3일, 스페인 통신기업 텔레포니카 사가 중남미의 모비스타르, 유럽의 오투 사와의 통합을 발표하였고, 이후 3단계에 걸쳐 완전한 브랜드 명의 전환 및 서비스 질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콜롬비아 통신시장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9일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메데진 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피엠 그룹 계열사 우네 사가 승리하면서 콜롬비아 4번째 이동통신 기업으로 확정, 앞으로 콜롬비아 통신시장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중남미 최대 수준인 96.71%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모바일 관련 산업이 발전 및 확산되고 있어 콜롬비아의 가장 주목 받는 잠재 시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반면 콜롬비아의 산악 지형 및 아마존 지역의 불리한 접근성을 이유로 10년 전만 해도 콜롬비아의 인터넷 보급률은 중남미 최저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 8년 사이 우리네 현 정부의 적극적인 통신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노력에 힘입어 현재 2006년 대비 235.6%라는 높은 인터넷 보급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6년 인터넷 보급률은 15% 정도에 불과했으나 2010년 현재 콜롬비아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인터넷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까지는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전체 인구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연간 평균 4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도 지난 2009년 3분기 45.23%를 기록하면서 현재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24.27%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모뎀 사용자 증가율은 크게 웃돌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확대하며, 국제 통신망 구축을 통한 콜롬비아 정보 활성화 프로그램 (CPI)을 시행함으로써 콜롬비아가 중남미 최대의 IT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텔레비전, 인터넷, 모바일 산업의 제도적 기준 규격을 개발하고, 지적재산권 및 전자 상거래 관련 법률 제도를 강화하며, IT 및 정보통신 교육 관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콜롬비아 IT 산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IT 산업에 경제 분야 예산 10%를 투자하여 주요 역점 산업 및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민간 투자액을 19억 달러 이상 유치와 동시에 2010년까지 IT 시장이 GDP 1%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교육부와 정보통신부의 주도로 콜롬비아 국내에 만 개 내외의 정보화 센터를 구축하고 20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저가 컴퓨터에 면세 혜택을 부여해 정보화 사회 접근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인프라 망이 갖춰지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을 확대하고, 2010년까지 2006년의 536%에 해당하는 총 26,386개 공교육 기관의 인터넷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국내 초중고 교육기관에 정보통신 교육을 의무화하며, IT 전문인 양성 교육기관 설립, 교수진 역량 강화 수업, 석박사 양성 장학제도 도입 등을 통해 IT 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콜롬비아 IT 산업은 중남미 최대 잠재 시장으로 향후 높은 산업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IT 산업 보급에 있어 지역 편차가 크고 산악지형 비율이 높은 콜롬비아에서 유선통신에 비해 무선통신 및 모바일 와이맥스 산업이 향후 유망 시장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운송 및 통신 산업성장률 및 산업 규모

(단위: %, 십억 페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성장률 (%)	6.9	7.5	2.5	0.4	4.3
운송 및 통신 산업성장률 (%)	9.17	10.99	4.0	-0.2	4.7
산업 규모 (십억 페소)	25,468	28,409	29,927	29,934	7,685
GDP 대비 산업비율 (%)	7.0	7.3	7.5	7.5	7.4

주1. 2010년 4월 6일 기준 1달러=1838 페소임

주2. 산업규모 및 GDP 대비 산업비율은 2010년 1분기 기준임.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Banco de la República)

8) 건설업

지난 2009년 콜롬비아 건설업이 부동산 및 인프라 사업에 집중했다면 2010년과 2011년은 건축법 세금 개정 문제와 전국적 규모의 사회 저소득층 주택 마련, 산업의 국제화에 집중하고 있다. 2009년에는 인프라 구축에 콜롬비아 전체 GDP의 9.3%에 해당하는 245억 달러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콜롬비아 최대 산업인 광업을 포함해 교통, 에너지 산업보다 많은 양에 해당하는 것이다. 2009년의 산업 총 판매액은 82.5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 대비 18.2%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기업 총 자산도 11.9% 증가한 99억 달러에 달해 경기 불황에도 높은 산업 성장률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설업의 지난 2009년 산업 성장률은 22%를 기록, 콜롬비아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0년 4분기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동기 대비 6.2% 성장을 기록하였다. 국세조사를 통해 파악된 신 지역이 20.5%인데 반해, 2010년 건설 허가는 2009년 동기 대비 98.5% 성장하였으며, 주거관련 건설허가와 신지역 건설허가는 각각 110.1%, 16.7% 증가하였다.

2010년 한해 동안 건설 허가는 47.3% 증가하였으나, 주거 건설허가는 62.9% 감소를 기록하였다. 2011년 현재 콜롬비아 정부의 주도로 저소득층 주택 마련 사업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콜롬비아 건설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메데진, 네이바, 바랑키야, 카르타헤나, 부에나벤투라, 마니살레스, 페레이라, 칼리 등 콜롬비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녹색 도시 개발 사업은 약 5만 채의 주택을 저소득층에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토스 정권이 주력하고 있는 사회기반 인프라시설 구축으로 인해 콜롬비아 건설업 관련 기업들은 주택 사업 외, 다양한 건설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011년 올해 콜롬비아 건설업 분야는 최근 급격한 산업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관광업에 힘입어 다양한 호텔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 보고타-부에나벤투라 간 이차선 도로 건설, 중앙산맥의 두 번째 교차 터널 건설 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보고타의 두 번째 공항 건설프로젝트, 아메리카 고속도로 공사, 보수 프로젝트, 파스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콜롬비아 남부 횡단 고속도로, 보고타-쿠쿠타 간의 이차선 도로와 마그달레나 강의 항행가능성을 포함, 2011년 3월에 입찰이 시행된 프로젝트 다수가 올 2011년 건설분야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 건설업 산업성장률 및 산업 규모

(단위: %, 십억 페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성장률 (%)	6.9	7.5	2.5	0.4	4.3
건설업 산업성장률 (%)	13.51	11.47	1.7	22.0	-0.8
산업 규모 (십억 페소)	21,288	23,470	24,165	27,690	7,247
GDP 대비 산업비율 (%)	5.8	6.1	6.1	6.9	7.0

주1. 2010년 4월 6일 기준 1달러=1838 페소임

주2. 산업규모 및 GDP 대비 산업비율은 2010년 1분기 기준임.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Banco de la República)

9) 공공 서비스 및 전력, 가스, 수도 산업

지난 2009년 콜롬비아의 공공 서비스 산업은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되어 온 공공 서비스 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책에 힘입어 전국적 범위의 인프라망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였다. 지난해 콜롬비아의 공공 서비스 전체 판매액은 2008년 대비 9.9%가 증가한 45.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기업 총 자산도 5.1% 증가한 13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공공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들은 총 1억 달러의 운영 수입을 돌파하였고, 순이익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40%가 증가한 7.4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로와 하수처리 사업은 5억 달러가 넘는 투자액을 유치하며 공공 서비스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투자액 유치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콜롬비아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보고타 수로-하수처리 기업 (EAAB)은 스페인 및 중남미 기타 국가와의 공동 사업 및 투자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프로젝트를 개발, 진행하면서 콜롬비아 국내의 위생, 식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고객 관리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외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보고타 수로-하수처리 기업은 지난 2009년에만 총 1.3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 보고타 시민들을 위한 수로 및 하수처리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재투자 비용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공공 서비스 및 복지협회 (Andesco)는 지난 2009년 마련한 6천만 달러의 기금을 빈곤층 계급을 위한 서비스 확장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한편 가스 나투랄 사는 지난 2009년 전년 대비 7.1%의 판매 증가를 실현, 1,600만 달러를 투자해 가스 보급망의 건설 및 보완 사업을 진행하였다. 최근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한 안데스 북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엘니뇨 현상의 여파로, 콜롬비아의 가스 생산량 및 가스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앞으로도 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공공 서비스 산업, 인프라 구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는 경제 위기에서 회복되면서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 최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있다. 경제 위기를 겪던 2009년에도 판매액은 1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으며, 총 기업 자산 역시 572억 달러를 기록, 2009년 대비 12.0% 증가하였다. 현재 이피엠 (EPM) 사는 400MW 전력 생산 능력을 갖춘 8억 달러 규모의 Porce-4 프로젝트, 엠헤사 (Emgesa) 사는 총 396MW 전력 생산, 6억 9천만 달러 규모의 El Quimbo 발전 프로젝트, 헬셀카 (Gecelca) 사는 150MW 전력 생산,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Gecelca-3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콜롬비아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 가운데 하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녹색 성장의 영향으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콜롬비아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은 전체 전력생산의 4.2%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발이 미비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개척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친환경 산업의 발전 흐름과 더불어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대학, 각종 기관과 기업들의 합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연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산업 발전 전망이 더욱 밝은 편이다.

이 가운데 에코페트를 사는 콜롬비아 과학기술 진흥원과 함께 저탄소 에너지 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전국적 규모로 적용될 대체 에너지 발전을 위한 이해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저탄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대체품의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사헨 (ISAGEN) 사는 과히라 주 자치공사의 승인을 얻어 올해 과히라 주 벨라 곶 (Cabo de la Vela)에 Jouktai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열 발전 사업과 관련해 콜롬비아에서 지열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연구사업을 통해 5개의 후보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보고타 서부 이바게 시 및 마니살레스 중간 고지대인 Nevado del Ruiz 지역을 지열 발전 프로젝트 지역으로 최종 결정,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경제성 연구조사, 콜롬비아에서의 지열발전 에너지 시장성 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인 공사 기간 및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 산업성장률 및 산업 규모

(단위: %, 십억 페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성장률 (%)	6.9	7.5	2.5	0.4	4.3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 산업성장률 (%)	4.73	4.75	2.1	1.8	4.2
산업 규모 (십억 페소)	57,042	58,839	60,307	61,101	15,695
GDP 대비 산업비율 (%)	15.7	15.2	15.2	15.2	15.2

주1. 2010년 4월 6일 기준 1달러=1838 페소임

주2. 산업규모 및 GDP 대비 산업비율은 2010년 1분기 기준임.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Banco de la República)

최근 5년간 전기, 가스, 수도 산업성장률 및 산업 규모

(단위: %, 십억 페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성장률 (%)	6.9	7.5	2.5	0.4	4.3
전기, 가스, 수도 산업성장률 (%)	3.09	3.67	1.2	2.9	2.9
산업 규모 (십억 페소)	14,319	15,009	15,018	15,228	3,969
GDP 대비 산업비율 (%)	3.9	3.9	3.8	3.8	3.8

주1. 2010년 4월 6일 기준 1달러=1838 페소임

주2. 산업규모 및 GDP 대비 산업비율은 2010년 1분기 기준임.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Banco de la República)

10) 금융업

금융업은 콜롬비아 전체 GDP 에서 19% 비율을 차지하며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2009년 콜롬비아 금융업은 416억 달러의 산업 규모를 차지하며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비해 3.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 성장률도 전체 산업성장률 0.4%를 크게 웃도는 2.8%를 기록했다. 올해 금융업은 구매와 판매, 투자 등 전반적인 산업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 이미지 전환에도 영향을 미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나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0년 1분기 금융업 산업 규모는 105억 달러를 기록, 2009년에 비해 0.9% 상승에 그쳐 전체 산업 성장률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2009년 침체기를 겪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업은

지난해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 갔다는 점에서 제법 고무적인 결과로 전문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상반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어지면서, 2009년의 5억 4,900만 달러의 금액을 가뿐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이 콜롬비아 시장으로의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하반기에도 유럽 및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한 투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공사 (IFC)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콜롬비아 금융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표명하기도 하였으며, 해외 기업들 역시 Helm, BBVA, 보고타 은행 등 콜롬비아 주요 은행의 인수 및 주식 지분 구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금융업 산업성장률 및 산업 규모

(단위: %, 십억 페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성장률 (%)	6.9	7.5	2.5	0.4	4.3
금융업 산업성장률 (%)	6.67	7.29	5.6	2.8	2.8
산업 규모 (십억 페소)	67,487	70,615	76,628	79,004	19,933
GDP 대비 산업비율 (%)	18.5	18.2	19.3	19.7	19.3

주1. 2010년 4월 6일 기준 1달러=1838 페소임

주2. 산업규모 및 GDP 대비 산업비율은 2010년 1분기 기준임.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Banco de la República)

11) 호텔 및 관광산업

현재 콜롬비아의 호텔관광산업은 석유 및 광업, 농업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 분야에 비해 콜롬비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카리브해 자연 및 기후조건, 아메리카 대륙의 교차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조건, 안데스 및 카리브 문화의 다채로움, 커피농장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이 향후 콜롬비아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세계 관광 산업이 2008년에 비해 4.3% 감소, 전반적인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지난해 콜롬비아 관광 산업은 전년 대비 10%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며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여행관광협회 (WTTC)의 발표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전체적 관광 산업 수준은 2009년 기준, 18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7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호텔 산업 분야는 훌륭한 서비스 질과 주요 컨벤션 시설 보유 능력을 높게 인정받아 33위를 기록,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 32개 지방자치 정부 가운데 30개 주가 2010년 신성장동력 역점 산업으로 관광업을 지정할 정도로 정부 부처, 관공서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광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호텔관광 산업이 국가의 주요 육성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의 호텔관광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MICE 산업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and Exhibition) 육성 노력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보고타, 메데진, 깔리 등 콜롬비아 주요 대도시와 카리브해 연안 지역 도시들을 중심으로 MICE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9년 호텔 산업의 전체 판매액은 전년 대비 5.9% 감소한 4억 달러

정도로 집계되었지만, 기업 자산은 18.4% 증가한 9.2억 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콜롬비아 관광 산업 발전에 힘입어 건축, 물류, 항공 및 교통 산업 등 국가 기초 산업 분야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전에 비해 적극성을 띠고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도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호텔관광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녹색 경영 및 친환경 호텔 건설 사업 등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콜롬비아 호텔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2001년 350만 달러에 불과한 투자액이 불과 8년 만에 250배 이상 증가하며 지난 2009년에는 9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올 2010년 호텔 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12억 달러에서 15억 달러까지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1년에는 약 2만 개의 호텔 룸이 새롭게 갖춰지는 등 전반적인 호텔 및 관광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의료관광 산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빠른 산업 성장세를 보이며 최고의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아르메니아 시에 2백만 달러가 투자, 의료관광 및 보건진흥 기업이 설립되면서 의료관광 산업이 콜롬비아 시장에서 본격적인 발전 준비를 갖춰 나가고 있다. 지난 2009년 콜롬비아 의료관광 산업은 30억 달러 이상의 판매액을 기록, 전년 대비 14.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전체 기업 자산도 14.9% 증가한 34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콜롬비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2.2%인 2만 7천여 명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상공관광부는 추정하고 있다. 콜롬비아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 산업은 세계적인 커피 산지로 알려진 킨디오 주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기관 및 협회, 기업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단지 설립에 착수하면서 전문가들은 의료관광 산업이 향후 높은 산업성장 가능성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콜롬비아 정부 및 관련기관은 의료관광 산업이 무엇보다 품질에 의한 고객 만족도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만큼, 의료기기, 의료기술 및 서비스의 진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며, 더불어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상업, 외식, 호텔 산업성장률 및 산업 규모

(단위: %, 십억 페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성장률 (%)	6.9	7.5	2.5	0.4	4.3
상업, 외식, 호텔 산업성장률 (%)	8.66	8.72	1.7	0.1	5.3
산업 규모 (십억 페소)	45,314	48,625	49,829	48,699	12,623
GDP 대비 산업비율 (%)	12.4	12.6	12.5	12.1	12.2

주1. 2010년 4월 6일 기준 1달러=1838 페소임

주2. 산업규모 및 GDP 대비 산업비율은 2010년 1분기 기준임.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Banco de la República)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체결협정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 안데안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콜롬비아는 과거 대외협상체결에 소극적인 경향이 강했으나 우리에 정권 취임 이후 적극적인 다자간 협상에

나서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2007년에만 칠레, 중미 3개국 등과 두 차례의 FTA를 성공시킨 바 있으며 미국과는 실질적인 협상을 완료하고 의회비준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한편 유럽연합과는 모든 협상 및 의회비준이 종결되면서 2010년 6월 FTA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타 FTA 협상 진행국으로는 파나마가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한국과 FTA 2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일본 농림부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도 조만간 FTA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및 인도와의 교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콜롬비아는 중국경제포럼에 참여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와 FTA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10년 5월 기준)

체결협정	체결국가	체결시점
안데안공동체(CAN)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1969년
G3 협정	멕시코	1995년
콜롬비아-Caricom	카리브 공동체 가입국	1998년
CAN-Mercosur	메르코수르 가입국	2004년
콜롬비아-칠레 FTA	칠레	2007년
콜롬비아-중미3개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2007년

나. 체결추진협정

콜롬비아는 미국, 캐나다 정부와 교섭협의를 종료, 의회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나 미국의 경우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협상완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안데안공동체(CAN), EU 간 자유무역협정 역시 최우선 역점사안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빈약한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자국이익 우선주장으로 인해 진행이 답보된 상황이다. 한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2010년 3월 보고타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양국은 2010년 6월 한국 서울에서 3차 협상을 갖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추진협정

(‘10년 5월 기준)

체결추진협정	체결국가	체결예정시점
콜롬비아 - 미국 FTA	미국	연내
콜롬비아 - 캐나다	캐나다	연내
콜롬비아 - 한국	한국	연내
콜롬비아 -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미정
안데안공동체 - EU	EU 가입국	미정
콜롬비아 - 파나마	파나마	연내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최근 교역동향

1) 교역수지

2010년 콜롬비아 대외교역량은 수출 US\$398.2억 달러, 수입 US\$383.5억 달러를 기록, 총 US\$14.68억 달러의 교역흑자를 기록했다. 2011년 2월 기준 수출액은 US\$ 37.82억, 수입액은 US\$ 35.72억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US\$ 2.09억의 교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교역 수지 : US\$/FOB 기준

수 출	39,820,000,000
수 입	38,351,000,000
수 지	1,469,000,000

자료: DANE

전통적인 교역 적자국이었던 콜롬비아는 1999년 16.26억 흑자를 기록 한 이후로, 06, 0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09년 대비 10년에는 약 2억 가량 감소한 교역 수지를 기록하였다.

2011년 (1월까지 기준) 교역 수지 : US\$/FOB 기준

수 출	3,782,000,000
수 입	3,572,800,000
수 지	209,900,000

자료: DANE

2) 주 교역국가 및 품목

2010년도 콜롬비아 주 교역대상국으로 수출은 미국, 베네수엘라, 칠레, 에콰도르, 수입은 미국, 중국, 멕시코, 브라질 순을 기록했다.

한편, 한-콜롬비아 교역량은 '07년 부로 US\$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양국간 교역량 역시 감소하였으나, 2010년 콜롬비아의 대 한국 수출이 960만 달러에서 2011년 2월 현재까지 6,100만 달러로 상승하는 등 교역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2010년 한국의 대 콜롬비아 수출은 US\$13.88억 달러, 수입은 US\$4.32억 달러로 각각 증가하였고, 현재 2011년 2월 기준 수출액이 26.%, 수입액이 350% 증가했다.

콜롬비아 주요 교역국가에 따른 교역수지(2010년)

교역국가	교역수지
미국	6,935.2
베네수엘라	1,131.5
에콰도르	1,010.0
페루	376.7
칠레	219.3
캐나다	-220.2
일본	-575.9
브라질	-1,207.6
독일	-1,344.7
멕시코	-3,005.9

주: 한-콜 교역량은 산출기준 차이로 KITA 통계치와 일부 상이

자료: DANE

2010년, 2011년 1월의 콜롬비아 주요 수입률 비교

국가명	CIF백만달러	%	국가명	CIF백만달러	%
2011			2010		
미국	1,097	29.1	미국	669	24.8
중국	458	12.2	중국	310	11.5
멕시코	345	9.1	멕시코	196	7.3
브라질	199	5.3	프랑스	193	7.2
독일	144	3.8	브라질	138	5.1
일본	124	3.3	에콰도르	133	4.9
아르헨티나	120	3.2	일본	94	3.5
에콰도르	83	2.2	아르헨티나	78	2.9
캐나다	79	2.1	한국	60	2.2
한국	78	2.1	독일	59	2.1

자료 : DANE

09년 주요 교역품목(석탄 및 석유 등 전통상품 제외)으로는 수출(육류, 플라스틱, 과일, 제지류), 수입(기계류, 전자기기, 항공기, 차량 부분품) 등으로 대부분 1차 산물(수출), 정밀제조품(수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들어서도 1차 산물과 석유, 원자재의 수출이 두드러졌으며, 수입 품목으로는 기계부품, 차량 부품, 전자 및 영상관련 부품 품목이 나타났다.

2011년 (1월까지 기준) 콜롬비아 주 교역품목

수 출 (콜롬비아 ▶ 해외)				수 입 (해외 ▶ 콜롬비아)		
순위	품목	교류%	변동%	품목	CIF백만달러	전체수입%
1	석유 및 석유제품	35.7	14.8	기관, 기계류 부품	549	14.6
2	석탄	40.9	7.1	자동차 및 부품	412	10.9
3	커피	114.4	35.2	전자, 영상 부품	339	9.0

금액: US\$ 억 달러

자료: DANE

나. 수출입동향 추이

1) 전체 수출입 동향 추이

콜롬비아 관세청(DIAN)에 따르면 2010년 수출 총액은 US\$398.20억 달러를 기록, 콜롬비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한편, 수입 총액은 US\$383.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석유 및 석유관련 품목 수출이 60.6%로 가장 두드러지며, 동 품목 수출로 콜롬비아 수출이 3.3% 증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 국에 대한 콜롬비아 수출은 유럽국가(5.9%), 멕시코(19.1%), 미국(31.4%), 캐나다(38%), 에콰도르(45.1%), 칠레(44.6%), 페루(43.6%), 일본(52%), 코스타리카(59.4%), 브라질(80.4%), 중국(107.1%)로 상승한 반면, 베네수엘라로의 수출은 -64.9%로 집계되었다. 베네수엘라는 2009년 콜롬비아 수출의 12.3%를 차지했지만, 2010년 3.6%로 감소하였다.

주 수출품은 석탄, 니켈, 석유, 금으로 각각 37.3%, 48.6%, 28.8%, 25.9% 증가하였다.

최근 4년간 콜롬비아 대외교역동향

(단위: US\$ 기준)

구 분	2007	2008	2009	2010년	2011년1월
수 입	28,030,000,000	39,660,000,000	32,898,000,000	38,351,000,000	3,572,000,000
증감률	+14.2%	+41.2%	-17.1%	+16.5%	+39.8%(2010년 동기간 비교)
수 출	25,720,000,000	37,620,000,000	32,853,000,000	39,820,000,000	3,782,000,000
증감률	+5.4%	+46.2%	-12.7%	+21.2%	+29.8%(2010년 동기간 비교)

자료: DIAN, DANE

2) 품목별 수입비중

전통적으로 콜롬비아의 주 수출품목인 기계류 및 부분품, 차량 및 부분품, 전자기기 녹음기 및 영상재생 기기,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광학·사진용·영화용 정밀 기기 등이 수입 상위권에 들었으나 경제위기로 인한 구매력 감소, 교역규모 축소 등으로 절대치는 감소하였다.

□ 주요 품목별 수입 원산지(2009년 통계, 현 최신통계임)

주된 수입 품목의 원산지는 대부분 미국, 중국, 멕시코 3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두드러지는 점은 '09년 대비 미국, 중국의 비중이 각각 약 15%, 12%가량 떨어진 반면 멕시코가 5%가량 신장된 것이다. 또한 4위를 차지하였던 스위스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브라질이 수입품 원산지 4위를 차지하였다.

2010년 수입품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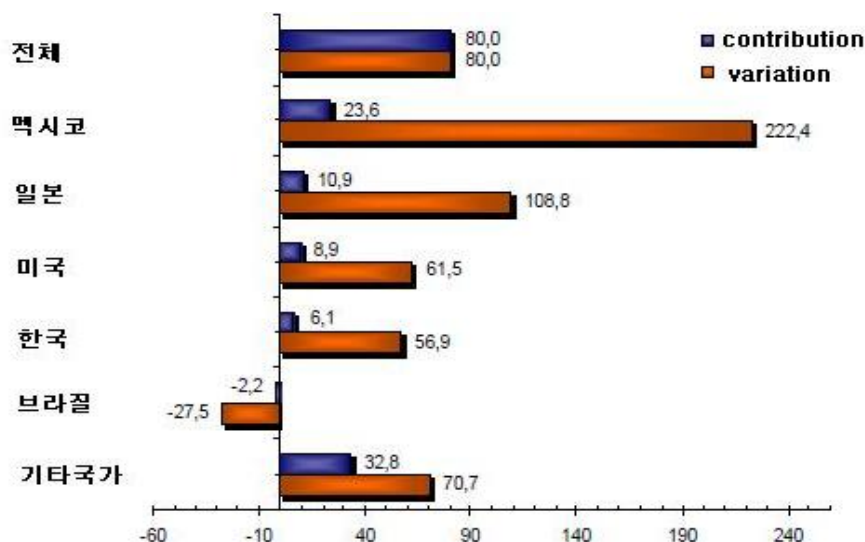
국 가	비중(%)
미 국	29.1
중 국	12.2
멕시코	9.1
브라질	5.3
독 일	3.8
일 본	3.3
아르헨티나	3.2
에콰도르	2.2
기 타	31.8
합 계	100

CIF 금액 기준

자료: DIAN, DANE (통계당국에서 기준년도 미기재)

2011년 1월, 자동차, 차량부품 분야 수입은 전체 수입의 10.9%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멕시코, 미국, 일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중, 멕시코는 2,430만 달러에서 7,840만 달러로 222.4%의 성장을 기록했다.

자동차, 차량 부품 수입 원산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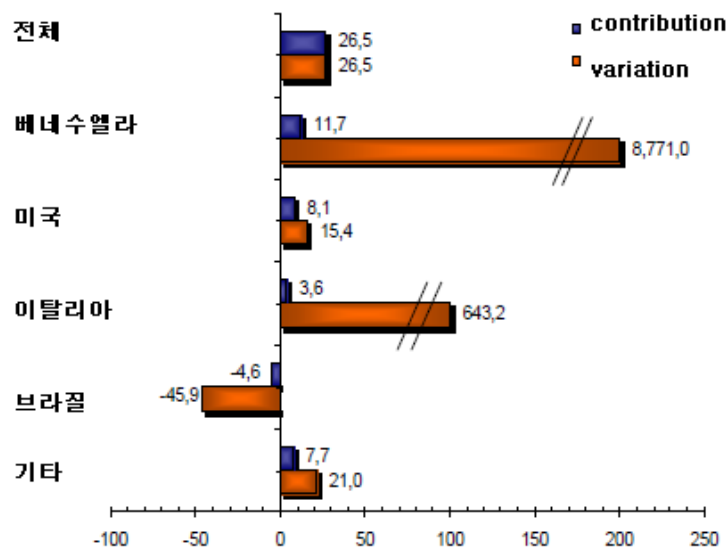
CIF 금액 기준

2010년, 2011년 1월 기준

자료: DIAN, DANE-COMEX

유기화학제품의 경우 콜롬비아 전체 수입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베네수엘라에 수입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화합품 수입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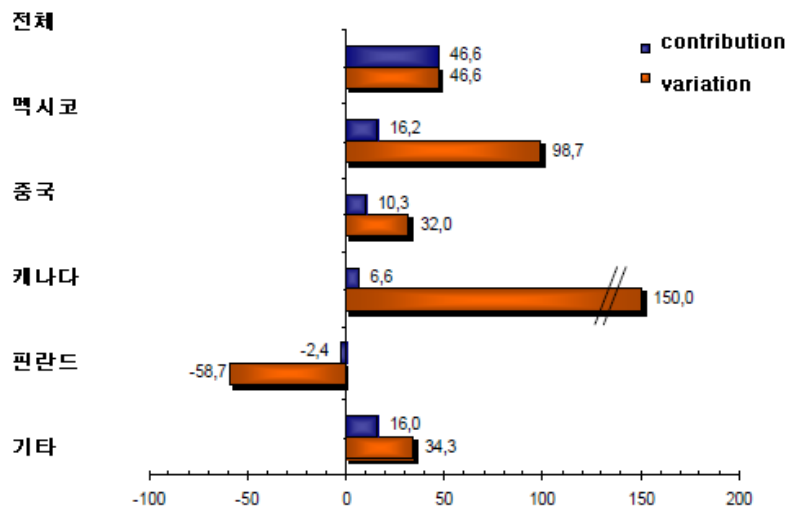
CIF 금액 기준

2010년, 2011년 1월 기준

자료: DIAN, DANE-COMEX

전자/영상 제품 품목은 2011년 1월 수입의 9.0%를 기록, 콜롬비아 수입에서 세 번째로 큰 분야를 차지하였다. 이 수입은 주로 중국, 멕시코, 미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98.7%의 성장, 핀란드로부터의 수입은 156.0%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전자/영상 제품 수입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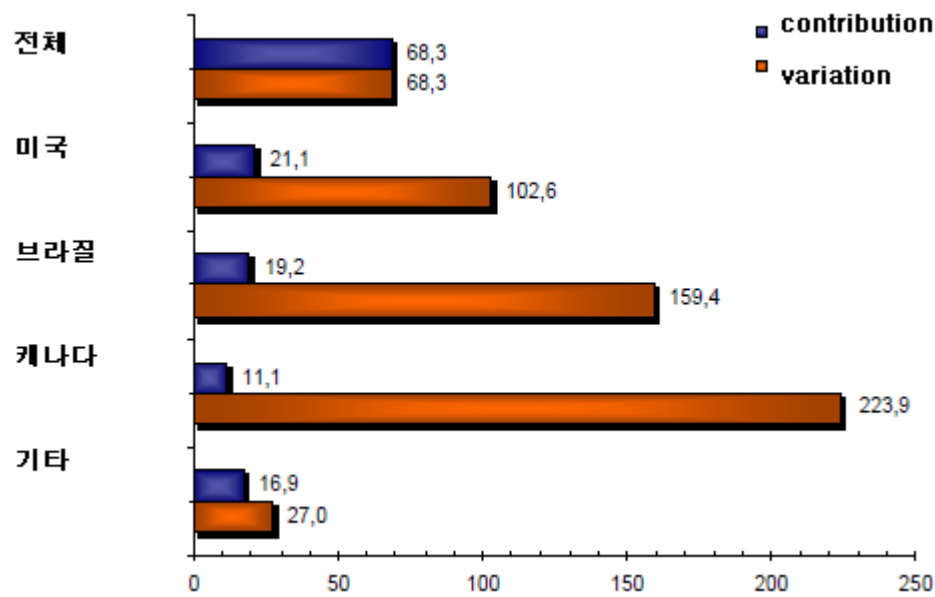
CIF 금액 기준

2010년, 2011년 1월 기준

자료: DIAN, DANE-COMEX

곡물류의 경우 2011년 1월 기준, 콜롬비아 수입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수입은 미국, 브라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미국이 2,000만 달러에서 4,100만 달러로 102.6% 성장하였다.

곡물류 수입 원산지



CIF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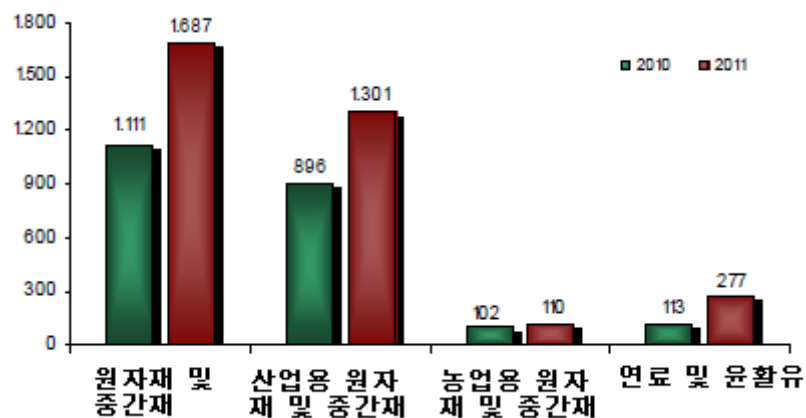
2010년, 2011년 1월 기준

자료: DIAN, DANE-COMEX

3) 재화별 수입현황 및 성장세

2011년 1월 기준, 원자재와 중간재는 51.9% 증가했으며, 산업용 원자재 및 중간재는 variation 45.2%, contribution 15.0 퍼센테이지를 기록하였다.

2010년, 2011년 1월 기준 재화별 수입액(원자재 및 중간재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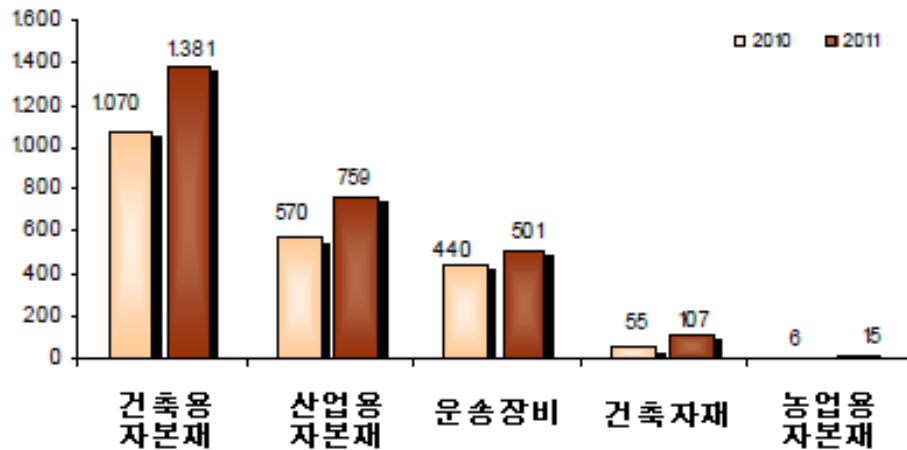


백만 달러 기준

자료: DIAN, DANE-COMEX

2011년 1월 기준, 건축용 자본재는 29.0% 상승하였으며 이는 산업용 자본재의 수입 33.1% 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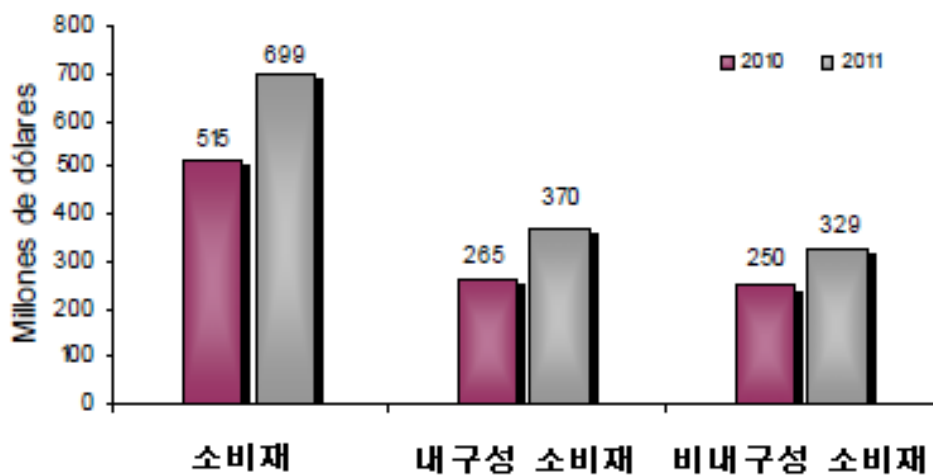
2010년, 2011년 1월 기준 재화별 수입액(건축재 및 자본재 부분)



백만 달러 기준

자료: DIAN, DANE-COMEX

2010년, 2011년 1월 기준 재화별 수입액(소비재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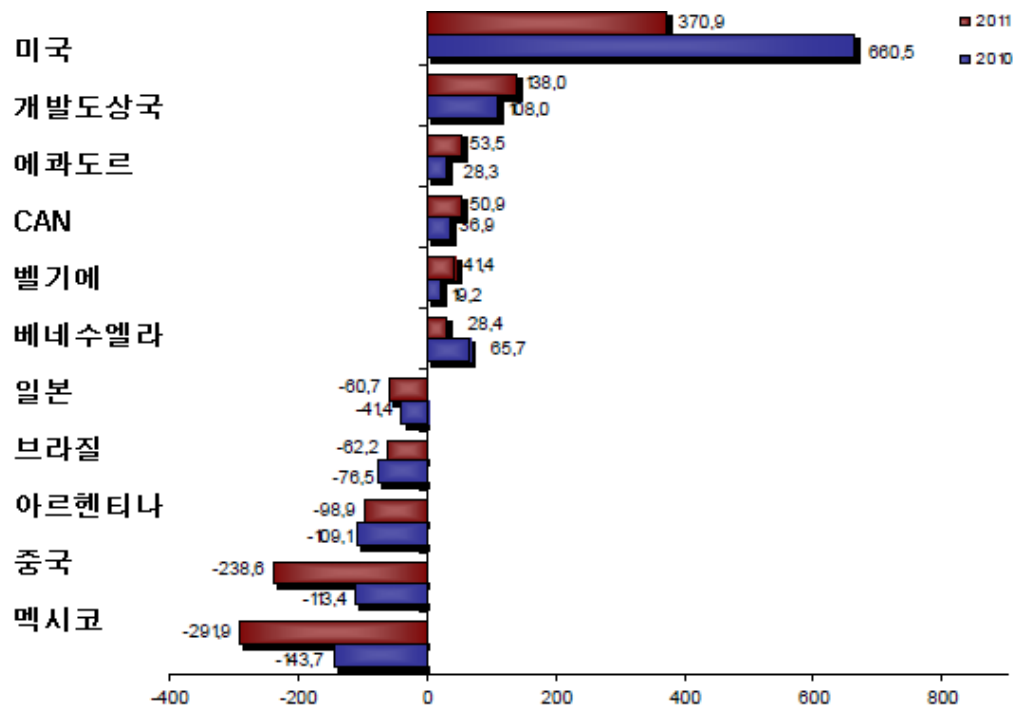
백만 달러 기준

자료: DIAN, DANE-COMEX

2011년 1월 기준, 소비재는 35.9% 성장하였으며, 내구성 소비재는 39.7% 성장을, 비내구성 소비재는 31.9% 성장하였다.

4) 주요 국가별 수입

2010년, 2011년 1월 무역수지 비교



FOB 백만달러

2010년, 2011년 1월 기준

자료: DIAN, DANE-COMEX

2011년 1월 기준, 수입이 늘어난 국가는 미국(3억 7천 만 달러), 개발도상국(1억 3천8백 만 달러), CAN연합(1억 2천 2백만 달러), 에콰도르(5천 3백만 달러), 벨기에(4천 1백만 달러)이다.

반대로 수입액이 감소한 국가는 멕시코(2억 9천1백만 달러), 중국(2억 3천8백만 달러), 독일(1억6백만 달러), 아르헨티나(9천8백만 달러)이다.

주요 국가별 2010년, 2011년 1월 수입품목

국가	품목	VARIATION	CONTRIBUTION
미국	연료 및 광물 제품	220.4	21.3
	항공기, 우주선	173.6	8.2
	보일러, 기계류 및 부품	33.5	7.7
	곡물류	102.6	3.1
	기타	39.7	23.6
	소계	64.0	64.0
중국	영상기계 및 전기 설비	32.0	7.7
	보일러, 기계류 및 부품	26.2	7.2
	고무 및 제조품	107.7	3.5
	자동차 및 차량 부품	102.3	2.9
	기타	58.2	23.2
	소계	48.1	48.1

국가	품목	VARIATION	CONTRIBUTION
멕시코	자동차 및 차량 부품	222.4	27.6
	영상기계 및 전기 설비	98.7	19.1
	철, 강철 제품	860.6	11.4
	연료 및 광물 제품	-95.2	-7.4
	기타	42.1	25.0
	소계	75.6	75.6
프랑스	항공기, 우주선	-86.7	-67.5
	해양 및 강 네비게이션	-100.0	-7.8
	제약품	56.0	1.4
	곡물류	*	3.2
	기타	58.7	6.9
	소계	-63.7	-63.7

2010 년, 2011 년 1 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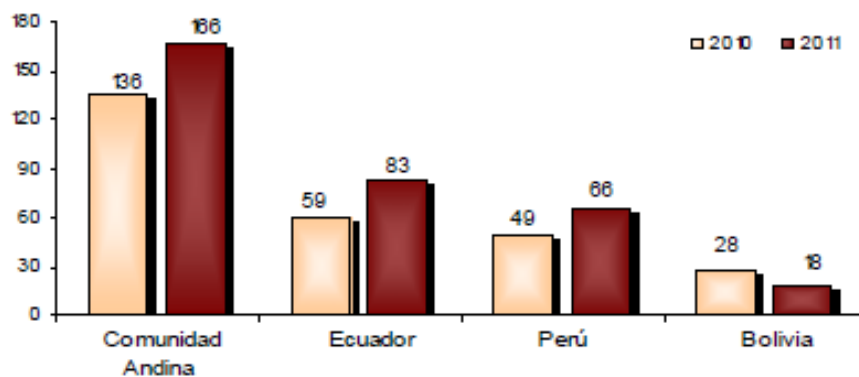
자료: DIAN, DANE-COMEX

5) CAN(안데안공동체) 가입국별 수입현황

2011년 1월 기준, 안데안공동체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가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은 CIF 기준 2011년 동기 대비 22.7% 증가되었다.

국가별로는 에콰도르 발(發) 수입이 39.3%, 페루 발 수입이 34.8% 증가한 반면, 볼리비아는 34.7% 감소하였다.

CAN(안데안공동체) 가입국별 수입현황(2010년, 2011년 1월 비교)



CIF 백만 달러

2010 년, 2011 년 1 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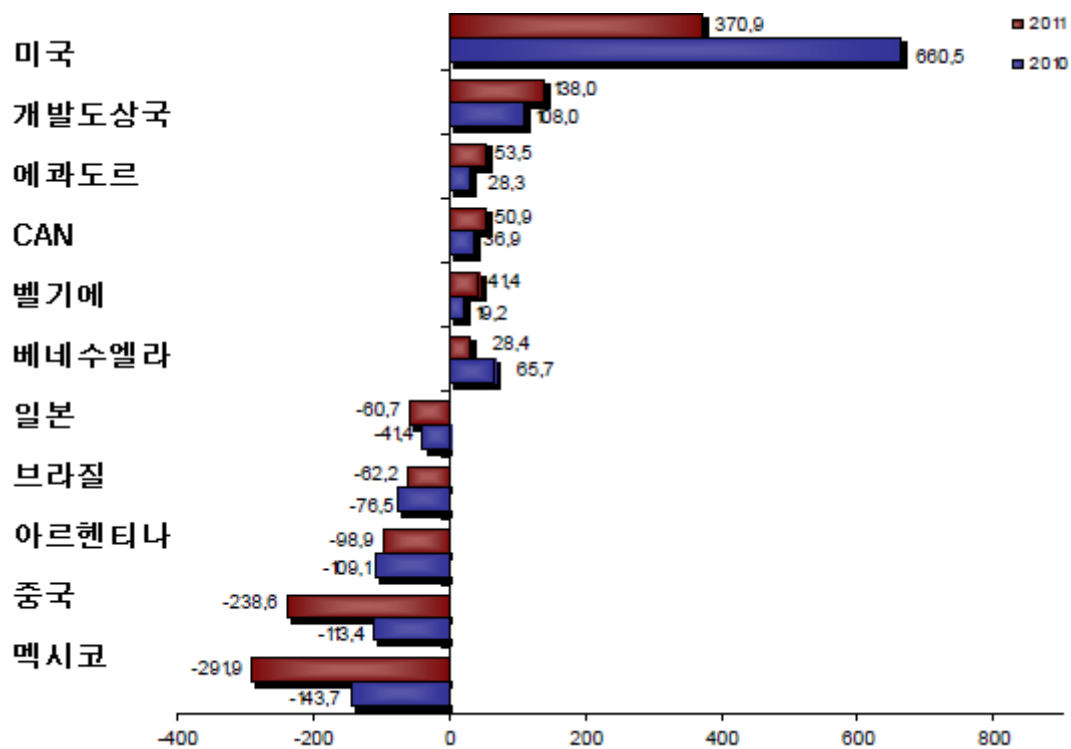
자료: DIAN, DANE-COMEX

6) 콜롬비아 국내 지역별 수입현황

조사기간 내 총 수입물량의 41.9%를 수도 보고타가 차지한 가운데 Antioquia(12.0%), Valle del Cauca(10.1%), Cundinamarca (8.9%), 기타 지역(27.2%)순을 잇고 있다.

보고타 및 인근 수도권(Cundinamarca)의 수입액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수요의 상당수가 수도 및 인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지역별 수입현황



FOB 백만달러

2010년, 2011년 1월 기준

자료: DIAN, DANE-COMEX

(자료: BACEX, DIAN, DANE, 보고타 KBC 종합 등)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최근 교역동향

1) 한-콜롬비아 수출입 증감추이

‘10년 양국간 교역량은 수출 US 13.88억 달러(74.2%), 수입 US 4.32억 달러(245.9%)를 기록, 총 US\$ 9.56억 달러의 교역수지 흑자 달성하였다.

수출입 규모 및 무역수지 (2010년)

구 분	금액 (US천\$)	증감률 (%)
수 출	1,388,553	+74.2
수 입	432,139	+245.9
수 지	956,414	-

자료: KITA-한국무역통계

2011년 1~2월에는 수출이 26.9%, 수입은 350.1% 증가하였다.

수출입 규모 및 무역수지 (2011년 2월까지 기준)

구 분	금액 (US천\$)	증감률 (%)
수 출	221,474	+26.9
수 입	112,027	+350.1
수 지	109,448	-

자료: KITA-한국무역통계

2) 주요 교역품목 (MTI 4단위 구분)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이 US\$3.5억불로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수출량 역시 '09년에 동기 대비 66.8% 증가를 기록, 향후 우리나라의 對 콜롬비아 주력 수출 상품으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와 무선전화기 수출량이 급 증가세를 보였다.

10대 수출품목 (2010년)

품목명	금액 (US천\$)	증감률 (%)	MTI (4단위)
자동차부품	359,997	66.8	7420
승용차	382,890	82.2	7411
합성수지	70,618	39.5	2140
원동기	50,765	27.0	7111
화물자동차	50,558	117.0	7412
항공기	46,271	3,352,841.7	7471
기타 석유화학제품	33,084	129.0	2190
건설 중장비	31,899	245.9	7151
타이어	29,008	94.1	3203
무선전화기	20,455	235.4	8121

자료: KITA-한국무역통계

2010년 이후 승용차,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원동기, 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제품들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건설중장비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상반기 감소세를 보였다.

10대 수출품목 (2011년 2월까지 기준)

품목명	금액 (US천\$)	증감률 (%)	MTI (4단위)
승용차	64,196	11.5	7411
자동차부품	53,918	40.3	7420
합성수지	15,019	61.0	2140
화물자동차	11,637	198.7	7412
원동기	7,832	6.7	7111
타이어	6,488	77.8	3203
기타 석유화학제품	5,992	-29.6	2190
섬유기계	3,704	80.5	7211
건설중장비	3,064	12.0	7251
컴퓨터	2,859	97.5	8131

자료: KITA-한국무역통계

- 지난해 호조를 보인 승용차와 자동차 부문은 금년에도 각각 11.5%, 40.3%의 증가율을 보였다.
- 지난해 부진했던 화물자동차는 198.7%의 눈에 띄는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지난해 수출품목 10 위안에 포함되었던 무선전화기는 금년 -15% 증감률을 보여 12 위로 하락하였다.
- 합성수지(61%) 및 타이어(77.8%), 섬유기계(80.5%) 등도 꾸준한 성장을 나타냈다.

10대 수입품목 (2010년)

품목명	금액 (US천\$)	증감률 (%)	MTI (4단위)
유연탄	166,537	-	1322
합금철	77,328	189.1	6181
커피류	69,158	31.6	0151
원유	38,772	21,781,755.6	1310
동과및스크랩	29,728	67.2	6221
농약	11,861	33.6	226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1,246	109.1	6211
고철	5,259	362.3	6184
소가죽	4,375	1,017.7	3311
의약품	3,512	52.5	2262

자료: KITA-한국무역통계

2010년 들어, 한국의 대 콜롬비아 전통 수입품목인 커피류와 합금철, 동괴, 알루미늄괴, 고철과 같은 광물자원의 수입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수입품 1위를 차지해왔던 커피류가 3위로 하락하고 유연탄이 수입품 1위를 등록, 원유, 소가죽, 의약품,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원유의 수입이 괄목할 성장세를 보였다.

10대 수입품목 (2011년 2월까지 기준)

품목명	금액 (US천\$)	증감률 (%)	MTI (4단위)
원유	44,016	-	1310
커피류	21,211	113.1	0151
유연탄	17,462	-	1322
합금철	12,942	118.5	6181
동괴 및 스크랩	5,600	100.0	622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595	71.4	6211
고철	2,485	743.9	6184
의약품	1,489	181.2	2262
영상기록매체	1,076	-	8215
소가죽	806	523	3311

자료: KITA-한국무역통계

- 지난해 급격히 성장했던 원유 수입이 올해 역시 4 천 400 만 불의 수입액을 기록하며 대 콜롬비아 수입품목을 기록하였다.
- 지난해 수입 1 위를 차지했던 유연탄은 3 위를 기록하고, '09 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입 1 위를 기록해왔던 커피류가 113.1%의 증감률로 대콜 수입 2 위를 점유했다.
- 영상기록매체가 107 만 달러로 새로이 10 위 안에 진입하였으며, 고철과 의약품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 대한 수출입 국가 중 한-콜 교역비중

2010년 한국의 대 콜롬비아 수출액은 US\$13.88억 달러를 기록, 총 교역대상국가 237개 국 중 47위를 차지하였다.

대 콜롬비아 수출비중 (2010년)

총 교역국가수	237개국
수출액 (US천\$)	1,388,553 (74.2% 증가)
교역비중 (규모별 순위)	47위

자료: KITA-한국무역통계

한편 2011년 들어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역량은 2월까지 통계 기준으로 2010년과 비교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47위 수출대상국이던 콜롬비아는 현재 2011년 2월 기준, 4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멕시코, 브라질, 칠레, 파나마에 이어 5위 수준에 해당한다.

대 콜롬비아 수출비중 (2011년 2월까지 현재)

총 교역국가수	218개국
수출액 (US천\$)	221,474 (26.9% 증가)
교역비중 (규모별 순위)	45위

자료: KITA-한국무역통계

또한 한국의 '10년 대 콜롬비아 수입액은 '09년 대비 245.9% 증가한 US\$4.3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09년에 콜롬비아 수입액이 감소한 것에 비해 이는 상당량 증가한 것으로 총 교역대상국 237개국 중 53위를 차지하였다.

콜롬비아 발 수입비중 (2010년)

총 교역국가수	237개국
수입액 (US천\$)	432,139 (245.9%)
교역비중 (규모별 순위)	53위

자료: KITA-한국무역통계

2010년과 비교해 대 콜롬비아 수입액도 2011년 2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며, 350.1%의 상승률을 기록, 전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대상국 가운데 규모별 순위로는 47위로 5계단 상승하였다.

콜롬비아 발 수입비중 (2011년 2월까지 기준)

총 교역국가수	200개국
수입액 (US천\$)	112,027 (350.1%)
교역비중 (규모별 순위)	47위

자료: KITA-한국무역통계

한편 양국간 무역수지에 있어 한국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총 교역국가 223개국 중 48위, 2011년 2월까지 기준 총 교역국가 200개국 중 48위를 기록하였다. (흑자달성규모 기준)

한-콜 교역수지 (2010년)

수출액 (US천\$)	1,388,553
수입액 (US천\$)	432,139
수 지 (US천\$)	956,414
교역비중 (흑자금액순위)	48위

주: 수출, 수입, 수지는 한국 기준

자료: KITA-한국무역통계

한-콜 교역수지 (2011년 2월까지 기준)

수출액 (US천\$)	221,474
수입액 (US천\$)	112,027
수 지 (US천\$)	109,448
교역비중 (흑자금액순위)	45위

주: 수출, 수입, 수지는 한국 기준

자료: KITA-한국무역통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관리제도 개황

콜롬비아는 1991년부터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시장을 개방하여 밀수에 의한 만성적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건실한 경제의 구축을 지향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 인하, 통관 및 대외지불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한 역외 공동관세 및 역내 관세 철폐를 위한 통상외교도 활발히 전개하여 관세 구조와 관세율을 ANDEAN 경제통합의 구도로 맞추어 가고 있다.

현행 콜롬비아의 수입관리는 기본적으로 NEGATIVE SYSTEM을 지향하고 있으며, 상품의 분류는 HS CODE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리의 주무기관은 상공관광부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Industria y Turismo)이며, 관세의 징수 및 통관관리는 재무부 산하의 세무관세청 (DIAN: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에서 관장하고 있다. 즉, 수입관리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상공관광부가, 관세의 징수 및 통관관리는 재무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관리 체계이다.

콜롬비아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해 수입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수입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 관리 제도는 사전 수입 면허 발급 및 특정 품목에 대한 인허가가 있으며, 일반 상품의 경우 수입 면허를 발급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함으로써 수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1996년 2월부터 실시된 선적 전 사전 검사 제도는 검사 결과에 대한 효과 감소 및 통관 간소화를 위해 1999년 8월 폐지되었다.

나. 수입 면허를 통한 수입 관리

일반상품 수입 시 상공관광부에 수입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정양식에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을 신고하여 수입 면허 (Licencia de Importacion)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수입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은 수입상은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상품을 수입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상공관광부에서는 수입면허 발급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수입면허 제도의 주목적은 쿼터 적용 상품의 수량 제한 및 수입 규제 상품의 반입 여부 등을 감시하는 것이며 아울러 수출국의 덤핑, 수입상의 Under Value 등을 감시하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간혹 상공관광부에서 수입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수입상의 Under Value 시 상공 관광부에서 신고 가격과 기준 가격을 비교, 신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다. 수입인증 (Certification) 제도

한편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부기관에 위생, 안전성, 규격 인증 등을 인증받아야 하며, 이들 품목의 수입 시 인증서 사본을 상공관광부에 첨부해야 수입 면허가 발급된다.

수입 인증의 대상은 수입상이 아닌 수입 상품으로서 결국 외국의 수출업체가 신청 주체가 된다. 수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규격 증명서, 수출국에서의 자유시판 인증서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며, 아울러 규격 검사, 안정성 검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1회 인증을 받아두면 해당 인증서 사본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아울러 수출업체에서 다른 수입업체에 수출할 때에도 인증 사항에서 일부 기재사항만 변경하는 것으로 수입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수입 거래 시 수출상은 필요 서류를 지원하고, 콜롬비아 수입상이 자사 비용 부담 하에 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수입상의 손실은 물품 가격에 반영, 일정기간 독점권 부여 등 거래 조건에서 상쇄해 주고 있다.

라. 수입규제 품목

다음 품목은 국가 방위 산업용 목적 이외에는 수입을 불허한다.

HS CODE	품명	HS CORD	품명
2804.70.0020	황인	3102.30.0000	질산 암모늄
2834.29.0010	질산 암모늄	3102.50.0000	질산 나트륨
2834.21.0000	질산 칼륨	3102.60.0000	질산 칼륨
2834.29.0090	질산 모노메틸미아	3912.20.0000	질산 섬유소
2929.19.1000	염소산 칼륨	3601 류 전체	화약
2904.20.1000	니트로 톨루엔	3602 류 전체	폭약

HS CODE	품명	HS CORD	품명
2904.20.9000	니트로 셀룰로스	3603류 전체	도화선, 도폭선, 뇌관 등
2904.90.0000	니트로크로트 톨루엔	93류 전체	무기, 총포탄 및 부분품
2904.90.1000	니트로크로트 벤젠	95류 일부	무기성 장난감
2904.90.2000	팬스리이트		

또한 정부는 2007년 9월 10일 이후 세계오존층보호의 날을 맞아 오존 파괴물질 사용제한 및 규제를 명문화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	화학식	명칭
Group 1 (CFC)	CFCI3	CFC-11
	CF2CI2	CFC-12
	C2F3CI3	CFC-113
	C2F4CI2	CFC-114
	C2F5CI	CFC-115
Group 2 (Halon)	CF2BrCI	Halon-1211
	CF3B4	Halon-1301
	C2F4Br2	Halon-2402
Group 3 (Others)	CF3CL	CFC-13
	C2FCI5	CFC-111
	C2F2CI4	CFC-112
	C3FCI7	CFC-211
	C3F2CI6	CFC-212
	C3F3CI5	CFC-213
	C3F4CI4	CFC-214
	C3F5CI3	CFC-215
	C3F6CI3	CFC-216
	C3F7CI	CFC-217
	CCI4	TCC
	C2H3CI3	1,1,1-tricloreetano

사전 수입인증 대상품목

전 수입승인 대상 품목	승인 주무기관
1960제작 또는 363천KLS이상	운항항공기 항공협회(AREONAUTICA CIVIL)
야생동물 및 그 생산품	환경부(MIN. DEL MEDIO AMBIENTE)
식품, 음료, 화장품 등 보건위생 관련품	보건부(MIN. DE SALUD)
화약, 총포류	국방부
동물 생산품, 가축약품, 사료	농수산연구소(ICA), 보건부
채소로 만든 원료, 농업용 생산품	농수산연구소, 보건부
마약류 및 환각성 화학 제품	보건부, 마약위원회
대중수송용 차량	교통부
휘발유 등 연료	광업부

마. 수입절차 개요

1) 수입허가 취득

수입업체 I/L 신청	↔	상공관광부 I/L발급
○ I/L 발급 소요기간: 수입 자유 품목 1~2일 / 사전 승인 품목 10~15일 ○ I/L 유효기간: 식료품 3개월, 일반상품 6개월		

2) 대금결제

수입업체		은행
L/C개설 신청 (I/L 첨부) ↔ 통관 신청 후 3개월 내 결제		

3) 통 관

수입업체		세관
통관신청 (I/L, PACKING LIST, INVOICE, B/L 첨부) →		

자료: 상공관광부, 세무관세청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10년 3월 기준 특별한 대한 수입 규제책은 없으나, 하기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안별로 당국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

원산지	제한책	HS Code	규제 만기기한
중국	덤핑	9506.62.00.00	2011.03.06

5.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개황

콜롬비아는 안데안 공동시장 (Comunidad Andina)의 일원으로서 안데안 대외 공통 관세에 준 하는 4단계 관세율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관세산정 방식은 종가세 (AD-VALOREM)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기준은 CIF 가격이다. 콜롬비아의 품목군 별 관세율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관세율	대상 품목
기본 체계	0%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5%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10%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15%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예 외	35%	승용 승용차
	15%	화물 승용차
변동 관세		농산물

한편 관세의 종류에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고,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상기 4단계 관세율 적용을 받는다. 특혜 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 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

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한 주요 경제협정 및 이에 따른 특혜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LADI 특혜 관세: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거, ALADI (ASOCIACION LATINO AMERICA-CANA DE INTEGRACION) 역내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상품에 대한 특혜 관세임.
- 국가별 관세할인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0.88/ 볼리비아: 0.86/ 에콰도르: 0.72 / 파라과이: 0.66/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우루과이: 0.08 등이다.
- ANDEAN 특혜관세: 안데안 공동시장(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ANDEAN 회원국 간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품목에 0% 관세율이 적용되나, 국가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G-3 특혜관세 (베네수엘라 탈퇴): GRUPO DE LOS TRES (멕시코, 콜롬비아)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로, 품목별로 특혜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주요 품목별 관세율

관 세 율	품 목
5%	VCR, 전자오븐, 헤어드라이어, 전자부품, 기계류, 컴퓨터, 교환기
10%	철강판, 사출성형기
15%	타이어, 튜브, 섬유사, 케이블
20%	TV, AUDIO, 혼방직물, 신발, 냉장고, 세탁기, 라디오, 사무용품
35%	이상 승용차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재정 적자 보완 정책 등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는 수입 품목의 관세를 1.2% 상향 조정하는 안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나.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

콜롬비아 관세율을 알아보는 방법은 관세율 책자 구입 또는 발간업체 홈페이지 유료 가입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외 현지 무역진흥공사 해당 팀에 전화 또는 내방하여 알아볼 수 있다. 관세율 책의 경우 LEGIS 출판사에서 Arancel Armonizado de Colombia란 이름으로 발간하였으나 현재는 CD로만 구입 가능하다. 구입 비용은 US\$ 200달러 내외이다.

- 서명: ARANCEL ARMONIZADO DE COLOMBIA
- 출판사: LEGIS EDITORES S.A.
- 주소: Av El Dorado No 81 - 10 Bogota, Colombia
- 전화: (1) 4255255
- 팩스: (1) 4255317
- e-메일: servicio@legis.com.co
- 홈페이지: www.legis.com.co

현지 무역 진흥 공사인 Proexport에서는 중소 무역 업체를 위해 수출, 수입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직접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관세율에 대한 정보도 입수 가능하다.

- 공사명: PROEXPORT(ZEIKY)
- 주소: Calle 28 No 13^a - 15 Piso 1 Local 8 Bogotá, Colombia
- 전화: (1) 5242015
- 홈페이지: www.proexport.com.co

다. 한시적 관세폐지(인하) 품목 ('09년 5월 기준)

1) 개요

- 콜롬비아 당국은 급격한 평가절상에 따른 내수생산 악화, 일부 수요급증 품목, 밀수품 대량 유입이 두드러진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관세면제 또는 인하조치에 나 서고 있어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 이번 조치는 크게 수입관세폐지 (0%), 인하 (5~10%), 단계적인하 (10%→0%) 등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콜롬비아 또는 CAN (안데안 공동체) 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 목에 한해 적용

2) 수입관세폐지품목

□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260 ('08.09.01)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Mincomercio)

- 해당품목 (HS Code)

HS Code	7209.16.00.10
	7209.17.00.10
	7209.18.10.10
	7209.18.10.20
	7219.34.00.00
	7219.35.00.00

주: 상기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간

관 세 율	0%
시행기간	특별한 조치 없는 한 계속

□ 기타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니켈, 전자기기부분품 등)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430 ('08.09.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Mincomercio)

○ 해당품목 (HS Code)

HS Code	2902.50.00.00
	2903.39.25.00
	2903.49.11.00
	2903.49.16.00
	2905.31.00.00
	2917.37.00.00
	3901.90.90.00
	3903.20.00.00
	3903.30.00.00
	3907.40.00.00
	3907.60.10.00
	3909.30.00.10
	7502.10.00.00
	8501.10.92.00
	8523.51.00.00
	8529.90.90.10
	9107.00.00.00

주: 상기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간

관 세 율	0%
시행기간	특별한 조치 없는 한 계속

3) 수입관세인하품목

□ 폴리에틸렌류 (비중 0.94 이상)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430 ('08.09.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Mincomercio)

○ 해당품목(HS Code)

HS Code	3901.20.00.00
	3901.90.10.00

주: 상기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간

관 세 율	5%
시행기간	특별한 조치 없는 한 계속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430 ('08.09.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Mincomercio)

- 해당품목 (HS Code)

HS Code	3920.62.00.10
---------	---------------

주: 상기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간

관 세 율	10%
시행기간	특별한 조치 없는 한 계속

4) 수입관세 (단계적)인하품목

□ 폴리에틸렌류 (비중 0.94 미만)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430 ('08.09.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Mincomercio)

- 해당품목 (HS Code)

HS Code	3901.10.00.00
---------	---------------

주: 상기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차 적용관세율

관 세 율	10%
시행기간	2008.09.12~2008.12.31

- 2차 적용관세율

관 세 율	0%
시행기간	2009.01.01~2012.12.31 (4년간)

주: 2013년 이후 관세율은 당국협의 후 추후 공표

자료: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관세청, KBC 종합 등

6. 주요인증제도

가. 표준산업규격

법률 2330 개정1994년, 법률 20822 개정 1999년, 법률 2246 개정 1998에 의거, 현지 민간 기술 표준원을 지정, 동원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인증제도인 ICONTEC은 크게 두 가지 업무로 나뉜다.

현지 제품 품질인증과 ISO 및 해외 인증 획득을 위한 대리업무이다. ICONTEC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산업규격은 아니나 개정된 콜롬비아 법에 의거해 규격 표준화 업무를 일임

받은 공공기관 성격의 민간 표준규격 제정업체라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 기관에서 제정한 규격이 곧 콜롬비아 산업규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제정절차는 신청업체에 한해 품질보증에 필요한 생산조건을 심사하고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ICONTEC이 보유한 산업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증업체가 1,500개사밖에 안 되고 투입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의 번거로움과 사회 전반적으로 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많은 기업에 보급화되지 않고 있다.

나. INVIMA

화장품, 의약·의료기기를 수입 시 현지 식약청에서 발급하는 검사를 받고 식약청에 등록을 마쳐야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대부분의 현지 소규모 수입업자는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요구하는 서류 중에는 제품 공정과정과 더불어 상세 제조법 등 민감한 자료들도 포함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거부감을 일으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속속 발생한다.

등록절차로는 수입에 앞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인증 자료, 공정 및 패키징 과정, 제조법, 카탈로그 등의 자료를 주한 콜롬비아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현지 기관에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샘플의 동봉을 요구하기도 한다.

심사비용은 약 US\$ 500달러이고 신청은 수입상 및 수출상 모두 가능한데 언어 및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 수입상이 진행하게 된다. 기간은 약 3~6개월 가량 소모된다.

7.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의 종류

콜롬비아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보호장치 및 저작권기구 (Dirección Nacional de Derechos de Autor) 등을 두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서적, S/W 등 제품의 경우 고가의 정품을 사용하는 관행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 상가 및 대학 주변 등에서 복사본 서적 및 S/W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나. 저작권

콜롬비아의 저작권 보호는 예술작품, 저서, S/W등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 23호 (1982), 법률 44호 (1993), 안데안 협정 351호 등으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S/W의 경우 정품 사용자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백업 본 1개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목적의 복사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작품 및 서적의 경우도 강제 사항은 아니나 저작권기구에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기업부문에 적용된 지적재산권으로 발명특허, 산업디자인, 상호, 상표 등이 이에 해당되며,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안데안 협정 344호 (1993), 대통령령 117호 (1994)로 규정되어 있다.

발명특허의 경우 신청기간 중 관련인사의 조사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될 것을 우려, 콜롬비아 상 공위원회 (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 재산권으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0년간 권한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상호, 상표권의 경우도 상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10년간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10년 단 위로 갱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구 사과”와 같이 특정지역 상품이 타 지 역 상품보다 탁월한 품질을 갖고 있을 경우 동 지역, 동제품 생산자들에게 상호 및 상표에 해당 지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 또한 산업 재산권의 하나로 분류한다.

8. 통관/운송

□ 콜롬비아 통관절차 및 MUISCA 소개

가. 통관절차 개요 (MUISCA 시행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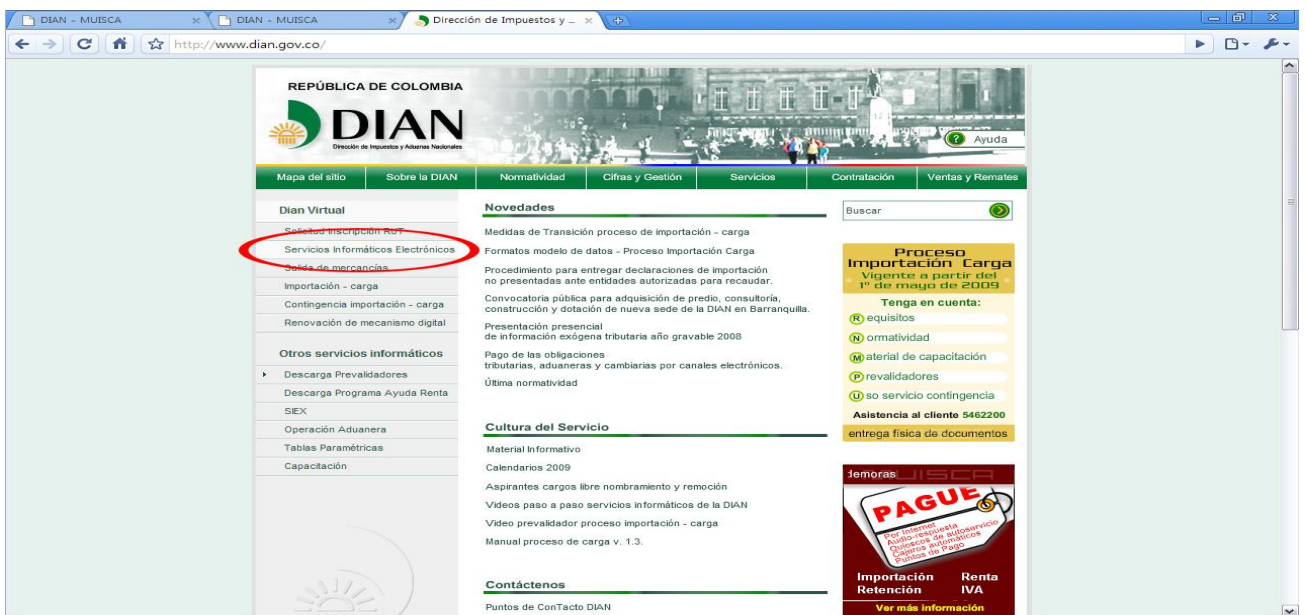
- 콜롬비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모두 보세 구역 입고 및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콜롬비아 통관 절차는 크게 보세창고 입고 -> 수입신고 -> 관세 납부 -> 세관 검사 -> 출고의 과정을 거친다.
- MUISCA 시스템 시행 전, 콜롬비아 통관 절차는 반드시 통관사 협회 (SIA- Sociedad Intermediacion Aduanera)를 통해 진행되도록 정해놓고 있으나 MUISCA가 활성화 될 경우 일반 법인 및 자연인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일반 법인 및 자연인이 MUISCA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필수적으로 콜롬비아 관세청 (DIAN)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DIAN으로부터 서비스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통관 전산 시스템 (MUISCA)을 통해 간편하게 통관 절차 및 관세납부에 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관세납부 이후 통관절차는 현재 관세납부 (지정은행) -> 세관에 통관신청 (관세납부필증, I/L, Paching Lisk, Invoice, B/L 첨부) -> 세관에 선적서류 및 관세 납부 영수증 확인 -> 화물확인 -> 세관사(보세창고) -> 출고의 절차를 거친다.

나. MUISCA (El Modelo Único de Ingresos, Servicio, Control Automatizado)

- 최근까지 통관절차의 경우 통관사 협회 (SIA)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MUISCA를 통해 법인 및 자연인 역시 통관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 MUISCA는 DIAN (콜롬비아 관세청)에서 관할하는 서비스로, 일반적으로 MUISCA를 통해 일반적인 과세, 관세 납부 등 통관절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DIAN에 등록과정 (RUT - Registro Unico Tributario)를 거쳐야 한다.
- 기존에는 전산망을 통한 수입신고를 통해 전산입력내용을 출력해 수입신고서 역할을 하며, COP (콜롬비아 페소)화로 환산하여 15일 내에 세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MUISCA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를 DIAN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등 통관절차 전산 서비스를 대폭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통관사 협회 (SIA)를 통한 통관 절차가 지나친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통관절차의 지나친 관료주의 및 지연현상이 평소 큰 불만을 야기해왔기 때문에, MUISCA 서비스를 개발 및 활용하게 되었다.
- 국제 화물 운송업자 및 대리인은 화물이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미 MUISCA를 통해 선적된 입국 화물은 통관시스템 및 콜롬비아 기업에 미리 통보되어, 별도의 복잡한 통관 절차 없이 국경에 도착하는 즉시 내륙 운송이 가능해졌다.

※ 예시 : MUISCA 사용 납부방법 (관세 및 통관비용)



- MUISCA는 DIAN (콜롬비아 관세청)에서 관할하는 서비스로, DIAN 홈페이지 접속 후, 좌측 “Servicios Informáticos Electrónicos”를 클릭하면 MUISCA 기본 페이지로 이동한다.

REPÚBLICA DE COLOMBIA

DIAN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DIAN Virtual

- Tenga en cuenta
- Iniciar sesión

Otros servicios

- Verificar su sistema para firma
- Verificar Requisitos
- Crear cuenta de usuario
- Habilitar cuenta
- Consulta de Inconsistencias
- Consulta del Arancel

Iniciar Sesión

MUISCA
Modelo Único de Ingresos, Servicio y Control Automatizado

Para ingresar digite su organización, usuario y contraseña.

Organización: NIT

Identificación: Cédula de ciudadanía

Contraseña:

[¿ Ha olvidado su contraseña ?](#)

[Habilitar su cuenta de usuario](#)

2005 Derechos Reservados DIAN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 이후 DIAN에 등록된 납세자등록번호 및 기타 사항을 입력하면 MUISCA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DIAN (콜롬비아 관세청)에 납세자 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DIAN으로부터 인증번호 (Contraseña)를 받아야 MUISCA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DIAN :: MUISCA : Buscar recibos de pago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provided by BANCOLOMBIA

Archivo Edición Ver Favoritos Herramientas Ayuda

https://chia.dian.gov.co/WebOliganciamiento/DefBuscarRecibosPago.faces

REPÚBLICA DE COLOMBIA

DIAN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DIAN-MUISCA

- Auto Gestión
- Chat Dian
- Consulta Asuntos
- Consulta de acuse
- Consultar Firmas de Documento
- Consultar documento Diligenciado
- Descargar Archivos
- Diligenciar / Presentar
- Gestión de Mecanismos Digitales
- Obligación Financiera
- Presentación de información por
- Proceso de Devolución Compens
- Recibos de pago
- Consulta de Recibos de pago**
- Registro Único Tributario
- Solicitud de Corrección Fec
- Solicitud de Corrección de Incons

Organización: A NOMBRE PROPIO

Usuario: PERSONA PRUEBA PAGO ELECTRONICO07 09-01-2009 / 13:24:10 chia.dian.gov.co

Formato de pago: [E90] Recibo oficial de pago de tributos Aduaneros y sanciones cambiarias

NIT: 700051541

☐ Pagado ☒ Pendiente

Razón social: PERSONA PRUEBA PAGO ELECTRONICO07

Número de Documento	Concepto	Período	Fecha Límite Pago	Total a pagar
☐ 600700700000002	DECLARACION IMPORTACION	2	20000130	4,600,000
☐ 600700700000003	DECLARACION IMPORTACION	3	20000130	5,600,000
☐ 600700700000004	LIQUIDACION OFICIAL	1	20000130	2,600,000
☐ 600700700000005	LIQUIDACION OFICIAL	2	20000130	3,600,000
☐ 600700700000006	SANCIONES ADMINISTRATIVAS	1	20000130	4,900,000

Listo

DIAN :: MUISCA - Pago Electrónico por Entidades Recaudadoras Autorizadas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proporcionado por BANCOLOMBIA

https://chia.dian.gov.co/Web/Entradasaida/DefinicionTransaccionPago.faces?numDocumento=32008030000152&numApelidon=&visor=false

Pago por Canales Electrónicos dispuestos por las Entidades Autorizadas a Recaudar

No. Recibo de Pago	32008030000152
Fecha Límite de Pago	2009/01/30
Valor a Pagar con este Recibo	\$569,511.00
Tipo de Identificación	NIT
Identificación	900065296
Descripción	AÑO: 2008 PERIODO: 0
Seleccione La Entidad Recaudadora	
Entidad de Pago	BANCOLOMBIA S.A.
Siguiente	

Pregunte a su banco por la disponibilidad de este servicio

- “Recibos de Pago” 란을 선택하면 DIAN에서 지정한 결제 가능 은행 목록이 생성된다. 반드시 이 경우 해당 은행에 정상적으로 결재를 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정상적으로 결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재입력창이 뜨게 된다.

Principal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proporcionado por BANCOLOMBIA S.A.

https://200.1.124.140/PortaEFDian/Principal.aspx?Banco=1007&numReciboPago=32008030000152&urlDian=https://chia.dian.gov.co/Web/Entradasaida/DefRespuestaTransaccionPago.faces

Realice sus pagos a la DIAN en forma fácil, eficiente y segura:

Valide la información de recibo y valor a pagar. Seleccione el número de recibo y haga click en el botón Pagar. El valor correspondiente al recibo es producto de la liquidación que usted hizo en el portal DIAN.

Información Necesaria

Numero de Recibo	32008030000152
☒ Banca Empresarial	☐ Banca Personal

Seleccione	Estado	Valor	Descripción	Fecha Vencimiento
☒	Habilitada PAGO	\$ 569,511.00	AÑO: 2008 PERIODO: 0	2009/01/30

Desarrollado por PSE

[Términos y Condiciones](#)

Pagos PSE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provided by BANCOLOMBIA

Archivo Edición Ver Favoritos Herramientas Ayuda

https://www5.todol.com/PseBancolombia/control/ElectronicPayment.bancolombia?PAVMENT_ID=1522083136087936215476

Bancolombia

ENERO 9 de 2009 - 3:03:28 PM

Botón de Pagos PSE

DIAN

Ingreso Datos

Empresas

Si Usted es un cliente vinculado a la Sucursal Virtual Empresas, digite el NIT de la Empresa, su usuario y su clave.

Si no desea pagar como Empresa, seleccione en Tipo de Cliente, Persona.

Tipo de cliente:	Empresa
NIT Empresa:	
Usuario:	
Clave:	

Continuar **Cancelar**

INFORMACIÓN IMPORTANTE:

Realice transacciones por Internet desde sitios seguros, preferiblemente utilice el computador personal de su casa u oficina.

Asegúrese de cerrar su sesión antes de retirarse de cualquier medio donde requiera digitar su clave.

Cambie periódicamente su clave, especialmente si ha utilizado un sitio público.

[Para más información haga clic aquí.](#)

[Seguridad](#) [Política de Privacidad](#) [Términos y Condiciones](#) [Preguntas Frecuentes](#)

Copyright 2000 - 2009 TODOL Services, Inc. Todos los derechos reservados.

Listo

- 빨간 원안 부분에 체크한 후 우측 하단 결제 (Pagar) 부분을 클릭하면, 다시 한 번 DIAN에서 승인받은 납세자 등록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된다. 하나라도 잘못 입력하게 될 경우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Pagos PSE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proporcionado por BANCOLOMBIA S.A.

https://www5.todol.com/PseBancolombia/control/ElectronicPayment.confirm

Bancolombia

Sr(a) SuperUsuario: 805007001

Dirección IP de conexión: 200.1.175.207

ENERO 9 de 2009 - 10:34

Botón de Pagos PSE - Confirmación del pago

Tienda virtual o recaudador: D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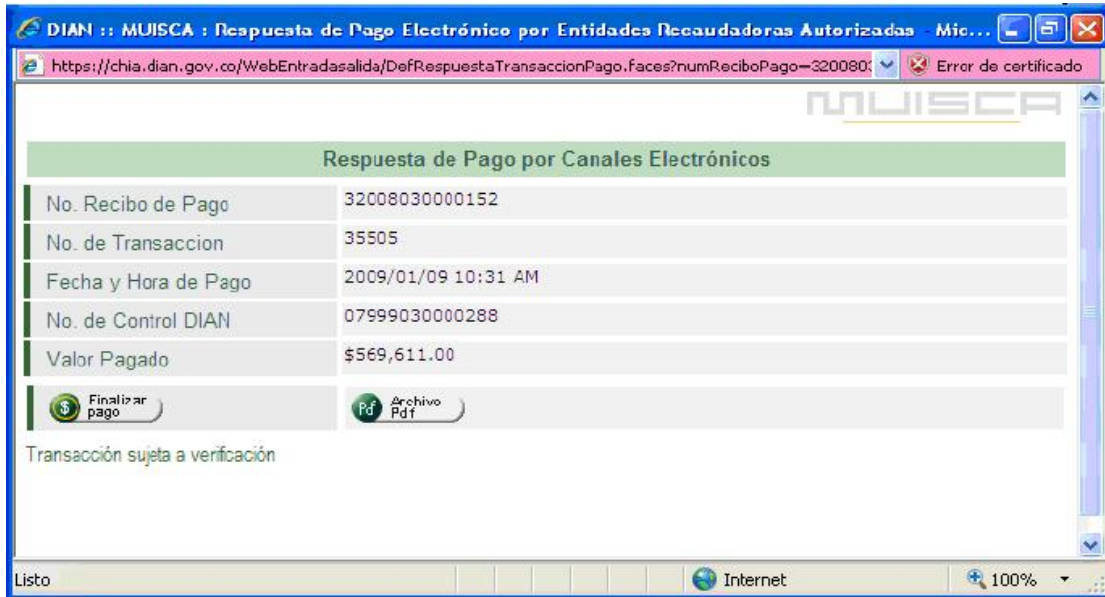
Nro. de recibo:	32008030000152
Descripción del pago:	AÑO: 2008 PERIODO: 0
Identificación del contribuyente:	NIT - 900065296
Concepto:	DECLARACION IMPORTACION
Fecha de vencimiento:	2009/01/30
Valor pagado:	\$ 369.611,00
Cuenta:	****-****87-77 - Corriente - Corriente
Número de comprobante:	35505

El pago ha sido debitado de su cuenta.

Presione "Continuar" para regresar a la tienda virtual o sitio recaudador y notificarle el resultado de la transacción.

Continuar **Imprimir**

Copyright 2000 - 2009 TODOL Services, Inc. Todos los derechos reservados.



- 결재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면이 출력된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개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육성책에 힘입은 콜롬비아 투자환경은 2004년을 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 중이며 2009년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총 US\$72.0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어 최근의 투자신장세를 나타내었다. 참고로 2008년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총 106억 달러 가량이다.

2009년 부문별 투자규모를 볼 때 광업, 석유 등의 신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상업, 호텔, 외식업, 금융업, 제조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전기, 가스, 수도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오히려 약 -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농수산업 및 목축업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1,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0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구분	비중(%)
석유	36.6
광업	43.0
교통, 운송, 통신	4.7
상업, 호텔, 외식업	8.9
제조업	7.4
금융업	7.6
건설	4.0
기타	-12.2
합계	100

자료: Banco de República

콜롬비아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총 US\$ 72.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 1분기 투자 유치액에 대한 공식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광업 및 건축업 분야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외국인들의 투자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2010년 투자 전망이 밝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FDI 유치액 및 증감 현황

연도	FDI유치액(US\$ 백만)	증감률(%)
2005	10,252	-
2006	6,656	-35.0
2007	9,049	36.0
2008	10,600	17.0
2009	7,201	-32.1

한편 산업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가 주로 광산 및 석유 분야에 편중되어 외국인 투자의 편중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투자유치액

구분	FDI유치액(US\$ 백만)	증감률(%)
2008년 1분기	2,873.9	-
2008년 2분기	2,543.3	-11.5
2008년 3분기	2,603.2	2.3
2008년 4분기	2,579.6	-0.9
2009년 1분기	2,266.2	-12.1
2009년 2분기	2,911.0	28.4
2009년 3분기	1,269.4	-56.4
2009년 4분기	917.0	-27.8

자료: Proexport, Banco de la Republica

국별 투자현황으로는 미국이 전체의 32.1%를 차지한 가운데, 앙길라 9.0%, 파나마 4.7%, 버뮤다 4.0%, 멕시코 2.8% 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주요 국별 투자현황

국 가	비중(%)
미 국	32.1
앙길라	9.0
파나마	4.7
버뮤다	4.0
멕시코	2.8
기타 및 석유, 재투자	47.4
합 계	100

자료: Banco de la Republica

2009년 미국 발 투자유치액은 총 US\$ 23.1억 달러를 기록(석유부분 제외), 2008년 US\$ 17.4억 달러에 비해 32.76% 상승하며 규모 면에서도 여전히 전체의 32.1%를 차지하면서 교역, 투자 양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앙길라, 파나마는 2009년에 비해 투자액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대 콜롬비아 주요 투자국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버뮤다, 코스타리카, 버진 아일랜드 등 국가 발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이할 만한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한편 앙길라를 비롯해 조세회피지역의 비율이 높은 점은 대다수의 기업이 조세감면 및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우회투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스페인과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국가들의 투자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특히 2009년 3월까지 대 콜롬비아 2위 투자국 위치에 올라있던 스페인은 2009년 4분기에만 7억 4천만 달러를 철수하였으며, 네덜란드는 2009년에만 18.6억 달러의 투자액을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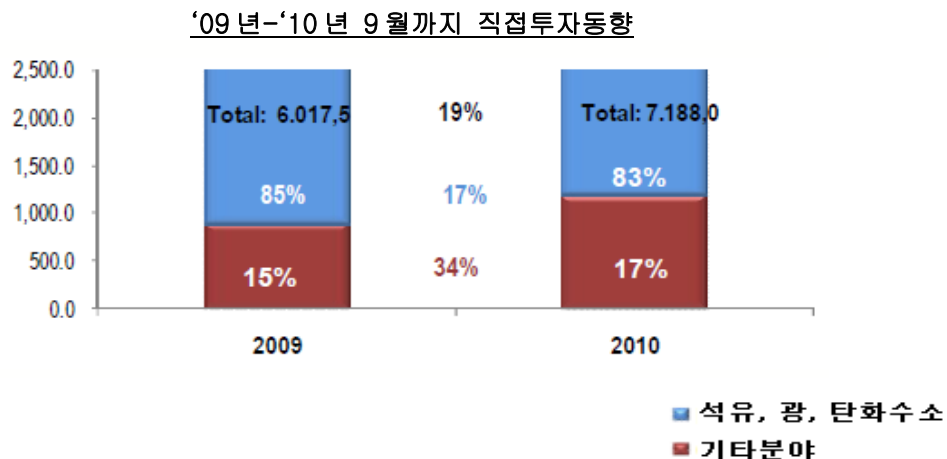
나. 투자 유치 긍정적 요소

최근 국제 원자재 및 자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석탄, 석유를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는 대표적인 자원부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 투자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광업, 석유 분야의 투자 증가는 최근 국가적 차원의 치안 안정세 및 지원안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도 대대적인 투자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밖에 GE Money, JP Morgan, Stanford Financial Group, Deutsche Bank 등 해외 금융기관 진출 및 인수합병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고타를 위시한 Cali, Medellín 등 주요 도시 굴절버스 시스템, 공항 현대화, 도로 등 기간 시설 확충 및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가 개시 되는 추세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법령 개정, 기업 소득세 감면, 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추진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 주요 투자기업 및 규모

대 콜롬비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출처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Ministr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2008년에는 105.8 억불이라는 사상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시현했다가 2009년에는 세계경제 침체로 32%가 격감한 72 억불로 축소 반전하였으며 '10년에는 '09년에 비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환전 수지 기준, 대콜 외국인 직접투자는 71 억불을 기록, 동기 60 억불 대비 19%가 증가하였다. 석유 및 광업 부분 투자는 총 51.2 억 달러에서 59.9 억 달러로 17%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기타 부분의 투자는 '09년 1월-9월간 8.88 억 달러에서 '10년 1월-9월간 11.91 억 달러로 34%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2011년 1월-2월 대콜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사례

- 세계 1위 재벌 멕시코 까를로스 슬림(Carlos Slim) 석유/광업 사업 투자 발표
 - 석유시추 및 기초공사 서비스 확대, 통신분야 진출 계획
- 중국투자은행, 태평양-대서양 잇는 물류 철도 프로젝트 드라이운하(Dry Canal) 투자 발표
 - 동 사업의 220km 구간 건설에 필요한 금액 투자 예정 밝힘
- 프랑스 호텔기업 Accor, 1,600 만 달러 투자, 보고타에 첫 호텔 건설.
- 에너지 제품 생산 및 유통 기업 Odin, 산타 마르타에 6 천 만 달러 투자
- 칠레 위생지 제조업체 CMPC 는 콜롬비아 Gachancipa 에 공장 개장 위해 7,400 만 달러 투자

3. 우리기업 투자동향

반군과의 오랜 대치로 인한 사실상 내전상태, 마약 제1위 수출국, 살인 및 납치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인해 콜롬비아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가 사실 그다지 좋지 못했지만, 전정권인 Uribe집권과 2010년 8월 새로 출범한 Santos 정권의 치안 안정정책과 내국기업 동등대우, 세제혜택, 과실송금 자유화, 간소화 된 투자절차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여러 가지 투자유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1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실업률 감소와 사회보안시스템, 그리고 2010년 말 홍수로 인한 피해복구 재건사업이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투자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게도 좋은 기회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우리 기업의 대 콜롬비아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1년 콜롬비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 이후 국내 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한 진출하고 있다. 2010년 9월 기준, 콜롬비아에는 삼성 LG전자를 비롯한 판매법인 3개사와 현대중합상사, 현대자동차 (이상 지점형태) 등 총 13개사가 진출해 있다.

진출업체	진출연도	진출형태	취급분야
현대종합상사	1980	지점	종합 (철강, 화학, 전기 등)
삼성전자	1997	판매법인	가전, 통신, IT 등
LG전자	1999	판매법인	가전, 통신, IT 등
레오콘	2004	판매법인	플라스틱레진류
세라젬	2005	판매법인	건강보조기구
현대자동차	2006	지점	상용자동차
TGL 콜롬비아	2006	지사	물류사업
SK Energy	2008	지사	광구탐사 입찰 참가
한국 타이어	2008	지점	타이어
대우 인터네셔널	2010	지사	종합상사
KT	2010	지사	통신망
메디슨에코넷	2010	법인	의료기기
현대건설	2010	지사	건설사업

2009 년 대 콜롬비아 한국의 투자는 2008 년 비교 48.9% 증가한 30 만 달러에서 50 만 달러까지 늘어났으며, 최근 5 년간의 투자 동향을 분석해 보면 무역 부문에 98.7%, 0.6%가 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대 콜롬비아 진출 한국 투자 현황

(단위 : US\$ 백만)

연도	2007	2008	2009	2010
금액	36.3	0.3	0.5	0.8

자료원 : KITA

2010 년 7 월 한국과 콜롬비아는 투자 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향후 한-콜간 무역 및 투자 규모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콜롬비아 외국인 투자유치 2대 원칙

- 내국인과 동등한 절차 보장
- 투자 부문 및 범위 무제한(방위산업, 유해물질 제조 등 일부 부문 제외)

나. 투자유치 제한 또는 사전 승인요 부문 (주재국 정부가 규정하는 공공이익 부문)

- 방위산업
-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 금융 및 보험
- 자원개발
- TV 중계 등

다. 투자 인센티브

당국 방침 확정 즉시 지급 게재 예정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상 구분

□ 기업종류 (5 가지 구분)

종류	설립요건 및 특징
주식회사 (S.A) Sociedad Anonima	- 구성원수 : 최소 5 명, 최대제한 없음 - 책임한계 : 출자금액 한도 - 외부감사 : 적용
유한회사 (S.L) Sociedad Limitada	- 구성원수 : 최소 2 명, 최대 25 명 - 책임한계 : 출자금액 한도 - 외부감사 : 적용
합자회사 (S.C) Sociedad Colectiva	- 구성원수 : 출자원(주주)수 - 책임한계 : 무한/유한 - 외부감사 : 미적용
출자금균등 합자회사 (S.C.M)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 구성원수 : 최소무한 1 명, 최대유한 25 명 - 책임한계 : 무한/유한 - 외부감사 : 미적용
주식합자회사 (S.C.A) Sociedad Comandita por Acciones	- 구성원수 : 최소무한 1 명, 유한 5 명, 최대제한 없음 - 책임한계 : 무한/유한 - 외부감사 : 적용

자료: 콜롬비아 무역투자관광진흥청(Proexport)

나. 투자형태별

- 콜롬비아 내 투자법 상 지사(Sucursal)과 대리인(Representante)으로 구분된다.

1) 지사

- 콜롬비아 내에는 외국기업과 외국기업지사로 나누어져 있다. 외국에 본사를 두고 그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세워진 기업을 외국기업이라 한다. 외국기업지사를 정확히 정의하는 콜롬비아 법은 없다. 하지만 만약 외국기업이 콜롬비아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내 지사를 의무적으로 설립 해야 한다.
- 설립: 본사는 회사의 법규, 실재, 대리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콜롬비아 내 지사를 설립하겠다는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점날짜와 대리인, 검표원 또한 결정 해야 한다. 모든 절차가 공개 서명으로 이루어 져야 함. 외국에서의 서류 인증은 직인을 날인이 있어야 하며, 공증 및 영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국의 언어 문서와 외교부 인증 번역가에 의해 이루어진 번역본을 지참해야 한다.

- 회사명: 콜롬비아 내 지사는 동일한 본사 명칭에 Sucursal Colombia '콜롬비아 지사'라고 명해야 한다.
- 자본: 본사는 일정한 자본을 지사에 콜롬비아 내 참여할 의무 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자본은 콜롬비아 중앙은행(el Banco de la República)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투자를 통해 정기적인 순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분배되지 않는 잔여 수익으로 보유할 수 있다. 회사를 정리하거나 자본금을 줄인 것로부터 비롯된 소득 등 콜롬비아에서 투자한 것을 매각한 모든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본사의 공정증서와 함께 지사는 배급, 공장, 상업인과 조립자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각 형태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함.

2) 대리인 또는 대표자

- 개인이나 기업은 일시적 업무 및 연락을 위해 일시적, 영구적으로 본사를 대표할 수 있다.
-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가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 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외국기업과 프로젝트간 관계를 촉진한다.
- 콜롬비아 내 지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은 기업 능력, 기업존재, 재정 확인 문서로 기업 유무를 보증한다.

다. 투자 주체 별

1) 단독투자

-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개인회사 등을 설립하여 콜롬비아에서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콜롬비아에 설립된 기존의 100%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자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100%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 100% 외국투자기업은 콜롬비아 법률에 따른 법 인격이 주어져서,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다.

2) 합작투자

- 컨소시엄: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계약의 낙찰선정, 체결 그리고 실행을 위해 공동으로 하나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와 계약서에서 파생되는 의무들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 그 결과, 제안과 계약 진행상에 나타나는 행동, 사건, 생략들은 모든 파트너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라.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1) 선호형태 및 사유

□ 진출 선호 형태

콜롬비아 내 대부분의 외국인투자자들은 유한 회사와 주식회사 및 지사 형태를 취함.
지사 형태는 광업과 자원 투자 형태와 환전 혜택 서비스에 적합함.

□ 투자형태별 장단점

- 유한회사
 - 장점: 최소 2 명의 구성원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감사가 이루어 지지 않음.
 - 단점: 사회적 책임이 제한되지만, 노동 및 과세 부분은 제한되지 않는다.
- 주식회사
 - 장점: 콜롬비아 내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를 시작함. 그들의 주주의 책임 제한이 없음.
 - 단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최소 5 명의 주주가 필요함.
- 외국인 기업 지사
 - 장점: Inversión Suplementaria al Capital Asignado 라는 계좌를 가질 수 있으며, 이 계좌는 본사와 지사간에 부과세 없이 자본이동이 가능하다.
 - 단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콜롬비아 내 모든 기업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마.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Sucursal de Sociedad Extranjera					
단계	구분	필요서류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
1	구비서류	- 기업소재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사업자 등록증 - 현지 변호사 위임장(기업명 등록) - 모회사 정관 - 회사 결의문 (기업목적, 출자금, 소재지, 영업기간, 사업종결 및 철수사유, 현지대표자 및 권한, 외부 감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기)	Apostilla 기준 충족	- 콜롬비아 외무부 인정 정식 통역사에 의한 스페인어 공식 번역본 - 콜롬비아 상공 회의소에 제출	2~5 일
2	공증	구비 서류와, 콜롬비아 회사 대리인의 서명	공증은 세무 등록증 또는 납세자 등록 번호를 받을 때 필요함	콜롬비아 상공회의소	2 일
3	해당직위 및 수락서	발기인, 현지 대표, 이사회, 외부 감사기관 등 해당자 직위수락서	실명, 직위, 신분증, 사인이 있어야 함	본사	

단계	구분	필요서류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
4	RUT (Registro Unico Tributario) 세무등록증	- 설립 공증서 - 수락서 - 회사가 지불할 세금과 납세 서명서	세무등록증은 콜롬비아내 모든 상업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함. 대리인이 등록가능.	DIAN	1 일
5	상공회의소 등록	회사 총 자산의 0.7% 를 납입 해야 함	매년 갱신 해야 함.	상공회의소	
6	명부등록	주주명부, 주주총회명부, 이사회, 관련 재무제표 서류 등		상공회의소	
7	은행계좌 개설	기업명 명의 구좌개설 후 투자 출자금 납입		은행	1 일
8	외국인투자등록 (콜롬비아 중앙은행)	자본은 콜롬비아 중앙은행 (el Banco de la República)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관련 서류	콜롬비아 중앙은행	1~2 일

바.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 법무 법인/회계 법인

- BRIGARD Y URRUTIA
 - CARLOS URRUTIA : currutia@bu.com.co
 - CARLOS UMAÑA : cumana@bu.com.co
 - SERGIO MICHELSEN : smichelsen@bu.com.co
 - 사이트 : www.bu.com.co
 - 이메일 : byua@bu.com.co
 - 주소 : Calle 70 A No. 4-41
 - 전화번호 : +(57)(1) 744 2244
 - 팩스 : +(57)(1) 310 0609, +(57)(1) 310 0586
- DG&A – Abogados
 - FELIPE GARCIA ECHEVERRI : fgarcia@col-law.com
 - MARIA DEL ROSARIO GÓMEZ JARAMILLO : mrgomez@col-law.com.
 - 사이트 : www.col-law.com
 - 이메일 : dga@col-law.com
 - 주소 : Carrera 7 No. 74-21, Piso 6 Bogotá, Colombia
 - 전화번호 : +(57)(1) 217 0800
 - 팩스 : +(57)(1) 212 0260
- ESPINOSA ABOGADO ASOCIADOS
 - CARLOS ANTONIO ESPINOSA PÉREZ
 - BEATRIZ TERESA ESPINOSA PÉREZ
 - ALEJANDRO BUSTOS RUBIO
 - DARÍO FIERRO LEÓN
 - JUAN MIGUEL CALDERÓN GALLÓN
 - 사이트 : www.espinosaasociados.com
 - 주소 : Carrera 10 No. 97 A-13 Torre A, Of. 701 Bogotá, Colombia
 - 전화번호 : +(57)(1) 642 8577

6. 노무관리

가. 고용

콜롬비아는 특별한 고용 절차는 없으며 신문 광고, 대학 추천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고용 절차가 끝난다. 콜롬비아 노동법상 만 18세 이상이면 자유롭게 고용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노동 희망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신청으로 노동관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노동이 가능하다.

고용계약서에는 업무의 종류와 업무장소, 급여수준 및 지불방법 등 근로조건, 그리고 수습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콜롬비아에서는 2개월까지 수습기간이 인정되며 수습기간 중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

콜롬비아는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해고 등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 불법해고 시 퇴직금보다 많은 벌금을 물리고 있어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경우 전문 노무담당 고용, 혹은 전문 변호사와 시간제 계약 등을 통해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인력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제3위의 인구 규모를 보이며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비숙련 노동력은 풍부하고 임금도 저렴한 반면, 전문 기술 보유자, 영어 구사자 등 기능 보유자의 경우 높은 보수를 요구하고, 대상자 물색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 임금

2009년 9월 콜롬비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은 515,000페소 (US\$271.62/US\$1=COP1896.2)이며, 교통보조비는 61,500페소 (US\$32.43/US\$1=COP1896.2)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연말에 해당 연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 정부·기업·노조대표 간 협상을 갖고, 협상결과를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권한은 최종적으로 정부에 있다.

직종별, 직위별 임금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비 숙련 노동자의 경우 월 200달러 수준에서 고용이 가능하나, 전문기술 보유자, 혹은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자급의 경우 부문별로 월 2,000~3,000달러 수준, 그리고 중견기업의 전문 경영인의 경우 월 1만 달러 이상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에서 근로자 고용 시,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 외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세(사회 보장 제도 참조) 납부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 외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보조, 다수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보험 등이 의무화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종업원 급여의 50% 정도가 임금 외 비용으로 추가로 소요된다.

임금 외 혜택과 관련, 콜롬비아 근로자는 연간 근무일 기준 15일의 휴가를 보장받으며, 주말을 감안하면 3주, 이를 연휴와 연결하면 거의 1달 가까이 휴가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근로자 고용 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 외국인 고용

종업원 1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전체 근로자의 10% 이내이다. 기업 특성상 법정한도 이상의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콜롬비아 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동일사업장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콜롬비아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노동조건, 급여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차별대우가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콜롬비아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 보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마. 법정 인건비 구조

기본월급 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으로는 유급휴가, 퇴직금, 상여금, 사회보장세, 공공기금 등이 있다.

- 유급휴가: 매년 직원에게 working day 15일 제공, 남은 휴가는 연말에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 퇴직금: 기본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1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 1회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 발생이자: 퇴직금 1달 분에 대한 이자 12%를 퇴직금과 함께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지급한다.
- 상여금: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1회 또는 2회에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법정 사회보장세
 - 연금: 납부요율은 총 표준 소득 월액의 17.00%로 본인이 4.25%, 고용주가 12.7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한다. 또한 연간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 4~15배 사이인 경우 추가로 1%를 연금 공단에 의무적으로 기부하게 되어 있다. 이때에도 사용자와 본인 부담이 위와 동일하다.
 - 건강보험: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2.50%로 본인부담이 4.00%, 사용자가 각각 8.50%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한다.
 - 산재보험: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며 보험요율은 업종별 요율(보험사 고시)에 따라 소득의 0.52222~6.96% 사이에서 납부한다.
- 공공기금(가족보조기금): 모든 기업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족보조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월 급여의 9%를 납부해야 한다.

구 분	고용주 (%)	피고용주 (%)	소 계 (%)
의료보험	8.5	4.0	12.50
연금보험	12.75	4.25	17.00
산재보험	0.52	0	0.52
공공기금	9.0	0	9
합 계	30.77	8.25	39.02

바. 법정 근로시간

-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초과 근무 시 지급률은 주, 야간, 휴일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1일 2시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다. 또한 빈번하고 지속적인 연장 근무 시에는 고용주가 사전 또는 사후에 노동부에 연장근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평일 주간: 시간당 임금 +임금의 25% 추가지급
 - 평일 야간: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지속 야간근무자: 시간당 임금 +임금의 35% 추가지급
 - 휴일 주간: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7. 조세제도

가. 조세제도

콜롬비아에서는 세금 부과 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세 (국세), 주 정부세 및 시 정부세 등 3가지 형태의 세금이 부과된다. 콜롬비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기업도 상기 조세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요세금으로는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수입관세, 사회보장세 (연금, 보험) 등의 세금이 부과 되고 있으며, 제반 세금의 징수 등 세무업무는 세무관세청 (DIAN: 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는 상기 주요 세금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특별입법을 통한 한시적 세금제도를 보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98년 말 금융시스템 위기극복 및 Armenia 지진 피해 복구 자금 확보를 위 한 특별세 (은행거래세) 0.2%가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된 적이 있 으며, 아울러 정부의 게릴라와의 평화협상 진전에 따라 게릴라의 사회복귀 등 게릴라 문제 해결 에 소요되는 재원을 평화세 (Bono de Paz) 명목으로 2000년부터 징수하고 있다.

나. 주요세금

1) 법인소득세

기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기업매출액에서 제비용, 환급, 할인 등을 공제하여 자 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세율은 35%이다.

한편 기업의 투자 확대, 특정 산업 진흥 등의 목적으로 법인 소득세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할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의 법인소득세 면제 (약정기간 중)
- 기업의 수출활동에 따라 환급 받은 관세액의 35%까지 법인세 납부금 할인

- 제조업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자본재 및 컴퓨터 구입, 구매 확정 방식 리스 계약으로 자본 재 구입, 기초산업용 기계류 구입 시 납부된 부가가치세 부분만큼 소득세에서 할인
- 콜롬비아 법인의 해외수익에 대해 외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에서 할인

2) 기회소득세

정상적인 재화 및 서비스 판매 등 영업을 통한 수익이 아닌 특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35%이다. 기회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수익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자산매각, 기업청산 등을 통한 소득
- 유산, 증여, 기부 등 일방적인 소득
- 복권, 경마 등을 통한 투기성 소득

3) 개인소득세

기업 활동이 아닌 피고용자로서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큰 차별을 보이고 있다.

- 1,100천 페소 미만: 급여의 0.09%
- 1,200천~1,250천 페소: 급여의 2.04%
- 2,001천~2,050천 페소: 급여의 9.80%
- 3,001천~3,050천 페소: 급여의 16.15%
- 4,001천~4,050천 페소: 급여의 19.34%
- 5,001천~5,050천 페소: 급여의 22.4%

4) 배당소득세

외국 거주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7%이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외국 투자자의 이윤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 수익을 콜롬비아에 재투자할 경우 소득세 부과를 보류하며, 재투자 기간이 5년을 넘을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 하였다.

5) 송금세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무형의 상품을 수입하여 발생하는 대금 지불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7%이고, 주요 부과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커미션, 로열티
- 외국영화 수입방영 수입 중 외국 수출업체 지분
- 컴퓨터 S/W 로열티

예외적으로 배당 소득세는 이미 7%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송금세는 면제되며, 아울러 외국 차 입금에 대한 이자 송금 시, 그리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술 자문 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 송금 시 에도 송금세가 면제된다.

6)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일반 상품에 대해 16%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의료, 교육, 농산물 등의 품목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항공권에는 10%가 부과되는 등 품목 별로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전 Pastrana 정부에서 임기 중(1998~2002) 부가세 16%를 12%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7) 기타

기업의 계약 공증, 등록 등에 인지세 및 등록세 등이 부과된다. 인지세는 4,890만 페소를 넘어 서는 거래 중에서 서류 공증, 관공서 인증, 은행 신고 등이 수반되는 거래에 대해 거래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해당 공증 기관이 수납 기관이 된다. 한편 개인의 부동산 등록 (가치의 0.5~1%), 기업의 상공회의소 등록 (자본금의 0.3~0.7%)시 등록세가 부과된다.

다. 기타세금

1) 영업세

지방 정부에서 지역 상공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지역마다 세율, 납기 등이 상이하며, 대체로 반기별로 영업수익의 0.2~1.0%의 세금이 부과된다.

2) 재산세

행정 구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정부 산출 가치 (공시지가와 유사) 기준 지역 별로 0.1~1.6%까지 부과된다. 재산세는 연간 1회 부과되며 일정기한 내 납부하면 최고 15%까지 세금 할인이 이루어진다.

3) 자동차세

지방 정부에서 자동차 번호판 발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 보유세로, 125cc 미만 이륜 자동차, 트랙터, 건설 장비, 영업용 자동차 등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1회 세금이 부과되며 일정 기한 내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 정부에서는 자동차 모델, 연식, 배기용량 등을 기준으로 차량별 기준 가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준 가격별 세율을 보면 2,000만 페소 미만 차량에 대해 1.5%, 2,000만~4,500만 페소 차량에 2.5%, 그리고 4,500만 페소 이상 차량에 대해 3.5% 세금이 부과된다.

4) 기타

이 외 지방정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가솔린, 기타 유류제품 등에 국세 이외의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보고타 시 지역에서 부과되는 가솔린 지방세는 20% 수준에 이른다.

8.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콜롬비아는 자유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중남미국가 중 비교적 건실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유망수출시장이다.

80년대 중남미 외채 위 기에도 불구하고, 채무 모라토리움 선언이나 하이퍼-인플레이션 경험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 면이기도 하지만) 마약자금의 유입으로 달러화가 풍부해 안정적 환율운영이 가능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콜롬비아에는 연간 US\$ 10억 내외의 마약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부분은 돈세탁을 위해 무역 및 투자형태로 콜롬비아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콜롬비아 마약 달러는 밀수, 그리고 건축 및 금융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94년 이후 당시 Samper 대통령의 마약단속과 함께 콜롬비아 경기가 냉각된 것은 콜롬비아의 지하경제 의존도를 반증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콜롬비아 금융시스템은 재무부와 함께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은행 (Banco de la Republica)이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일반 금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는 은행감독원 (Superintendencia Bancaria), 그리고 은행 이용자들에게 은행의 신뢰를 보증하는 금융보증기금 (FOGAFIN: Fondo de Garantias de las Instituciones Financieras) 등이 설치되어 있다.

외환의 경우 중앙은행이 콜롬비아 금융시스템 전반 및 외환 시장을 감독하고 있다. 자유 변동 환율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필요 시 중앙은행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폐 발행 권한을 통해 통화 공급을 조절하고, 재할인율을 통해 시중 금리를 조정하며, 아울러 이자율 및 외환 보유고 등을 활용, 페소화의 환율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콜롬비아는 4,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 인구 측면에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제3위의 시장이며,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와 함께 안데안 공동 시장 (Comunidad Andina)을, 멕시코와는 G-3협정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이들 협정국을 포함할 경우, 인구 2억의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콜롬비아 수입 시장 규모는 '92년 수입 개방 이후 지속 증가세를 기록, 현재 연간 US\$ 150억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주 수입품목은 자본재 및 공산품 소비재이며 주 수입원은 미국 (42%), 중남미 (23%), EU (16%) 등이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은 아직 크지 않다.

나. 시장특성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건실한 경제 구조를 유지하며, 80년대 중남미 외채 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움 위기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은 나라이다. 부정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마약 자금 유입으로 달러화가 풍부하여 안정적 환율 운영이 가능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안데안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산업 기반을 보유한 국가로, 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타이어, 철강, 화훼류, 커피 등의 산업은 수출 산업으로 인정될 만큼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재 및 내구성 소비재의 수입 의존도는 90%에 이른다. 지역별, 계층별 소득 격차가 심각하여, 상품 시장의 경우도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양분되어 중질, 중가품 시장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가 시장에서는 선진국 브랜드 제품이, 서민을 상대로 한 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산 상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지하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수입품의 30% 내외가 밀수품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로 오디오, 비디오, 의류, 신발, 주류, 담배 등이 밀수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 외 일반 상품들도 밀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밀수 단속의 부정적 효과, 정부 관료의 밀수 결탁 등 부패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마다 San Andresito라는 대규모 밀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하 경제의 또 다른 모습은 마약 달러의 유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콜롬비아에는 연간 US\$ 10억 내외의 마약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 부분은 돈 세탁을 위해 무역 및 투자 형태로 콜롬비아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롬비아 마약 달러는 밀수, 건축 및 금융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94년 이후 당시 Samper 대통령의 마약 단속과 함께 콜롬비아 경기가 냉각된 것은 콜롬비아의 지하 경제 의존도를 반증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다. 무역 거래의 특징

일반 무역 거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92년 전면적 수입 개방 이후 일반 소매점까지 수입에 가세하여 기존의 수입상→도매상→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가 붕괴되었고 따라서 규모 있는 수입상 발굴이 쉽지 않다. 그리고 높은 금융 비용 및 세금 포탈의 목적으로 신용장 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Under Value에 대한 요청도 일반적이다.

또한 현지인들의 수입 경험이 일천하여 한국에 대해 아직 지리적, 심리적 원격성을 느끼고 있고, 단순 서신, 팩스 등으로 거래 성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방문 및 대면 상담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대부분 품목에 있어 가격 경쟁은 치열하지 않은 반면 소량 주문이 일반화되어 있어 콜롬비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초기 소량 주문을 수용하고 점차 수입상을 키워가는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물가정보

(1 US\$ = 1.980 COP / 2010년 5월 기준)

구분	항목	가격(COP)
식품류	쌀 1kg	2,500
	계란 12개	4,500
	쇠고기 등심 1kg	25,000
	돼지고기 등심 1kg	19,200
	우유 1,000ml (500ml없음)	3,000
	식용유 1L	8,000
	생수 1L	2,000
	맥주 (하이네켄 330ml, 6팩)	19,80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3,00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세트)	12,000
	김치찌개 1인분	25,0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3,76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8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25,00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75,600,000
	무연휘발유 1L	1,930
	자동차 등록비	1,200,0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2,217,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5,160
	Transmilenio 기본요금 (1구간) -> 보고타 내 지하철 없음	1,600
	시내버스 기본요금	1,300
	택시 기본요금	3,20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270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2,00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200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42,0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4,500,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0,000,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0,000,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0,000,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450,0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350,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2,50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1,00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10,0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86일
	연간 국경일수	32일
	주5일 근무 여부	주5일시행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2,000

3. 바이어 발굴

현지 바이어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법은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 1) 현지 광고
- 2) 현지 전시회 참가
- 3) 세일즈 출장
- 4) 바이어 Directory 및 DB 구입을 통한 명단 확보

1, 2, 3번의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 어느 정도 관련시장 동향을 파악 후 진행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효과적인 바이어 발굴을 위해 활용 가능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재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료 Directory 및 DB를 활용하는 것이며 모두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현지 관련 산업 협회 접촉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영어 구사가 미숙한 관계로 영어로 된 이메일 송부 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가. 현지 주요 Directory 리스트

1) LOS DATOS.COM

- 발행사: LOS DATOS.COM LTDA.
- 금액: 연 US\$ 400
- 형식: CD
- 주 수록자료: 주요 현지업체 약 10,000개사 정보
 - 최근 5년간 수입·수출실적
 - 인근 라틴국 수입실적
 - 거시경제지표
 - 재무제표
 - 관세율
- 전화: 571-530-5295
- 팩스: 571-622-1941
- 홈페이지: www.losdatos.com
- E-mail: comercial@losdatos.com
- 담당자: Mrs. Carolina

2) BASE DE DATOS

- 발행사: 보고타 상공회의소
- 금액: 적립식 US\$100, 회당 US\$3
- 형식: 인터넷
- 주 수록자료: 보고타 상공회의소 등록 28만6,000개 업체
 - 업체별 기본데이터 (주소, 연락처 등)
 - 수입·수출상
 - 재무제표
- 전화: 571-594-1000 (ext. 2735)

- 팩스: 571-383-0690 (ext. 2733)
- 홈페이지: www.ccb.org.co
- E-메일: infoemp@ccb.org.co
- 담당자: Mrs. Norma Martínez

3) AFINE

- 발행사: AFINE S.A.
- 금액: 연간 US\$ 4000
- 형식: CD-ROM
- 주 수록자료: 현지업체 1만4,000개사
 - 업체 기본데이터
 - 산업별 업체정보
 - 재무제표
 - 업종별 선두업체 정보
 - 업체 분석정보
- 전화: 571-6367904
- 팩스: 571-2565655
- 홈페이지: www.afine.com.co
- E-메일: ctellez@afine.com.co
- 담당자: Mr. Camilo Téllez

4) BACEX

- 발행사: 산업부
- 형식: 인터넷
- 금액: 연 US\$ 180 연
- 주 수록자료: 1995년 이후 수출·수입상 정보
 - 업체 기본정보
 - 국별 수출정보
- 전화: 571-606-7676 (ext. 1291)
- E-메일: webmaster@mincomercio.gov.co
- 홈페이지: www.mincomex.gov.co
- 담당자: Mrs. Doris Cruz

5) BYINGTON

- 발행사: BYINGTON COLOMBIA S.A.
- 금액: 연 US\$ 500연
- 형식: CD-ROM
- 주 수록자료: 현지업체 10,000개사 기본정보
 - 업체 기본정보
 -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 재무제표
 - Activos
- 전화: 571-325-5500

- 팩스: 571-349-7300
- 홈페이지: www.byington.net
- E-메일: servicios@byington.net
- 담당자: Mr. Diego Arboleda

나. 현지 주요 협회 리스트

1) ASOCIACIÓN NACIONAL DE INDUSTRIALES – ANDI (공업협회)

- 주소: Carrera 13, 26-45, piso 6, Bogotá.
- 전화: 571-323-8500
- 팩스: 571-281-3188
- 홈페이지: www.andi.com.co
- E-메일: presidencia@andi.com.co, comercial@andi.com.co
- 협회장: Mr. Luis Carlos Villegas E.

2) FEDERACIÓN NACIONAL DE COMERCIANTES – FENALCO (경제인협회)

- 주소: Carrera 4, 19-85, piso 7, Bogotá.
- 전화: 571-350-0600 / 팩스: 571-350-9424
- 홈페이지: www.fenalco.com.co
- E-메일: fenalco.comresidencia@andi.com.co, comercial@andi.com.co
- 협회장: Mr. Luis Carlos Villegas E.

3) ASOCIACIÓN COLOMBIANA DE MEDIANOS Y PEQUEÑOS INDUSTRIALES – ACOPI (중소기업협회)

- 주소: Carrera 15, 36-70, Bogotá
- 전화/팩스: 571-320-4783, 4, 5
- 홈페이지: www.acopi.org.co
- E-메일: presidente@acopia.org.co
- 협회장: Mr. Juan Alberto Pinto S.

4) ASOCIACIÓN NACIONAL DE EXPORTADORES – ANALDEX (수출협회)

- 주소: Carrera 10, 27-27, INT. 137, OF. 902, Bogotá.
- 전화: 571-342-0788 / 팩스: 571-284-6911
- 홈페이지: www.colombiaexport.com/analdee.htm
- E-메일: analdex@colomsat.net.co
- 협회장: Mr. Javier Díaz Molina.

5) ASOCIACIÓN DEL SECTOR AUTOMOTOR Y SUS PARTES – ASOPARTES (자동차공업협회)

- 주소: Carrera 28, 45^a-21, Bogotá.
- 전화: 571-268-5901, 268-4319

일부 거래알선 사이트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유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접할 수 있는 자료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아래 사이트들은 어디까지나 바이어 발굴 및 거래를 위한 보조 도구나 기초 조사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 비즈니스 관련 추천 웹사이트

1) 콜롬비아 포털 사이트 모음

- www.conexcol.com
- www.colombialink.com
- www.uol.com.co
- www.terra.com.co

2) 신문, 잡지

- El Tiempo지: www.eltiempo.com
 - 콜롬비아 최대 종합 일간지인 El Tiempo지 홈페이지로서 주요 기사 검색이 가능하다.
- Portafolio지: www.portafolio.com.co
 - 콜롬비아 최대 종합 일간지인 El Tiempo지의 경제 분야 전문지로서 홈페이지에서도 주요 기사 검색이 가능하다.
- La Republica지: www.republica.com.co
 - 콜롬비아 제2의 종합 일간지이지만 경제 분야에 무게를 둔 기사 및 기획 기사를 다수 다루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요 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 Semana지: www.semana.com
 - 시사 정치 중심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Semana지 홈페이지로 회사 소개, 구독 안내와 함께 지난 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Dinero지: www.dinero.com
 - 경제 경영 중심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Dinero지 홈페이지로 회사 소개 및 구독 안내와 함께 지난 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El Colombiano지: www.elcolombiano.com.co
 - 콜롬비아 제2도시 메데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간되는 종합일간지인 El Colombiano지 홈페이지로 주요 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다.

3) 통관제도

-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www.dian.gov.co
 -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홈페이지로 각 세무 행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세금별 납부일자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99년 8월부터 통관 양식의 전산화로 수입 신고 등을 이곳에서 할 수 있으나, 전산 작업은 통관 업체별 접근 코드를 입력해야 작업이 가능하다.

4) 시장조사

- 중앙은행: www.banrep.gov.co
 - 콜롬비아 중앙은행 (Banco de la República) 홈페이지로 고시환율, 이자율 등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은행 발간 자료의 일부도 입수가 가능하다.
- 경제개발원: www.dnp.gov.co
 - 콜롬비아 경제개발원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홈페이지로 경제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수록. 서비스하고 있다.
- 중소기업 진흥원: www.microempresas.com.co
 - 콜롬비아 중소기업 진흥원 (Corporación para el Desarrollo de las Microempresas) 홈페이지로 주요 중소기업체 명단 및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 수출투자진흥청: www.proexport.com/home.htm
 - 콜롬비아 수출투자진흥청 홈페이지로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외국 수입상을 위한 콜롬비아 수출업체 디렉토리를 수록하고 있다. 참고로 과거 투자진흥청 (Coinvertir)은 Proexport와 병합되어 대 콜롬비아 투자유치를 전개하고 있다.

5) 산업 및 기업

- 콜롬비아 YELLOW PAGE: www.paginasamarillas.com
 - 콜롬비아 YELLOW PAGE를 발간하고 있는 PUBLICAR사 홈페이지로 YELLOW PAGE 수록, 업체 검색과 품목별 검색이 가능하며, 동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인근 중남미국 YELLOW PAGE도 수록 하고 있다.
- 인터넷 디렉토리: www.indexcol.com.co
 - 콜롬비아 연금, 보험 관리 금융회사의 하나인 Colpatría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디렉토리로 콜롬비아 주요 기업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별 연락처 상품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로 연결시켜 준다. 아울러 콜롬비아 주요도시의 일기 예보도 서비스하고 있다.
- 포장 산업 디렉토리: www.colombiapack.com
 - 콜롬비아 Yellow Page 발간업체인 Publicar S.A.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콜롬비아 포장 산업 연보 형태를 띤다. 포장기계, 자재, 서비스 등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업체별, 상품별 검색이 가능하다.
- 교육 디렉토리: www.mundoeducativo.com
 - 콜롬비아 Yellow Page 발간업체인 Publicar S.A.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콜롬비아 교육 산업 연보 형태를 띤다. 교육서비스, 기자재 등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지역별, 기자재 상품별 검색이 가능하다.
- 그래픽 디렉토리: www.colombiagraph.com
 - 콜롬비아 Yellow Page 발간업체인 Publicar S.A.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콜롬비아 그래픽 산업연보형태를 띤다. 그래픽 관련기계, 자재, 서비스 등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업체별·상품별 검색이 가능하다.

- 수출산업 디렉토리: www.colombiaexport.com
- 콜롬비아 Yellow Page 발간업체인 Publicar S.A.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콜롬비아 수출 업체 디렉토리를 수록하고 있으며, 업체별·상품별 검색이 가능하다.

6) 통계, 자료

- 정부기관: www.sinpro.gov.co
- 알파벳 순으로 모든 정부 기관 홈페이지 목록을 제공하며, 해당 기관별 역할 및 민원 수속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증권회사: www.corredores.com
- 콜롬비아 주요 증권 회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로 간략한 경제, 금융, 증권 소식, 주가 지수, 환율, 이자율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은행연합회: www.asobancaria.com
- 콜롬비아 은행연합회 (Asociación Bancaria de Colombia) 홈페이지로 은행연합회 기능 소개, 회원소개, 그리고 연합회 발간 경제보고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 보고타 증권 시장: www.bolsabogota.com.co
- 보고타 증권 시장 홈페이지로 기능 소개와 현황, 업체 정보, 주가 등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하고 있다.
- 메데진 증권시장: www.bolsamed.com
- 콜롬비아 제2도시인 메데진 증권시장 홈페이지로 수요서비스 소개와 현황, 업체정보 등을 수록, 서비스하고 있다.
- 상공회의소 연합회: www.confecamaras.org.co
- 콜롬비아 상공회의소연합회 (Confecamaras: Confederación Colombiana de Cámaras) 홈페이지로 발간자료 안내, 회원사 정보, 인콰이어리 정보, 전시회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 은행감독원: www.superbancaria.gov.co
- 콜롬비아 은행감독원 (Superintendencia Bancaria) 홈페이지로서 감독원 소개 및 주요 기능 설명, 그리고 금융부문 주요 통계, 지표 등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 통계청: www.dane.gov.co
- 콜롬비아 통계청 (DANE: Departamento Administrativo Nacional de Estadística) 홈페이지로 각종 사회, 경제, 생산, 교역 등 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나 최근 통계가 수록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7) 유통

- www.alkosto.com.co
- www.virtualexito.com
- www.carulla.com
- www.superley.com.co
- www.cadenalco.com.co

- www.ley.com.co
- www.pomona.com.co
- www.corabastos.co
- www.tia.com.co

8) 거래 알선 사이트

- www.fenalco.com.co
 - 제조업, 유통업, 수출입상 등 그룹군별로 검색
 - 영어로 동시 검색 가능
- www.indexcol.com.co
 - 콜롬비아 최대의 업체정보 제공
 - 영어 동시검색 가능
- www.ccb.org.co
 - 기업체 일반정보 이외의 신용 정보(자본금, 매출액, 자산현황 등) 제공
 - 일부 검색(신용정보 등)은 유료 정보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금기사항

콜롬비아는 서구 사회의 일원으로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도 활발한 편이다. 따라서 정계에 여성 장차관도 많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여성후보가 30% 가까운 지지를 받기도 한다. 한국업체가 콜롬비아 업체와 상담할 때 책임자로 여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경우 상대를 책임자로 존중하는 자세와 함께 신사로서 여성에 대한 에티켓이 요구된다.

콜롬비아는 전국민의 90%가 가톨릭 신자로 구성된 가톨릭 국가임에도 자유로운 사회제도,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의 지위상승 등의 요인으로 독신, 이혼녀, 미혼모, 별거 등 다양한 결혼 형태를 보유한 여성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연령 및 결혼여부, 배우자 직업 등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상대를 당혹하게 하는 것으로 금기시된다.

콜롬비아는 마약, 치안 불안, 밀수, 빈곤 등 많은 사회문제를 보유하고 있다. 같은 콜롬비아 국민끼리의 대화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일례로 콜롬비아의 치안불안에 대한 CNN 보도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을 지나치게 확대 보도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처음 만나는 상대와의 대화 시, 콜롬비아의 치안불안, 정치상황 등에 대한 선부른 의견 개진은 삼갈 필요가 있다.

나. 수입관행

콜롬비아 수입 시장은 오랜 기간 선진국 기업의 현지 대리점을 통한 수입이 관행화되어 왔으며, 현지 수입상들의 외국에서의 직수입은 '92년 수입 개방 이후 이루어져 역사가 짧다.

기존 수입 대리점들은 같은 근무 시간대에 동일 언어로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주문을 접수하고, 기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며, 문제 발생 시에도 A/S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 실정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업체가 상담에 임할 경우 많은 시행 착오가 예상된다. 우선 가격 조건은 당연히 한국 제품이 탁월하므로 수입상의 구미를 당기지만, 상당수 수입상들은 신용장 개설이니 통관이니 하는 절차에 문외한인 경우가 있으며 아울러 시간대 차이 및 언어의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 KBC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물품상 착오나 하자가 발생하고, 이에 수출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선 기본적으로는 한국 수출업체에서 콜롬비아 시장을 대체시장 내지는 일회용 시장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래 유망시장으로 키워가겠다는 의지와 여타 시장과 동등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물품 수출 시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한 문제발생 시 해결비용까지 감안한 가격을 제시하고, 향후 수입상이 불만을 표출하면 이를 해결해 주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콜롬비아 시장에 진출, 지리적 인접성 및 진출 역사를 바탕으로 현지 수입상들과 외상 조건 거래를 일반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수입상은 한국업체와 상담 시 경직된 지불 조건 요구를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업체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들 선진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 있지 않으며, 외상 거래는 위험한 시도로 보인다. 따라서 초기 거래에서는 신용장 또는 일정 부분 사전 송금 등 대금 지불의 확보를 고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거래를 통해 수입상의 신용이 확인될 경우 시장에서 수입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상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경우 수출 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거래 시 유의사항

콜롬비아 국민은 근본적으로 낙천적인 라틴 문화를 이어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질은 무역 거래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제품품질 및 가격에 만족하면 자신의 자금능력, 무역 및 통관에 대한 지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거래에 동의하고, 그러다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또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거래상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구두상 합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상담에 임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법적 효력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합의사항은 문서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첫 거래일 경우 물품대금이 확보될 때까지 물품의 생산 및 구매는 미루어 둘 필요가 있다.

많은 한국업체에서 KBC에 요청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바이어가 상담 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지 출장을 통해 바이어와 상담하고 바이어가 “언제까지 대금을 송금할 테니 지금부터 물품을 준비해 달라”는 약속에 따라 물품을 생산해 놓았는데 송금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KBC에서 접촉해 보면 수입상으로부터 “아직 시장성을 검토하고 있다” 내지는 “수입대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애매한 답변을 듣기 일쑤다. 한국업체의 주의가 요청된다.

또한 가지 한국업체에서 콜롬비아 시장진출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콜롬비아인들은 거래 선을 쉽게 바꾸지 않는 보수적 성격을 보이며, 또한 대부분 국민이 아직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한국에 대해 지리적, 문화적 원격성을 느끼고 있어 한국과의 첫 거래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날아온 거래제의 팩스, 서신, 카탈로그 등에 수입상들이 큰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기관인 KBC에서 주선한 대면 상담에는 수입상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므로 시장 조사와 수입상 조사를 통해 콜롬비아 시장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장을 통한 방문 상담을 추진해 볼 만하다. 아울러 방문 시 수입상 식사초대, 간단한 선물 증정으로 친분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일단 친분관계가 구축되면 여타 경쟁국 제품 또는 경쟁업체의 거래 제의에도 움직이지 않는 확실한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상담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현지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 시 과잉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 신용거래 및 독점대리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거래 및 대리점 영업은 콜롬비아 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이지만 초기 거래에서는 일단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수요량을 취합 할 수 있는 대리점의 선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여러 업체와의 거래 경험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하고, 상대의 신뢰도가 확인이 된 이후에는 수입상의 외상거래 요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송장(Invoice)상 물품대금의 Under Value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상의 Under Value 요청에 대해 밀수가 만연된 현지실정을 감안, 수출업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Under Value 목적상, 그리고 현지의 높은 금융 코스트로 인해 신용장보다는 T/T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 일부 T/T 송금, 그리고 나머지 잔액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는 수입상도 있다.

아울러 세관의 부패로 수입물품이 세관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아울러 주요 항구에서 보고타 시까지 안데스 산맥을 넘어 500여Km를 내륙 운송하는 도중 화물 도난 사고 위험이 크므로 운송 상의 책임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이주정착 가이드

가. 생필품

식품 이외의 생필품은 1990년 수입 개방 이후 외제 상품이 대거 현지에 반입되어 구입상 어려움은 별로 없다. 주로 EXITO, CARULLA, POMONA, CAFAM, OLYMPICA, CARREFOUR 등 대형 하이퍼 마켓 및 슈퍼 체인점에서 일반 생필품 구입이 가능하다. 가격수준은 환율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이 있으나 대체로 제조산업이 부족한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되어 서울보다 비싸며, 채소, 과일, 육류 등은 서울보다 저렴한 편이다.

나. 한국식품

한국식품 중 채소 및 육류 구입은 불편이 없으나, 장류 및 양념, 젓갈류는 현지 조달이 불가하며 공항 통관 시 식품검사가 까다로워 외부로부터의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보고타에는 한국 식당과 동양 식품(636~1906)에서 라면 등 한국 식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교포 사회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아직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격도 비교적 높다.

다. 여가 활용

보고타 시 등 주요도시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보고타시의 경우 평지보다 산소가 25% 부족하므로 많은 산소량을 요구하는 테니스, 수영 등의 운동은 한국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

콜롬비아의 일반 도심에서 누구나 이용하는 위락시설은 식당, 디스코텍 등이 고작이며, 운동 및 레저 설비는 클럽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콜롬비아는 다양한 클럽이 운용되고 있으며, 고소득 층의 경우 회원권이 수만 달러에 이르는 컨트리클럽 외 다양한 회원제 클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반 중산층의 경우도 직장단위로 가입하는 클럽에서 축구, 수영, 볼링, 사우나 등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대개 직장인 클럽의 경우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며, 회원에게는 일정 할인율이 적용된다.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의 경우 대부분 골프를 즐긴다. 보고타 지역은 4계절이 없어 연중 파란 잔디를 볼 수 있으며, 기온도 한국의 초가을 날씨가 지속되어 골프를 즐기기에는 매우 쾌적한 환경이다. 그러나 회원 가입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으로 클럽 별로 최소 2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아울러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이 아닐 경우 기존 회원의 초청을 받아야만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인들은 중산층 이상의 경우 시 외곽에 Finca (별장)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원 생활을 즐긴다.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주택, 수영장, 딸린 별장, 그리고 다양한 레저 시설이 완비된 클럽식 별장 등 다양한 유형의 별장들이 있으며, 연휴가 시작되면 도시를 빠져나가는 차량, 연휴 마지막 날은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야기된다.

한편 콜롬비아 한인회 (교민회)는 보고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저지대 (해발 500미터) Melgar 시에 공동 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에서 구매, 교민회에 기증한 것으로 한국 교포의 경우 누구나 사전 예약만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라. 치안

콜롬비아의 치안 상태는 지난 2002년 알바로 우리베 행정부 집권 이후 지속적인 개선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심 치안은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콜롬비아 내 치안 불안의 가장 큰 요소인 FARC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역시 정부군의 지속적인 토벌 및 감시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지난 2007년 말 콜롬비아 정부군의 토벌로 FARC의 주요 지도부가 대부분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보고타 시내에서는 게릴라 등의 위협은 없으나, 슬럼화된 시내 중심부 및 보고타 남부 지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 일과 시간 중 활동이 요구된다.

마. 주거환경

한국인들은 보고타, 메데진, 페레이라, 깔리 등 주요도시에 분산되어 주거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보고타 시에 거주하고 있다. 보고타시 주거환경은 비교적 환경이 양호한 편으로, 남부와 북부의 주거환경이 큰 차이가 있다. 중심부 및 남부는 통상 구 시가지 (CENTRO, SUR) 라고 일컬어지며, 상가밀집 지역으로 도시범죄가 다발하고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편에 속한다. 반면 북부지역 (NORTE)은 신흥개발 주거지역으로 현대적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으며 주위환경이 쾌적하여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바. 한국인에 대한 인식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6.25 참전국으로 한국과의 혈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 입장에서 유일한 해외파병 경험으로 매년 6월 25일은 콜롬비아 군의 주요 기념일이다. 이러한 역사적 유대관계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없으며, 한국인은 근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며 UN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사. 교포사회

한인교포는 보고타시에 70가구, 메데진, 깔리, 페레이라 등 주요도시에 30세대로 총 100여 가구 35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단기체류자 50여 명을 합할 경우 총 400여 명의 한국인이 콜롬비아에 주거하고 있다.

한편 교포자녀 및 주재원 자녀를 위한 토요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 초등, 중등으로 6개 반, 그리고 현지인을 위한 성인반, 아동반 2개 반도 운영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는 주로 대사관, 상사, 코트라 등 주재원 부인들과 유학생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아. 전화신청

전화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 및 주택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임차인이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통상 이사를 할 경우에도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 전화료만 선납부하고 신규 임차 건물·주택에 설치된 전화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자동차 구입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 선호 메이커 대리점에서 구입가능하며,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는 경우는 재직증명서 (소득기재)가 필요없다. 단 할부인 경우 재직 증명서 (소득기재) 와 더불어 근무 연수, 3개월간 은행 거래실적 사본, 월 급여 입금통장 사본 등의 제출이 요구되며 할부 이율은 약 연 20%이다.

차. 은행구좌 개설

외국인의 경우에도 현지 은행구좌 개설하는 데는 별다른 차이는 없다. 아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개설희망 은행을 찾아 개설절차를 밟으면 되고 은행에 따라 요구서류가 약간 상이할 수 있다.

- 필요서류: 납세번호사본, 상공회의소 사업자등록증, 대표인신분증, 주주명부, 주주 신분증, 자산 증빙서류

카. 병원

현지에서의 병원 이용방법은 사회건강보험, 일반 진료, 선불제 민간보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소득이 없는 하위계층을 위한 국가 전액 부담 보험제도 (Cisben)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1990년 사회건강보험의 운영을 민간기업에 개방하여 현재 건강관리공단과 민간 보험사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선택은 피보험자가 선호하는 보험사를 선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건강보험의 경우 국영이나 민간, 보험사별로 지정된 병원들이 다르며, 지정 병원이나 약국에 한해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현지에는 제네릭 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합법적이라 사회건강보험 이용 시 처방해주는 약들은 모두 제네릭 약품이다. 한번 진료를 위해서는 약 2~3주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부 계층을 위한 선불제 민간 보험이 도입되었다.

선불제 민간보험의 경우 일정금액을 매월 선불하고 지정된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용 방법은 동일하나 매월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피보험자의 경제력이 중상층 이상은 돼야 한다. 선불제 민간보험의 경우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처방해주는 약도 정품이다. 따라서 콜롬비아 중상층의 경우 대부분 의무 사회 보험과 선불제 민간보험 두 가지 모두를 가입하는 추세이다.

가입자별 형태를 보면 건강관리공단에는 공무원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다. 대부분은 민간 보험 사에 가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주요 민간보험사는 아래와 같다.

- 주요 국영/민간보험사
 - Seguro Social (국영)
 - Humana Vivir (민간)
 - Cafam (민간)
 - Compensar (민간)
 - Cafe Salud (민간)

6.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개관

콜롬비아는 남위 4°~북위 12°에 이르는 적도선상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연중 열대의 다습한 적도성 기후를 보이고, 밤과 낮 길이가 연중 비슷하며, 계절의 변화가 미미한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평균 고도 4,000m의 안데스 산맥이 콜롬비아에서 세 갈래로 나뉘어져 남북으로 국토를 관통하며, 이에 따라 산악 및 계곡, 해안에 흩어진 주요 도시들은 고도에 따라 열대 우림 아마존에서 만년설까지 각각 다양한 기후대를 보이고 있다.

즉, 콜롬비아의 기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계절은 없고, 고도에 따라 특징 지어진 기온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보면 우선 전 국토의 81%에 이르는 지역이 해발 1,000m 미만 에 위치해 있는데 카리브 및 태평양 해안지역, 아마존 정글지역, 그리고 산맥과 산맥 사이 계곡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며 연중 24℃ 이상의 열대성 기후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발 1,000~2,000m 지역은 전 국토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낮은 고원지대 내지는 산맥 기슭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는 평균기온 17.5℃의 아열대성 및 온대기후가 나타나며 콜롬비아 주요 지방도시인 Cali시 및 Medellin시가 이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보고타시를 포함 해발 2,000~3,000m 지역은 전 국토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기온 12℃의 온대기후를 보여주고 있고, 해발 3,000m 이상인 지역도 국토의 2%를 차지한다. 동 지역에서는 평균기온 10℃ 미만의 한대 및 냉대기후를 보이고 있고, 4,000m 이상 에는 만년설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강우량의 경우 지역에 따라 300~11,000mm까지 다양한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데, 태평양 연안과 북부내륙 Magdalena 계곡지역, 그리고 동부 아마존 지역에서는 연평균 4,000mm 이상, 북부 해안지역 및 아마존 지역은 연평균 2,000~4,000mm를, 보고타시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연평균 1,000~2,000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2) 고지기후의 특성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는 해발 2,650m에 위치, 고산 기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중 기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3월부터 8월까지의 우기,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건기로 분류 된다. 우기란 비를 뿌리는 빈도수가 높다는 의미로 한국의 장마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최근의 엘니뇨 현상으로 수년간 우기와 건기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보고타 시 기후는 연중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와 같이 쾌적한 기후가 지속되고 있으나 낮에는 25~28℃, 아침에는 10℃ 정도로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보고타 시는 방대한 보고타 고원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고원은 해발 2,650m에서 보고타 시를 외곽 북쪽으로 100Km 이상 고도를 유지하며 평원을 이루고 있다.

지역 특성상 외부인이 방문하면 대부분 고산 증세를 느낄 수 있다. 증세는 개인차가 있는데 주로 소화 불량 및 식욕 부진, 숙면 부족, 건망증 심화 등이다. 이에 대해 별 다른 대처 방안은 없어서 과로 및 과식, 과음을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방법뿐이다.

3) 복장

한국의 가을 날씨에 맞게 준비하면 별 무리가 없다. 한국의 춘추복 수트 및 긴팔 셔츠, 그리고 아침 저녁 활동을 위해 점퍼 하나 정도를 준비한다. 콜롬비아는 난방 시설이라는 것이 없으며, 특급 호텔에서도 에어컨은 있으나 난방 장치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한국 출장자 중에서는 밤새 추위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날씨는 선선하여도 적도상에 위치, 햇빛이 매우 강렬하므로 출장 시 선글라스를 휴대 하는 것이 좋다.

각 도시별 고도 및 평균기온

도시명	북위	해발	평균기온
Barranquilla	11°00′	4m	27℃
Bogota	4°32′	2,650m	14℃
Bucaramanga	7°08′	959m	23℃
Cali	3°27′	995m	24℃
Cartagena	10°26′	2m	28℃
Ibague	4°27′	1,285m	21℃
Medellin	6°16′	1,479m	21℃
Pereira	4°49′	1,411m	21℃
San Andres	12°35′	2m	27℃

자료: 콜롬비아 기상연구소, Instituto Nacional de Meteorologia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콜롬비아와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으로, KST-14 시간대로 분류된다. 즉, 한국이 24:00시 일 때 콜롬비아는 아직 10:00시이다. 계절의 변화가 크지 않아 서머타임은 실시하지 않는다.

2) 근무시간

일반 사무실의 근무시간은 08:00~17:00이며, 관공서의 경우 대부분 15:00시에 근무 시간이 끝나므로 관공서 업무는 가급적 오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 은행의 경우 보통 근무 시간이 08:00~16:00까지며, 일부 은행은 09:00시에 개점하여 15:00~17:00 동안 휴식 후 17:00~19:00시까지 연장 업무를 보기도 한다. 연말의 경우 12월 30일은 오전 근무를 하며, 12월 31일은 고객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일반 사무실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3) 회계연도

콜롬비아 정부 및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 도량형

1) 도량형

콜롬비아는 다양한 미국 및 영국식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도량형은 다음과 같다.

무게	Kg (1,000g)
	Libra (파운드, 453.59g)
	Onza (온스, 28.5g)
	Arroba (25파운드)
길이	M (미터)
용적	Metro Cubico (입방미터)
	Litro (리터)
	Barril (배럴, 159리터)
	Galon (3.785리터)

넓이	Metro Cuadrado (제곱미터)
	Hectarea (1,000 제곱미터)
	Fanegada (800 제곱미터)

2) 전기

가정용 및 상업용으로는 110V 60Hz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면제협정

한국과 콜롬비아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관광객은 비자가 면제된다. 그러나 취업 및 유학목적의 장기체류자의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체류기간 연장이 용이하다. 출국지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객으로 입국하여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첫 번째 비자는 주변국을 통해 받아야 하며, 두 번째 갱신 비자부터는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스페인어로 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6개월 내지 1년 비자를 받기 때문에 체류기간 중 연례적으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비즈니스용 상용 비자가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거래 상담 목적의 출장 시 상용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출장기간이 짧다면 관광객으로 무비자 입국이 권고된다. 상용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한 경우에는 출국할 때 콜롬비아에서의 활동 내역을 문의하거나, 콜롬비아 내에 비즈니스 상 채무가 없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비자 입국 의 경우, 입국 심사대에서 여행 목적이 관광인지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입국 목적을 사업이라고 할 경우, 출국 시 추가 공항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출국 공항세는 2010년 3월 기준, 3개월 미만 체류 외국인의 경우 US\$34 내외,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경우 US\$64 내외이다. 또한 2008년 6월 1일 이후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콜롬비아 입국세 US\$5를 추가 납부하도록 출입국 관리 규정이 개정된 바, 사전 인지가 요망된다.

2)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연락처

- 주 소: 서울시 중구 다동 10
- 전 화: 02)725-6959
- 휴 일: 토, 일요일 및 양 국가의 공휴일
- 접수 시간: 09:00~12:00
- 구비서류: 여권, 건강증명서, 신청서 양식, 호적등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이 요구되나, 방문 목적 및 비자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콜롬비아 대사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3) 이민국 및 세관통관

콜롬비아의 경우 이민국 통과 시 특별한 절차가 없으며, 별도의 출입국신고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세관통과 시에는 통과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초록 불이 켜지면 무검사 통과, 그리고 빨간 불이 켜지면 검사대로 가서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검사 시 샘플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보이스 및 샘플리스트, 그리고 샘플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동 샘플에 해당하는 세금을 예치해야 하며, 출국 시 해당샘플을 재검사하고 예치금을 환불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관원 재량에 따라 상품가치가 없는 샘플로 판단될 경우 통과시키고 있다.

한편 음식물류의 경우 세관의 요주의 검사품목이며, 아울러 동양 사람들이 식품을 많이 휴대하는 것에 착안하여 부패세관원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 무관세 반입 한도

- 서적, 잡지, 오디오테이프, CD: 품목당 6개
- 주류: 6병
- 사진기, 가전제품, 레저 용품: 각 2개

* 상기 품목별 반입 한도 이외 전체 반입품의 가격이 U\$1,5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예방접종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콜롬비아에서 아마존 등 열대지역을 여행 또는 방문할 계획인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의 경우 한국 등 여타국가에서 직접 도착하는 입국자 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콜롬비아에서 탑승한 입국자에게는 황열병 예방 접종 카드를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를 경유, 브라질 방문 예정인 출장자의 경우 한국에서 황열병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를 휴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보고타 공항에서 탑승이 거부되어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황열병 예방접종의 경우, 보건소 및 공항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유료), 예방접종을 맞고 10일 후 에 접종확인서 (Yellow Card)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마. 환율/환전

1) 화폐단위

콜롬비아는 화폐단위로 페소 (Colombian Peso)를 쓰며 약칭으로 \$를 사용한다. 은행 거래 시 또는 회계상 센트 (100분의 1페소)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화폐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50페소 동전이다. 주화로는 50, 100, 200, 500페소 동전이 유통 중이며, 50페소 동전은 점차 유통이 줄어들고 있다. 지폐의 경우 1,000, 5000, 10,000, 20,000, 50,000페소 지폐가 유통되고 있다.

2) 환율

콜롬비아 페소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2011년 1월 3일 현재, U\$1=1,913.98 COP 를 기록하고 있다. 동 환율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시장대표환율로서 실제 환전소에서 적용하는 환율은 마약 음성 자금 등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고시환율 대비 200페소 내외 낮음)

콜롬비아 환율제도는 '99년 9월까지 관리변동 환율제도로써 정부에서 연간 평가절하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선 위아래로 상하한선을 설정, 상하한선 이내에서의 환율변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환율이 동 한계선을 벗어나려 할 경우 중앙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율관리 제도는 단기적으로 페소화 환율을 시장원리에 맡기면서 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에 따른 강한 외부적 충격에 대해 대응이 늦은 취약성을 안고 있어 국제 투기자금의 주요 공격목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의 상하한선 환율관리제도 폐지론이 업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결국 '99년 10월부터 자유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콜롬비아 페소화 환율은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거의 3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3년에는 안정세, 2004년 들어서는 달러화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2009년 초,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강 달러 흐름 속에 콜롬비아 페소(COP) 가치가 극심하게 떨어진 바 있으며, 09년 2월 25일 1달러 당 페소 환율이 약 2600페소까지 육박한 바 있다. 이는 석유 및 석탄, 광물 자원을 비롯하여 콜롬비아 산업 곳곳의 단기 투기성 자금 (Hot Money)이 유가 하락 및 광물 가격 하락 때문에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속된 환율 방어 정책과 더불어 달러 강세가 수그러들면서, 콜롬비아 페소화 역시 09년 2월 말 1달러 당 2600페소에 가까이 육박했던 것을 정점으로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다. 09년 5월 기준 1달러 당 2,300 ~ 2,400 페소 사이에서 거래되었으며, 09년 7월 이후 페소화의 대 달러 가치가 평가절상 되기도 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나치게 큰 폭으로 콜롬비아 페소화가 평가절상 및 평가절하됨에 따라 주요 수출입업자를 비롯하여 교역증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0년 1분기 들어 각 산업 분야에서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환율도 1달러 당 2000 페소 내외로 유지되었으나, 2010년 2분기에 접어들면서 남유럽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으며 하루 사이에도 환율이 100페소 가까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율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3) 환전

콜롬비아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불법 마약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정부의 마약근절 의지에 따라 미국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달러화에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달러화의 유입은 묵인하면서 유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여타 대부분 국가와는 다른 특이한 환전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관광객을 포함 일반인들이 콜롬비아에서 달러를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공항에 소재한 은행사무소, 그리고 시중 환전소, 그리고 주요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이다. 이 중 달러화를 현지화로 바꿀 경우 공항에서 환전이 가장 유리하고, 현지화를 달러화로 바꿀 경우 환전소 환율이 가장 유리하다. 대부분의 경우 호텔에서는 고객에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어 호텔에서의 환전이 불가피할 경우 당장 필요한 소액만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교통/통신

1) 항공노선

한국에서 콜롬비아까지 가장 단순한 노선은 서울-L.A.-보고타 노선으로, 서울에서 L.A까지 지 12시간(서울-L.A. 10시간 30분, L.A.-서울 12시간) L.A.에서 보고타까지 7시간, 총

19시간의 비행시간이 소요된다. L.A.-보고타 노선 비행기들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중간기착지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직항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AVIANCA 항공사에서는 매주 목, 토, 일요일 L.A.에서 오후 9시에 출발, 보고타로 직항하는 항공편을 보유하고 있으며(익일 06:00 보고타 도착), 서울에서 L.A. 도착시간을 조정할 경우 L.A.에서 대기 시간을 줄여 환승할 수 있다. AVIANCA 사의 L.A.행 직항편은 매주 목, 토, 일요일 14:00분에 출발하여 L.A.에 19:45분에 도착한다.

한편 대한항공과 Avianca 사를 이용하여 뉴욕에서 경유하는 방법도 금액이 다소 높긴 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루트로 이용되고 있다. 콜롬비아 등 대부분 중남미 방문 시 미국에서의 환승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중남미 방문 시 미국 비자가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무비자 환승이 불가능하니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망된다. 단, 전자여권으로 미국 입국 허가를 사전에 받았을 경우 왕복항공권 소지로 콜롬비아 입국이 가능하다. 이외 미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자주 이용되는 노선은 서울-애틀랜타-보고타 노선(서울-애틀랜타 주 3회 운항)이 있다.

한국-콜롬비아 항공편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메리칸에어라인이 있으며, 이 경우 서울-도쿄-LA-마이애미-보고타로 총 4회의 경유가 필요해 학생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권하지 않는 방법이다. 또한 컨티넨탈 항공은 휴스턴을 경유하여 콜롬비아 보고타까지 운행하기도 한다.

미국비자가 필요 없이 서울-밴쿠버-토론토-보고타(Air Canada) 또는 서울-파리-보고타(Air France)노선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에어캐나다는 1년 왕복 항공권으로 사전에 구입할 경우 다른 항공사보다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기간 체류할 경우 권하지 않는 방법이다. 현재 유럽을 경유해 콜롬비아 보고타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에어프랑스를 통해 파리 1회 경유, 또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를 경유해 보고타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편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은 2010년 말부터 프랑크푸르트-보고타 직항 노선을 재개한다고 밝혀, 서울-프랑크푸르트-보고타 1회 경유로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특성상 편도 구입시 상당히 비싼 요금이 있고,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1년 왕복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아시아나 항공, 에어캐나다 항공사와 같은 제휴사로서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로 쌀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기타 권하지 않는 방법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우스아프리카 항공사나 카타르 항공(말레이시아 항공 코드쉐어)을 이용해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를 경유하여 보고타에 들어올 수도 있으며 (서울-홍콩-요하네스버그-상파울루-보고타, 또는 서울-오사카-도하-케이프 타운-요하네스버그-부에노스아이레스-보고타), 호주의 콰타스 항공사를 이용해 칠레를 경유하여 입국이 가능하기는 하다 (서울-시드니-오클랜드-산티아고-리마-보고타).

2) 육상교통

외국인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로 시내에서 움직일 경우 대부분 1만 페소 (US\$5.26) 정도, 공항까지 이동할 경우 2만 페소(US\$10.5 내외) 정도로 가격 수준도 그리 높지 않아 이용이 권장된다. 택시를 잡을 경우 호출회사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부르는 경우와 그냥 지나가는 빈 택시를 잡는 경우가 있으나 지리를 잘 모를 경우 혹은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 택시를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

콜롬비아에는 별도의 콜택시가 없으며 일반 택시 기사들이 호출회사의 무전기를 임대받아 호출회사의 지시로 손님을 확보한 경우 일정부분 커미션을 납부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호출회사를 통해 택시를 부른 경우 동 회사에 연계기록이 남아 있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보고타시의 택시 호출번호는 211-1111, 311-1111, 411-1111 등이 있다. 택시는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표시기에는 요금이 아닌 거리단위가 표시된다. 즉 출발 할 때 25에서 시작해서 100m마다 1단위씩 추가된다. 미터기의 1단위 가격은 35 페소이고 기본요금 3,200페소가 적용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단위별 요금표를 확인하여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택시를 호출한 경우, 야간 및 휴일 이용 경우, 외진 공항으로 이동 경우 등은 정상요금에 1,500페소를 더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다. 미터기에 요금이 아닌 거리 단위로 표시되는 것은 인플레이를 겪는 후진국의 특성 중 하나로 인플레이에 따른 가격인상 시 미터기를 바꾸기보다 요금 환산표만 바꾸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택시 이외에 노선버스가 이용되고 있으나 신변 안전상 외국인 이용이 권장되지 않으며, 아울러 노선을 번호로 표시하여 운행되기 때문에 버스선택이 쉽지 않고, 목적지까지 1~2차례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콜롬비아는 도시 간 이동 시 치안문제로 인해 국내선 비행기 이용을 권한다. 현지인의 경우 일부 도시는 차로 이동을 하기도 하나 외국인의 경우 일반 강도 또는 게릴라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라 비행기 이동을 권하는 편이다. 도시 간 이동은 내국 항공사인 Avianca가 주로 이용되며, 도시별 이동비용은 Armenia까지 US\$263, Barranquilla US\$315, Cali US\$ 315, Medellin US\$315 내외이고, 이용시기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이며, 비수기인 경우는 1~2일 전 예약하면 이용 가능하다.

한편 육로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저가항공사가 다수 발달해 있는데, 콜롬비아도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에 의해 저가항공이 다수 운행 중이다. 콜롬비아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로는 Aires 항공사가 있으며 콜롬비아 대다수 지역을 US\$100 내외로 여행할 수 있다. 또한 코파 항공 계열사인 Aerorepublica 사도 콜롬비아 주요 도시 사이를 운행하며, Satena, Easy Fly 등의 항공사도 최근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Aires 및 Aerorepublica 사는 미국, 파나마, 멕시코 등의 일부 도시에 국제선을 운항하기도 한다.

3) 교통체증

보고타시의 교통체증은 심각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2008년 1월 취임한 Samuel Moreno Rojas 보고타 시장은 보고타 시 지하철 건설, Transmilenio (보고타 시 대량 전용 버스차선 운행 대형 버스) 노선 확대, 차량 운행 제한책 강화 등의 교통 정책을 계획 및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보고타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보고타 시에서는 단기적인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과감하게 출퇴근 시간대 2.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하루에 10대 중 4대의 차량이 주간시간대 (06:00-20:00) 통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보고타에서는 사람 만나는 약속을 할 때 우선 자신의 차량운행 가능성을 생각하고, 상대 차량의 운행가능성까지 확인하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 보고타 시내 2.5 부제(현지어명: Pico y Placa)

- 각 요일별로 번호판 끝 자릿수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간시간대 (06:00-20:00) 시내주행 금지
- 월: 3 4 5 6, 화: 7 8 9 0, 수: 1 2 3 4, 목: 5 6 7 8, 금: 9 0 1 2

4) 통신 시스템

콜롬비아는 전반적으로 낙후된 통신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싼 통신요금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국제전화 코드는 005, 007, 009 등이 있으나 국영통신회사에서 운영하는 009가 통화 성공률이 높다. 한국으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009 + 82 (한국) + 2 (지역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국까지 1분 통화요금은 2.166페소 (US\$1.14)로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할 경우 교환을 통해야 하는데 국제교환 호출번호는 179, 159, 199등 3개이며, 교환을 호출 콜렉트콜을 요청하고 상대의 전화번호를 주면 교환이 전화를 하여 요금부담 여부를 확인해 통화를 연결시켜 준다. 한편 호텔 등에서는 한국까지 통화요금을 2배 정도로 청구, 가급적 대화할 내용을 요약, 팩스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분 호텔에서는 사후 문제가능성을 들어 수신자부담 전화를 봉쇄 하고 있다.

보고타 시내에서는 공항,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공중전화 발견이 쉽지 않으며, 동전식 공중전화와 카드식이 있으며, 주화식 공중전화의 경우 100페소 및 200페소 주화로 각각 1.5분, 3분 시내통화가 가능하다. 카드식 전화의 경우 개별 전화회사에서 설치하는 관계로 해당회사에 서 발급한 전화카드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 한편 콜롬비아는 지역별 빈부격차를 감안, 모든 공공요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가정 및 사무실용 전화의 시내요금은 지역에 따라 분당 16~40페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우편발송의 경우 현지 민간 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발송 가능하다. 우체국인 Postal이 있긴 하나 직접 우체국으로 내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정확성 등이 떨어져 기업의 경우 대부분 민간 택배업체를 이용해 우편물을 발송한다. 주요 민간 택배 업체로는 Servientrega가 있는데 주요 지역마다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이 용에 큰 불편함은 없으며 대량의 경우 직접 수거하기도 한다.

기본요금 (1g~1kg)은 보고타 내의 경우 2,100 페소, 보고타 외곽지역은 4,900 페소 정도이며 대부분 익일에 도착한다. 국제소포의 경우 특사운송회사인 UPS, DHL, FEDEX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항공운송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 발송가능하며, 항공운송 기본요금 (500g 이내)은 약 11만 페소이며 소요기간은 약 10일이다.

사. 호텔/식당

콜롬비아는 전국적으로 1,468개의 호텔이 등록되어 있으며 52,34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호텔 객실은 주요 도시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객실 수 기준으로 수도 보고타 지역에 15%, 북부해안도시로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Cartagena 지역에 10%, 제2 지방도시인 Medellin시 및 Cali시에 각각 10%, 그리고 San Andres 섬 및 Barranquilla, Santa Marta 등 지방도시에 각 5%씩 분포되어 있다.

주요 호텔

호텔명	주 소	전화/팩스
Bogota Plaza (☆☆☆☆☆)	Calle 100 No 18 a 30 Santafe de Bogota	571-6322200/ 571-6322237
Bogota Royal (☆☆☆☆☆)	Avenida 100 No 8 a Santafe de Bogota	571 2189911/ 571-2183261
Hotel Radisson (☆☆☆☆☆)	Calle 114 No 9 Santafe de Bogota	571 6295529/ 571-6295021
Hotel Dann (☆☆☆☆☆)	Av 15 No 103- 60 Santafe de Bogota	571 6350010/ 571-2823108
Hotel Belfort (☆☆☆☆☆)	Calle 17 No 40b 300 Medellin	574 3119171/ 574 3110776
Hotel Intercontinental (☆☆☆☆☆)	Calle 16 No 28-51 Medellin	574 2660680/ 574 2661548
Hotel Dann Carlton (Deluxe Collection)	Cra 2 No 1 -60 Cali	572 886 2000/ 572 893 4000
Hotel Intercontinental (☆☆☆☆☆)	Av Colombia No 2-72 Cali	572 8823225/ 572 8920712
Hotel Cartagena (☆☆☆☆☆)	Hilton Av Almirante Brion, Cartagena	575 6 650666/ 575-6-652211
Hotel Santaclara (☆☆☆☆☆)	Cra 8 39-29 Cartagena	575 6646070/ 575-6647010

○ 인터넷을 통해 콜롬비아 호텔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www.ashotelera_bogota.com.co
- www.colombia_hotels.com.co

콜롬비아는 해안 지역, 산악 지역, 정글 지역 등 지역에 따라 발달한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에 유럽, 미국, 동양의 음식 문화까지 합쳐져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콜롬비아를 대표할 만한 음식으로 Carne Asada (바비큐)를 들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에는 간단한 점심 식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은데 여기서는 Carne Asada에 감자, 샐러드 등을 곁들여 낸다. 가격은 7,000~ 12,000페소 정도이다.

보고타 지역의 토속 음식으로는 Ajiaco(아히아꼬)가 유명하다. 감자로 낸 국물에 닭고기, 옥수수 등을 넣어 끓인 것으로 한국의 영계백숙을 떠올리게 하며, 한국사람 입맛에도 별로 거부감이 없다. 보고타 지역의 음식 가격은 만만치 않다. 식당 및 음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급 식당 및 일식당에서는 일인당 5만 페소 이상은 잡아야 한다. 한편 보고타 시내에는 한국 식당 4곳이 운영 중이며, 1군데는 정식으로 식당으로 영업하는 곳이고, 나머지 1곳은 가정집을 개조해 영업하고 있다.

□ 한국식당

- Biwon (비원)
 - 주소: Cra 16 No 93 A 21
 - 전화: (571) 218 9063 / 256 7894
 - 한국식당으로 다양한 메뉴 보유
- Arirang(아리랑)
 - 주소: Cra 13A No.97-47
 - 전화: (571) 616-1400
 - 정식백반 전문 한국식당
- Casa de Corea (한국관)
 - 주소: Clle 104A No.11B-61
 - 전화: (571) 214-7868
 - 한식 및 일식 전문식당
- Makiroll (마끼롤)
 - 주소: Clle 95 No.11-10
 - 전화: (571) 218-0103
 - 한국, 일식 및 현지식 전문식당

□ 중국식당

- Casa China
 - 주소: Calle 109 No.16-43
 - 전화: (571) 214-2731 / 0517
 - 전통 중국 음식점
- Rincon de China
 - 주소: Cra 18 No.91-15
 - 전화: (571) 618-3441
 - 전통 중국 음식점

□ 일본식당

- Watagushi
 - 주소: Cra 12 No 83-17
 - 전화: (571) 218-0534
 - 고급 일식전문점으로 각종 정통일식을 맛볼 수 있음.
- Sushigozen
 - 주소: Calle 93A No.14-11
 - 전화: (571) 257-0282
 - 철판구이 전문점으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대중일식을 맛볼 수 있음.

□ 현지식당

- Andres Carne de Res
 - 주소: Via Chia – Cota, Km. 6
 - 전화: (571) 8630122
 - 바비큐 전문점으로 가격은 1 인당 10 달러 내외임.
- Casa Vieja
 - 주소: Calle 116 No 20-50
 - 전화: (571) 2137855
 - Ajiaco 등 전통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음.
- Carbon de Palo
 - 주소: Avenida 19 No 106-12
 - 전화: (571) 2140450
 - 바비큐 전문점으로 시내에서 대표적인 Carne Asada 전문점이다. 음식 양이 많은 편임.

□ 기타(현지 고급식당)

- Andres Carne de Res
 - 주소: Calle 3 No.11a-56, Chia
 - 전화: (571) 863-7880
 - 콜롬비아 북쪽 20km 가량 떨어진 Chia 에 위치한 식당으로 현지 매체는 물론 New York Times 등에도 수 차례 소개된 바 있는 관광명소 중 하나. 일반 음식점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큰 규모와 아기자기한 실내 인테리어, 다양한 오락, 문화 이벤트 등이 준비되어 있어 꼭 한번 방문해 볼 만한 장소
- Club Colombia
 - 주소: Av 82 No.9-11
 - 전화: (571) 321-0704
 - 세련된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 등으로 유력 인사 및 연예인의 방문이 잦은 식당으로 품격을 갖춘 현지 식당을 찾는 출장자에게 적합
- Tramonti
 - 주소: Cra 1ª No 93-50
 - 전화: (571) 2182400
 - 이탈리아 음식 등을 취급하는 분위기 있는 식당으로 산기슭에 위치하여 보고타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Las Cuatro Estaciones
 - 주소: Cra 8ª No 98-38
 - 전화: (571) 2569309
 - 스페인 요리 전문점
- La Fragata
 - 주소: Diag 127ª No 20-36
 - 전화: (571) 2746527
 - 해산물 요리 고급음식점으로 식당 전체가 회전하며 보고타 북부 전망을 보여줌.

아. 관공서 관행

1) 민원 처리기간

콜롬비아 관공서는 민원 사안별로 내부적 처리기간(보통 2일~15일)을 명시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처리기간이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민원부서의 부패는 존재하며, 사소한 기재사항 실수, 기타 사항을 트집잡아 접수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반송해 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류 준비 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서류 작성 시 절차를 잘 아는 안내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관공서 민원창구는 민원인으로 붐벼 차례를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한번 접수를 거부당하면 당일 처리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안내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관공서 업무가 있을 경우 사전에 www.sinpro.gov.co 페이지를 방문, 해당정보 게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 인터넷 페이지에는 주요 공공기관 리스트와 기관별 민원절차 등이 설명되어 있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콜롬비아 관공서는 대부분 09:00~14:00시까지 민원을 접수하며, 13:00~14:00까지는 점심 시간이므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오후 시간에는 많은 민원인으로 붐비므로 가급적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부분 관공서에서는 아직 외국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없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통역을 대동하는 것이 좋다.

민원 업무가 많은 관공서 업무를 해결할 때는 주로 대행업자를 통한 처리가 일반적이다. 중개인 이용 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업무 노하우, 담당 관리와의 교분 관계 등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처리할 때보다 진행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세관, 국가보안국 (DAS), 교통국 등에 대한 업무는 제출서류 및 절차 등이 까다로워 대행업자 활용이 권고된다.

대행업자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대행업자 각자의 능력 차이가 있으므로 능력이 검증된 대행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 의뢰 시 필요한 서류 원본 일체와 수속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대행업자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복잡한 수속대행을 조건으로 접근하여 사기를 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대행업자에 업무 의뢰 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자신의 수수료 외에 급행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아무런 영수증이나 근거 없이 지불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유경험자를 통해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밀수, 마약, 게릴라 등 문제해결에 있어 공무원 부패가 주요 장애물의 하나라고 인식, 정부기관 부패척결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본연의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관광, 투자 등 외국인 대상 민원 기관에서부터 그 노력을 시작하고 있으며 점차 세관 등 여타 기관으로 정화 노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자. 공휴일

1) 휴일 지정방식

콜롬비아는 공휴일을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기념일이나 축제일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념일 등은 휴일이 아닌 정상 근무이고, 해당지방에서만 시행된다는 면에서 공휴일과 차이를 보인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동절,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일부 공휴일을 제외한 휴일이 주중에 위치할 경우 이를 다음주 월요일로 이동시켜 연휴로 만들어 국민의 여가선용을 돕고, 호텔 등 관광부문을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 공휴일 일정표

신정 (La Circuncia)	1월 1일	독립기념일 (Independencia Nacional)	7월 20일
현절 (Reyes Magos)	1월 10일	독립전쟁기념일 (Batalla de Boyacá)	8월 7일
요셉 축일 (San José)	3월 21일	성모승천일 (Asunción de la Virgen)	8월 16일
부활절 (Semana Santa)	4월 21일-22일	신대륙 발견일 (Fiesta de la Raza)	10월 17일
노동절 (Día de Trabajo)	5월 1일	만성절 (Todos los Santos)	11월 7일
예수승천일 (Ascención del Señor)	6월 6일	까르타헤나 독립기념일 (Independencia de Cartagena)	11월 14일
성체기념일 (Corpus Christi)	6월 27일	성모수태일 (Inmaculada Concepción)	12월 8일
예수성심제 (Sagrado Corazón de Jesus)	7월 4일	성탄절(Navidad)	12월 25일

2) 출장 지양기간

콜롬비아는 법정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을 채택하고 있으나 상점 및 공장을 제외한 일반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출장 일정에 토요일이 낄 경우 상담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시장조사 또는 휴식일정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활절 및 성탄절은 콜롬비아의 양대 휴가시즌으로서 동 휴일을 전후해 1~2 주 정도는 출장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콜롬비아 근로자의 법정 휴가일수는 근무일 기준 15일로 주말까지 감안하면 3주가 되고,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은 전년도 미사용 휴가까지 활용해 1달씩 휴가를 실시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연시, 부활절 연휴기간과 연계하여 휴가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방학하는 7월 중순~8월 중순 기간도 일부 휴가시즌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출장 시 사전에 상담 가능성을 타진하고 출장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기후 및 복장

콜롬비아는 적도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험준한 안데스 산맥이 국토를 관통, 수도 보고타 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가 고산지역에 위치해 있어, 콜롬비아 출장 시 목적지의 해발과 기온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고타 시는 해발 2,650m에 위치해 있으며, 연중 우리나라의 10월 날씨를 유지한다. 서울의 춘추복 정도면 무난하며, 일교차를 감안하여 점퍼를 하나 정도 더 가져오는 것이 좋다. 한편 제2도시 Medellin시의 경우, 해발 1,480m로 우리나라의 5월 날씨에 맞춰 복장을 준비하면 된다. 한편 제3도시 Cali시의 경우 해발 995m로 우리나라 7, 8월 날씨와 유사한 기후를 보이며 반소매 셔츠와 가벼운 의복이 좋다.

2) 전압

가정 및 호텔, 사무실 등에서는 60Hz, 110V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니 가전제품 휴대 시 주의가 요망되며, 220V 가전제품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승압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3) 치안

콜롬비아는 미국에서 자국민 여행자제국으로 분류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여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현지인들 역시 치안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가급적 시비 및 언쟁을 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고타 중심지는 슬럼화되어 많은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급적 동 지역 방문 및 야간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안내인을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일과시간 중에도 외출 시 귀금속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길거리에서 돈을 지불 할 경우 지갑을 펼쳐 돈을 보여주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아울러 차량으로 이동 중 신호등 등으로 차가 정차할 경우 창문을 올려놓는 것이 안전하다.

4) 택시 사용

시내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소만 제시하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다. 거리에서 빈 택시를 잡을 수도 있으나 가급적 전화로 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통/통신 참조)

5) 긴급연락처

콜롬비아 체류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몇 가지 연락처는 메모하여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응급용 전화번호로는 다음과 같다.

- 경찰: 112
- 소방서(구조): 119
- 앰불런스: 115

아울러 한국대사관 및 KOTRA, 교민회장 자택 전화번호 등도 응급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파. 유용한 연락처 참조)

6) 팁

호텔 및 공항에서 포터가 짐을 옮길 경우 여행용 가방 1개당 1,000페소 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 음식점에서는 서비스 요금으로 10%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서에 서비스 요금 포함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금액에 따라 5~10%의 팁을 주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택시에서는 반드시 팁을 줄 필요가 없으나, 미터기로 요금을 계산할 경우 100페소 단위 거스름돈은 팁으로 주며, 일부 기사들은 일부러 잔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택시로 시외를 방문할 경우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호텔 택시 등은 사전에 요금을 흥정해야 하며 팁은 줄 필요가 없다.

7) 식수

보고타의 수도물은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산층 이상에서는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고, 저소득층에서는 수도꼭지에 간단한 정수기를 부착하여 정수된 물을 마시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 출장 시 생수(Agua Mineral)를 사서 마시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8) 이발소

시내 곳곳에 이발소 (Peluqueria)를 발견할 수 있으며 요금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7,000~1만 페소 내외이다. 콜롬비아 이발소는 한국과 달리 대부분 이발 후 머리를 안 감겨준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9) 구두닦이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무실 거리의 노상에 구두닦이가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도로화단 등에 방석을 깔아놓고 손님을 기다린다. 구두를 닦는데 정해진 가격은 없으며 보통 2,000~3,000페소를 요구한다.

10) 쇼핑

보고타 시내중심에는 San Andresito (일명 밀수시장)라는 재래시장이 있어 가전과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곳은 콜롬비아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각종 밀수품들이 저가에 판매되고 있어 보고타 서민들의 주요 쇼핑 장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실정을 잘 모르는 방문객의 경우 안내인 없이 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고타 시민 중에서 중류층 이상에서는 슈퍼마켓 내지는 하이퍼마켓, 그리고 백화점에서 필요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보고타시내에 주요 하이퍼마켓으로는 EXITO, Carrefour, HOME CENTER 등이 있으며, 한국의 백화점 식으로 다양한 매장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Centro Comercial Andino, Unicentro, Hacienda Santa Barbara 등이 있다.

11) 에메랄드와 커피

콜롬비아는 세계 에메랄드 시장의 80%를 공급하는 최대 생산국으로 한국으로도 많이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모양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보석에 대한 조예가 없을 경우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있으니 안목 있는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브라질과 함께 주요 커피 수출국으로 브라질 커피에 비해 향과 맛이 순해 원두커피로 많이 소비된다. 가격에 비해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 여행객의 휴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 출장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귀국 선물용품이다.

카. 유용한 연락처

관공서

기관명	주소	전화/팩스	인터넷
국가보안국(DAS)	Calle 100 No 11b 28	610-7315 610-7315	www.sinpro.gov.co
관광부	Calle 28 No 13 A 15	352-2102 284-3009	www.sinpro.gov.co/mindesarrollo
관세청(DIAN)	Cra 7 No 6-45	342-8700 283-5324	www.dian.gov.co
노동부(이민국)	Avenida 19 No 6-68	283-7025 283-7025	www.sinpro.gov.co/mintrabajo
국가기획청(DNP)	Calle 26 No 13-9 Piso9	334-0225 281-3348	www.dnp.gov.co
대외무역부	Calle 28 No 13 ^a 15 Piso7	286-9111 349-908	www.mincomex.gov.co

한국 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팩스	인터넷
한국대사관	Calle 94 No 9-39	616-7200 610-0338	http://www.mofat.go.kr/ek/ek_a002/ek_coco/ek_04.jsp
한인회	-	337-6877 337-5532	www.hancol.org

은행 및 경제단체

기관명	주소	전화/팩스	인터넷
중앙은행(국제부)	Calle 16 No 6-66 Piso17	284-9572 284-2701	www.banrep.gov.co
은행감독원	Calle 7 No 4-49	280-0280 280-0864	www.superbancaria.gov.co
경제인연합회(ANDI)	Cra 13 No 26-45	281-0600 281-3188	www.andi.com.co
대외무역은행(BANCOLDEx)	Calle 28 No 13 a 15 Piso40	341-0677 282-5071	www.bancoldex.com
기업감독원	Av El Dorado No 46-80	222-0566	www.supersociedades.gov.co
산업진흥원(IFI)	Calle 16 No 6-66	336-0377	www.ifi.gov.co

보고타 KBC 연락처

보고타 KBC 주소	Cra 7 No. 113-43 Of.904 Torre Samsung, Bogota D.C. Colombia
보고타 KBC 연락처	Tel. +57) 1-637-5099 Fax +57) 1-637-9238
권선흥 센터장	+57) 311-222-2534
황현정 과장	+57) 311-876-6292

타. 관광명소**1) 보고타시 주변****□ 소금성당**

보고타 시 북부 Zipaquirá시에 위치해 있으며, 소금 암반으로 이루어진 산속에 거대한 지하 성당이 건축된 곳이다. 지표면에서 170미터 아래 지하에 미사를 볼 수 있는 성당을 만들어 놓고 성당까지 이르는 길에 예수 고난을 상징하는 12처소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곳은 스페인 정복 이전부터 바다를 모르던 원주민들이 염분을 채취하던 곳으로 스페인 시대에도 소금 채취가 지속되었다. 표면에서의 염분 채취는 점차 광산으로 발전하여 산을 파들어 가는 본격적인 광산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광부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빌기 위해 광산 입구에 마리아상을 세우고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하였다.

194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기업 활동으로서 광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산 내부에 폭 10m, 높이 16m에 이르는 소금 암반을 파낸 갱도가 이곳 저곳으로 얹혀있는 것을 보게 된다. 1990년대 들어 소금 광산의 관광 산업적 가치를 발견한 현지 정부 및 기업에서 공동 출자를 통해 이곳에서의 소금 생산을 중단하고 거대한 성당으로 탈바꿈하는 공사를 시작, 1995년에 완공하여 일반에 공개되었다. 입장료는 1인당 17,000페소-30,000페소이다.

□ Monserrate

보고타시 중심부 동쪽에 해발 3,200m(보고타시 자체가 해발 2,650m에 위치해 있으므로 보고타시에서 보면 그리 높지 않음)의 작은 산봉우리에 성당이 세워져 있으며, 성당까지 케이블카를 만들어 놓고,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처소를 만들어 낡은 가톨릭 신자들이 찾고 있으며 아울러 보고타시 전체를 조망하는 전망대로서 시내 주요 관광지가 되고 있다.

□ Bolívar 광장

보고타시 시내 중심부에 스페인시대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는 공간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콜롬비아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 보고타 시청, 대성당 등이 위치해 있어 콜롬비아의 정치 중심지를 구성하고 있다.

광장 중심에는 콜롬비아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까지 스페인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중남미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 받는 Simon Bolívar 동상이 세워져 있다. 한편 Bolívar 광장 부근에는 Candelaria라는 지역이 있으며, 이곳은 일반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목재발코니, 석재타일을 깔아 놓은 좁은 포장도로 등 식민지시대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문화적,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 보고타 시 기타지역

볼리바르 광장 주변에는 콜롬비아를 ‘엘도라도’의 땅으로 만들어준 황금으로 만들어진 많은 전시품을 볼 수 있는 황금 박물관 (El Museo del Oro)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계 미술계의 최대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Botero 화가의 주요 작품을 전시한 보테로 박물관 (El Museo de Botero)도 볼리바르 광장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기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시가지에서 화폐박물관, 국립박물관 등 주요 박물관이나 화려한 건축 양식의 성당을 여유롭게 구경하는 것도 보고타 여행 일정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구시가지 일대는 경찰 및 군인이 다수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사건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니 신변 및 안전에 유의하기를 권한다.

2) 보고타시 이외 지역

콜롬비아는 험준한 안데스 산맥이 적도를 지나는 지역에 위치, 아마존에서 만년설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혜의 휴양지인 카리브해와 접해있어 관광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력 부족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미흡, 그리고 산악 및 정글지역에 포진한 게릴라의 위협 등으로 관광산업은 크게 위축된 상태에 있다.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카리브 해안지역이다. Santa Marta는 카리브 해안을 따라 백사장과 호텔이 펼쳐져 있고, Cartagena는 스페인 정복대의 중남미정복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여 오래된 성벽과 많은 유적지가 남아 있으며,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리고 San Andres 섬은 Nicaragua와 영유권 분쟁이 잠재된 상태에서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에서 빠지지 말고 찾아가 봐야 할 관광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커피농장이다. 콜롬비아의 서부 Antioquia 주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드넓은 커피 농장은 해외 관광객이 콜롬비아를 찾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Manizales, Armenia, Ibague 등 도시들은 대다수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에서 커피농장 투어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 출장이나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둘러볼 만 하다.

아울러 콜롬비아 6개 주를 포괄하는 방대한 지역에 아마존 정글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아마존 지역은 남한의 4배에 이르는 403,000Km로 콜롬비아 국토와 비교해서도 35%에 이르고 있다. 아마존강 유역은 지구의 허파로 비유될 정도로 태고의 자연이 보존되어 인류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방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국경이 접한 아마존 상류지역은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동식물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 콜롬비아는 관능적인 춤과 카리브 및 중미 지역의 느낌을 재현한 곳이 많기로도 유명한데,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메데진 시는 전세계적으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 이어 가장 탱고가 보편화되어 있는 곳이다. 반면 콜롬비아 제3의 도시 칼리는 중미 지역의

느낌이 강하게 나며, 쿠바, 푸에르토리코, 자메이카 등 중미 카리브 연안 섬국가들 색채가 강한 살사, 메렝게 등의 춤을 구경할 수 있다. 또한 에콰도르 국경 마을인 Ipiales는 그림처럼 자리잡은 협곡 속의 성당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7.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2011년 주요 전시회 목록

전시회명	기간	도시
콜롬비아 메데진 섬유 전시회	2011/01/26~2011/01/28	메데진
콜롬비아 보고타 패션 박람회	2011/02/14~2011/02/20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신발가죽 박람회	2011/02/15~2011/02/18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관광 박람회	2011/02/23~2011/02/25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건축디자인 박람회	2011/05/24~2011/05/29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음식 축제	2011/06/07~2011/06/11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호텔산업 박람회	2011/06/07~2011/06/11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식품 박람회	2011/06/07~2011/06/11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GNV 전시회	2011/06/08~2011/06/10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자동차부품 박람회	2011/06/15~2011/06/17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농수산업 박람회	2011/07/14~2011/07/21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미용 건강 박람회	2011/08/25~2011/08/28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가정 용품 박람회	2011/09/01~2011/09/18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꽃 박람회	2011/09/01~2011/10/01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투자 박람회	2011/09/01~2011/09/18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기술 박람회	2011/10/24~2011/10/30	보고타, Corferia
콜롬비아 보고타 공예품 박람회	2011/12/07~2011/12/20	보고타, Corferia

자료원: KBC 자체자료

8.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공공부분

- 콜롬비아 정부: www.presidencia.gov.co
- 상공부: www.mincomercio.gov.co
- 외무부: www.minrelext.gov.co
- 국방부: www.mindefensa.gov.co
- 광업 에너지부: www.minminas.gov.co
- 교육부: www.mineducacion.gov.co
- 통신부: www.mincomunicaciones.gov.co
- 교통부: www.mintransporte.gov.co
- 무역투자진흥청: www.proexport.gov.co

나. 상공회의소, 조합단체

- 보고타상공회의소: www.ccb.org.co
- 메데진상공회의소: www.camaramed.org.co
- 깔리상공회의소: www.ccc.org.co
- 한콜상공회의소: www.colombocoreana.com
- 전국산업협회: www.andi.com.co
- 전국상공인연합회: www.fenalco.com.co

다. 금융기관

- BANCOLDEX(수출입은행): www.bancoldex.com
- Bancolombia 은행: www.grupobancolombia.com
- Banco de Bogota 은행: www.bancodebogota.com.co
- BBVA: www.bbva.com.co
- Banco de Credito 은행: www.bancodecredito.com

라. 언론매체

- El Tiempo (종합일간지): www.eltiempo.com
- Portafolio (경제일간지): www.portafolio.com.co
- LaRepublica (경제일간지): www.larepublica.com.co
- Semana (경제주간지): www.semana.com.co
- Dinero (경제격주간지): www.dinero.com.co